

김윤수 前 판사
"욕망이 충족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자유 얻게 되죠"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2월 26일) · 주간

제926호 2013년 2월 6일 수요일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법구경」

"불상 반환 신중해야"

日 원정 절도단이 훔친 국보급 신라·고려 불상
조계종, 부석사 등 성명 발표… 정부는 유보적 입장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海神神社)와 간논지(觀音寺)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고려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월 29일 국내에서 회수되며 반환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월 6일 일본 후쿠오카 발 여객선의 화물을 검색하는 부산항 통관실에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불상 2점이 올라왔다. 이 화물들은 부산항 문화재감정관실에 보내졌으며 감정관실은 곧 '100년이 안된 위조 골동품'으로 판단해 반입을 허가했다. 통관을 거친 이 골동품들은 이내 한국에서 종적을 감췄다.

2달 뒤인 12월 한국경찰과 문화재청은 일본정부로부터 수사 요구를 받는다. 이 골동품들이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라는 것. 불상 중 하나는 8세기 경 통일신라 불상으로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이었으며 또 한 불상은 고려 말 14세기 제작된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 문화재로 지정된 관음보살좌상이었다. 이중 간논지에 있던 관음보살좌상은 내부 발원문에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불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불교계, 그리고 학계는 반환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사는 하겠지만 국제법상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는 1월 31일 성명을 통해 "금동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려시대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 성보"라며 "성보의 반환여부는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쓰시마의 신사와 절에서 도난당한 뒤 국내에 반입된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좌)과 신라금동여래입상(우). 부석사 관음상의 경우 출처가 분명해 반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산 지역 왜구 침범 잦아
학계 약탈 가능성에 '무게'
불상 환수 움직임도 일어
日, 선의취득 증거 제시해야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서산 지역은 당시 왜구들의 약탈이 심했던 곳"이라며 "1375년 인근 관촉사 등이 왜구에 의해 불탄 기록이 있는 등 약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약탈된 문화재라면 의당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며 "일본 측이 먼저 반입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지역민들도 부석사에 불상이 반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불상에 대해 부석사와 서산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환수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면에 계속〉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반입 불상 관계법령 어떻게 되나?

관련법에서는 자국문화재일지라도 불법으로 유출 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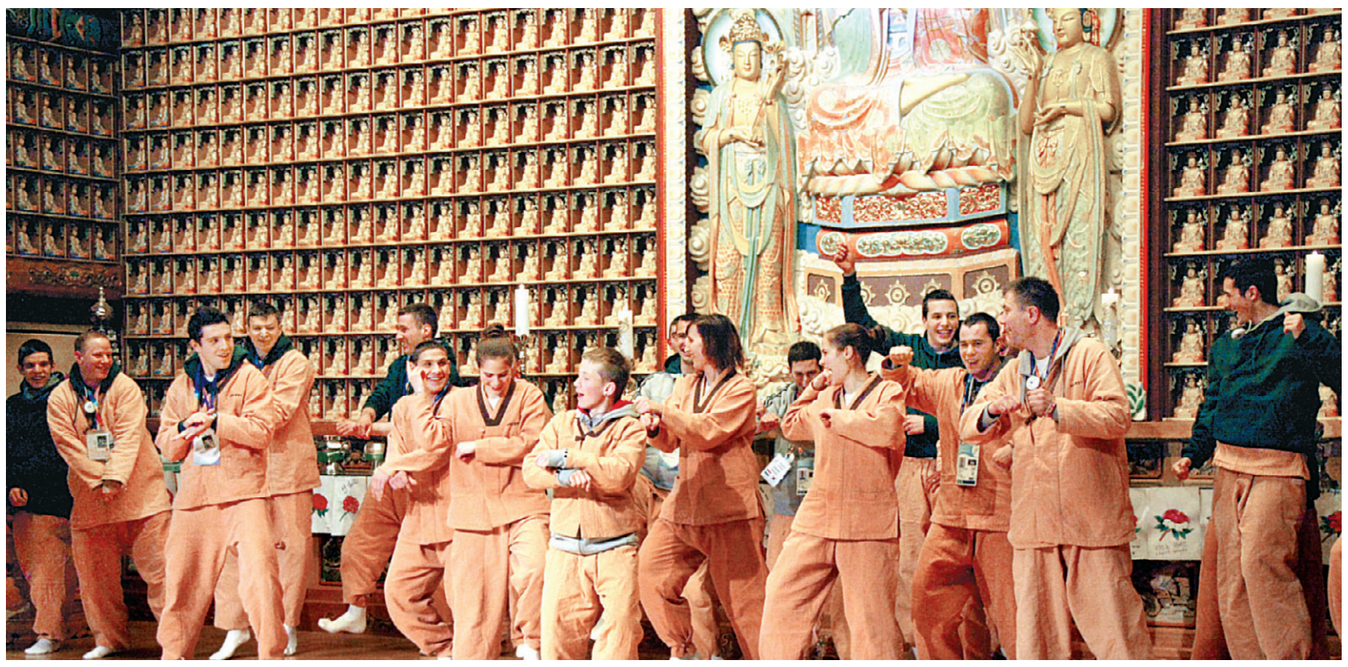
하지만 학계에서는 현재 한국이 불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히 반입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에서는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1970년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에 따르면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돼 있을 경우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출처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이 양 관계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반입된 상기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함께 말춤을… 장애의 벽도 넘다 평창에서 열린 '2013 동계 스페셜 올림픽' 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각국 대표선수단이 한국의 산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월정사에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각국 선수단을 위한 '호스트 타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월정사

중앙신도회 조직정비 新舊갈등 표면화

전임 사업 잇달아 축소… "소통 필요" 목소리 높아

조계종 중앙신도회 새 집행부가 추진하는 조직 재정비 사업에 신구간 불협화음이 표면화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2013년 산재된 조직을 재정비하고 역할이 중첩된 단체를 하나로 엮어 신도회의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신도회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유사 법인을 통합한다는 것. 조계종 포교원도 신년계획을 통해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신도단체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 속에 전 집행부가 진행하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단법인 연우(이사장 구자선)가 운영하는 연우치과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진료를 중단했다. 현재 연우치과는 폐쇄된 상태로 '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와의 관계 문제로 운영을 중단했다'는 공지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한신 중앙신도회 사무처장은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한 의사가 2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어 연우 이사회에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중앙신도회 산하 법인인 불교인재원은 법인 통합 건으로 중앙신도회와 껄끄러운 관계다. 한 관계자는 "(사)날마다좋은날과 통합 문제로 지난해 11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벽을 부수고 하는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중앙신도회를 고소하기도 한 불교인재원은 불투명한 2013년 사업으로 10여 차례 기획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순례 행사를 4차례로 축소할 계획이다.

불자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교수자문단도 매끄럽지 못하다. 불자들의 모임인 교수불자연합회와 사업과 활동영역이 중첩됨에도 전혀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포교 일선 관계자들은 신구 간 소통이 이번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지적한다. 종책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진행 사업들을 원만하게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불자연합회 관계자는 "사회봉사, 대불련 지원 등 활동영역이 중첩됨에도 자문단 발족에도 협의 과정이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원만히 진행해야 새 집행부가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주요 포교·신행단체 연합 행사 열겠다"

자승 스님, 군종교구 예비역 장성 신년 인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연내 종단 주요 신행·포교단체 간부들이 참여하는 연합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1월 28일 군종교구 예비역 장성들의 신년 인사에서 "종단 내에는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국회 정각회, 청와대 불자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주요 신행·포교단체가 있다"며 "이들 단체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 등을 주제로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려 한다. 예비역 장성들의 활발한 참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박 3일 일정이 어렵다면 1박 2일이라도 진행할 것"이라며 "각 불교 단체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군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한국불교 군포교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며 "지난해 논산 훈련소 군법당 신축이라는 어려운 불사를 잘 마무리했다.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신년인사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예비역 불자회 임원들의 인사도 이어졌다. 조남진 예비역 불자회장(前 교육사 교리부장·소장)은 "예비역 불자회에는 뛰어난 군 경력자들이 많다"며 "기존에는 육군 본부 내 원광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부산, 원주, 대구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926호 INDEX

종합 2·3
동국대 재가이사 선임 갈등
진각종 통리원장 기자회견
대불련 50주년 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포교원 신년 기자회견

시방세계 5
지관 스님 1주기 선양사업

신행 6



한마음선원 전국청년연합수련회
금강경독송회 한국문화 알리기

화엄만다라 16·17
니르바나 강형진 단장

도서문의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054)261-2231



닦는마음 밝은마음 김재웅 지음 384면 | 15,000원

24년 만에 개정증보 • 140면 증대!

미국에서 출판 미국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9위!

달라이라마가 서문을 쓰고 추천한 불자들의 수행 필독서!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은 김재웅 법사님이 그의 스승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엮은 책으로, 밝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조언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심, 질병, 기근, 그리고 결국 죽음을 야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내면의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런 선의(善意)를 추구하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소중한 조언을 얻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티베트 승왕 14대 달라이 라마
Venerable Tenzin Gyatso, the 14th Dalai Lama of Tibet

• 150만권 발행된 저자의 다른 책 『마음 닦는 법』이 곧 새롭게 출간됩니다 •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근본적으로 망상이란 없는 것이고

그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일으키는 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여러분이 아무리 석탄을 깨끗이 닦고 문질러도 석탄을 하얗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석탄이 본래 검은 것처럼, 무명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의 일부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명과 망상은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살 무명과 망상은 조금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고유한 본성인 불성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불성은 근본적으로 순수하고 변함없는 순금과 같습니다.

무명은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모습을 취합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말입니다. 한순간 구름이 커다란 흰 색의 덩어리를 형성하면 태양의 빛을 가립니다. 그러난 우리가 이 구름을 향해 날아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실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명이 만들어내는 장막은 일시적이고, 무상하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의 본성을 대신할 수 없고, 본성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며, 우리 본성의 한 부분인 것도 아닙니다. 무명은 모든 망상의 뿌리이고,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미끼인 것이지요.

공성을 자각함으로서 무명의 장막이 벗겨지면, 붓다의 본연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태양은 비추기를 멈춘 적이 없으므로, 바람이 구름을 날려버리면 바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동국대 재가이사 선임 놓고 갈등

총동창회, 정관 개정 반대… 종관위 "종단 명예 훼손"

학교법인 동국대의 이사와 감사를 종단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데 대해 동국대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국대 총동창회 상임위원회는 1월 29일 '재단 임원 선임 적법절차 촉구 및 정관 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회원들에게 송부하기도 했다.

총동창회는 공문에서 "최근 조계종 총무원과 재단이 재가 이사 후임 선출을 놓고 재단 정관 규정과 사학법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재단 이사 정원 13명 중 9명이 조계종 스님이고 당연직 이사인 총장을 제외하면 동문을 포함한 재가자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3명뿐"이라며 "정관 규정대로 승려 이사는 종단에서 추천하되, 재가 이사는 재단 이사회가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창회 측이 문제를 삼는 개정 정관은 임원 선임 방법을 종립학교관리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조계종 수정 요청 사항이

사학법 공공성 취지 위반

재가이사는 이사회서 선임

동문들에게 공문 송부

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는 임원을 '조계종 재적 승려 이사 및 감사'에서 '이사 및 감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오는 2월 8일까지 전개해 종단과 재단의 부당한 정관 개정을 동문들에게 알리겠다"며 "동국대 이사회는 동문이나 교육 행정?경영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는 비율이 너무 적다. 이제는 학교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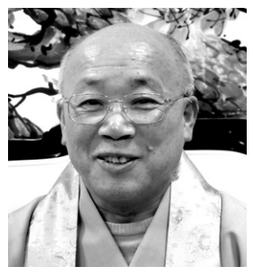
조계종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는 1월 31일 동국대 총동창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종단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지적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동국대 이사 선임은 종관위 추천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했다"며 "최근 동국대 총동창회가 이사 선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동문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오는 2월 6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문화전승관 건립 임기중 가장 보람"

4월말 임기끝나는 혜정 통리원장 소회 밝혀



"회당종조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진각문화전승관 건립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올 5월에는 그 옆에 국제체험관 및 교육관과 수행승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착공합니다. 이것들이 완성되면 비로소 진각성존 보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사진〉는 1월 29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진각문화전승관 4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소회를 먼저 밝혔다.

올 4월로 임기를 마치는 혜정 정사는 "신규사업 보다는 다음 집행부가 종단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혜정 정사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8개국 언어로 번역한 종조법어집 〈진각〉 출판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학술행사와 회당문화축제 등을 펼쳤습니다. 또한 오는 4월초에는 밀교수행과 신행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티베트본 〈마니칸붐〉을 완역 출간하고 원문은 CD로도 제작 보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화불사의 기반을 통해 문화재단이 설립이 가속화되면 본격적인 문화불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혜정 정사는 "올해에는 스리랑카 회당국제학교 상급고등과정 확장으로 유아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육체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에도 교육과 복지사업을 넓혀갈 것입니다."라고 해외사업 계획도 내비쳤다. 김주일 기자

'日 도굴 불상 반환' 각계 목소리 〈1면에 이어〉

김현구 前서산문화원장은 "2004년 부석사 친목단체인 '부남친목회'와 2010년 서산문화원 회원들이 모인 '문화비전21'과 두 차례 대마도 관음사를 찾아 금동관음보살상과 협시불인 대세지보살상을 확인하고 친선교류를 통한 물밑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산 일대에서는 현재 부석사 관음보살상반환추진위원회 발족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산시도 반환운동을 위한 행정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학계는 일본도 정당하게 반입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 5차례에 걸쳐 대마도에 있는 불상을 전수조사한 경험이 있는 불상 연구 최고 권위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규슈대 대마도 보고서에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됐다고 기록돼 있다"며 "1350년대 이후 충청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집중되는데 이때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500차례에 달하는 왜구 침입이 있었는데 부석사 인근 지역은 해안으로 왜구 약탈행위가 심했던 곳이다. 〈고려사절요〉에는 공민왕 7년(1358년) 왜적이 한주(서천)와 면주(당진)를 침범해 노략질했으며, 우왕2년(1376년)에는 공주가 왜적에 의해 함락됐고 논산 개태사도 도륙됐다고 쓰고 있다.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도 "원상태 조성 당시 복장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세에 반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약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에서 점유하고 있으며 약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본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며 "반환보다 유네스코나 한일 양국이 협의, 또 공동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문화재제자리찾기 공동대표는 "일본 측은 조선 시대 유출된 문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소장 경위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것이 미심쩍다"며 "일본이 스스로 소장 경위를 밝히는 것이 오해를 풀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정적 대응에 대한 경계를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1980년대부터 수집한 자료에는 총 14만 9126여 건의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가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들어온 불상과 같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문화재들이 많다. 공개조차 꺼려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은 "향후 일본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털이범에 의해 들어온 만큼 관음사, 일본 측과 협의해 반환 후 재환수하는 결과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승려 복지 전수조사 나선다

승려복지회, 신년 계획 발표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2014년 수행연금 시행을 위한 승려복지 전수 조사 등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승려복지회는 1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기 2557년 종단 승려복지회 사업계획'을 밝혔다. 승려복지회는 올해 국민연금 가입 추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65세 이상 노스님 복지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승려노후복지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노스님 전수조사의 경우 개인별 노후대책과 국가 및 지역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여론수렴 등을 통해 종단 승가복지 모델 및 중장기 계획을 설정할 방침이다.

조사는 3~5월 진행되며 7월 중 백서를 발간한다.

이용권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승려노후복지금은 연간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현재 종단에 모연된 승려노후복지기금은 약 18억원 규모"라며 "하지만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사부대중의 인식부족으로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전을 일굴 수 있는 승려노후복지제도에 대한 사부대중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2011년 스님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복리증진을 통해 수행과 포교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수행연금 및 의료·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 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2월 25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5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2월 25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5. 출발일자

· 3월 8일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50돐 맞은 대불련, 포교 발전 모색

대불련 50주년 사업회 기자회견… 8월 17일 기념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역량을 결집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회(운영위원장 임동주)는 1월 28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주년을 맞은 미래비전을 밝혔다.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은 크게 △대불련 비전 설립을 위한 야단법석 개최 △안정적 재정 토대 마련을 위한 대학전법센터 건립 △8월 17일 50주년 기념식 개최 △〈대불련 50년사〉 발간으로 진행된다.

'선재! 붓다의 길을 묻다'로 이름 붙여진 야단법석은 그동안 한계에 부딪쳤다는 대학생 포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역량 결집의 자리로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도법, 법륜, 혜민 스님 등 대학생 멘토를 초청해 대학생들에게 불교 철학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4월 중으로 대불련 총동문회와 사찰 신도회 등 유관단체들의 대학생 포교에 대한 의견 수렴

4월 중 포교 공청회 개최
대학전법센터 추진 통해
연합회 재정 안정화 확립

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교육사업인 KBUF Leader`s Club의 교육프로그램이 확장될 예정이다.

외형적으로는 대학생 포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전법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대학전법센터 건립을 위해 후원조직을 강화한다. 대학전법센터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포교, 교유그 수행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연구조직이 운영되며 불교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교계 인력 배출의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50주년 기념사업회 임동주 운영위원장은 "KCC(기독학생회)의 경우 수십년 전부터 회관 등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공격적인 대학생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조직도 들어설 대학전법센터는 대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적, 물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련 50년사〉에는 성철 스님, 광덕스님, 이한상 거사 등 대불련 창립과 대불련 사에 역할을 한 각계 인사들의 자료 등이 담긴다. 또 발간에 앞서 역사자료 전시회와 후원금 모집 행사 등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8월 17일 열리는 50주년 기념식은 동문과 전혁직 지도법사, 지도교수, 동문가족, 후원인 등이 소통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포교동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한편, 대불련은 2012년 7월 14일 50주년 기념사업 발기인대회를 열고 11월 기념사업회 조직을 완료했다. 추진위원장에는 박지연 대불련 51년차 회장으로 임동주(서울대 70학번, 대불련 10년차 회장)씨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유지원(전북대 87학번)씨를 집행위원장으로 편찬 기획 조직 후원 정책 홍보 등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지연 회장은 "50주년을 맞아 대불련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며 "청소년 포교의 역사인 대불련이 기반을 마련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불총림 4대 방장 광제 스님 추천

백양사 산중총회서… 3월 중앙종회서 추천 결의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1월 26일 참사람 수행관에서 산중총회를 갖고 지난해 3월 수산 스님 입적으로 공석이 된 제4대 차기방장으로 자옹 광제스님을 추대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새로 개정된 산중총회법에 의해 300여 명의 백양사 대중 가운데 156명이 자격이 인정되어, 이날 88명이 참가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이날 광제스님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백양사에는 방장추대위원회를 통해 추후 광제스님에게 대중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선스님(백양사 수좌)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중총회를 통해 대중들이 방관을 하지말고, 앞으로 총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제스님은 1969년 3월 서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0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계했다. 스님은 1971년부터 봉암사, 동화사, 복천암, 향천사 천불선원, 백양사 운문암 등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지난 2002년 7월 서옹 스님으로부터 전법 부촉을 받고 백양사 수좌로 위촉되었으며, 2012년 수산스님 유시로 고불총림 백양사 부방장으로 위촉됐다. 백양사= 양행선 광주지사장

"신도관리 체계화로 포교 역량 키울 것"

조계종 포교원, 신년기자회견… "환희 · 감동 포교 지속"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올해 신도관리 체계화를 통한 포교활성화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신도교육 정예화,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 군포교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중점 전개한다.

포교원은 1월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취임 2년차를 맞아 환희와 감동의 포교로 전법의 지평을 넓히고 시대와 소통하겠다"며 "특히 신도교육 정예화, 전법단 운영체계 정립, 신도단체 재정비 등 신도관리 체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활성화 △군포교 연계 정책 수립 △신도교육 정예화 △전법단 운영체계 정립 △사찰 중심의 지역포교 활성화 △포교후원회 결성 및 포교기금 조성 △SNS전법 등 미래포교 예비 △신도단체 활성화 등 8대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012년 진행한 SNS포교 전략 등을 구체화해 포교현장에서의 역량강화를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불자들을 결집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SNS 등 사회변화에 따라 포교역량을 모으기 위해 포교지도를 작성하고, M포교라이브러리를 개관해 구축한 자료를 포교현장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9월 6일 학술세미나와 7일 열린음악회 및 위령제 등도 개최하며 7월 27일 UN의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여한다. 이에 앞선 5월 3일에는 10만 평화건기 행사도 개최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013년 내실있는 운영과 역량결집으로 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총장 선출 연기

승가학원 97차 이사회서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7차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 등의 안건을 다뤘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회의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총장 선출 안건 이월 후 "성문, 무상, 향적, 지현 스님이 총장 후보인 미산, 원정 스님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 단일 후보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사회는 2013년도 법인 및 대학 자금 운영 예산 심의와 개방형 이사 · 추천 감사 선임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의 올해 예산은 45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0.9% 감액됐다. 예산은 축소됐지만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특히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학원 신설은 중앙승가대의 올해 중점 사업이다. 총 8학점이 배정된 어학원 수업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실시된다. 교육은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실생활 회화를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선출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감사 현담 스님은 유임됐다.

신중일 기자



"든든한 희망 안고 입학하세요"

아름다운 동행, 선재의 선물 책가방지원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 선물' - 책가방 보내기 포장식 및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석해 포장식을 진행했다. 또한 종로구 다문화가정의 최가연(8세) 아동 외 3명의 아동이 참석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책가방과 학용품과 도서가 담긴 선물 박스를 전달받았다.

선물을 전달받은 김순덕 할머니는 8살 손녀 정다희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는 조손가정 어르신이다. 김 할머니는 "허리 수술로 몸이 많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려워 손주에게 입학 선물을 변변히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선재의 선물' - 책가방보내기 모금 캠페인은 지난 해 연말 약 1달간에 걸쳐 1인 후원자가 5만원을 후원하면 1명의 아동에게 책가방을 선물하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금활동을 통해 약 1500만원이 모금됐다. 또한 지난 9월 동행이 개최한 나눔바자회의 수익금과 아름다운동행에서 기금을 보태어 총 6천 만원 상당의 기금이 모아졌다.

글= 정혜숙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사찰서 만나는 경전 속 식물

사생연, 1차 보고서 발간

사찰생태연구소는 〈불교경전 속 식물이야기〉 1차년도 사업으로 〈우리나라 절집의 불교 경전 속 식물〉 보고서를 발간하고 답사기행을 떠난다. 여기에는 대장경 속 식물 중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호두나무 등 20여종의 나무 이야기와 생태 등을 실었다.

이와 함께 사찰생태연구소는 '향기나는 삶을 찾아떠나는 기행'도 계획하고 있다. △3월 31일, 매화향 그윽한 남도의 절집-백양사, 금둔사, 선암사, 송광사, 쌍계사 △6월 16일, 맑은 기운이 깃든 향나무-신륵사, 광덕사, 마곡사, 법주사 △9월 29일, 청정함을 닮은 나무들-낙산사, 상원사, 월정사, 정암사 △11월 17일, 대장경을 담은 나무들-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등 계절별로 나누어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사찰생태연구소는 앞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수행자의 공양물, 곡식과 채소 이야기', '약이 되는 식물과 향이 좋은 식물' 이야기를 주제로 2차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참선지혜
활인선원의 3일간의 깨달음
선회 3일, 수련회 6일 – 금강단식
〈봄방학 특별〉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일상생활의 갈등과 어렵고 힘든 삶을 참선지혜로 거뜬하게 해결하세요.
금강단식 효과 지대함 면역성 피부미용질환 금연금주간단해결 고혈압당뇨 각종질환 정신예방치유 다이어트1일최고 3kg
선회 3일 2월입재/2월 15일(금) 오후 5시, 회향/2월 17일(일) 오후 5시
3월입재/3월 22일(금) 오후 5시, 회향/3월 24일(일) 오후 5시
수련회 6일 2월입재/2월 15일(금) 오후 5시, 회향/2월 17일(일) 오후 5시
3월입재/3월 22일(금) 오후 5시, 회향/3월 24일(일) 오후 5시
지혜의 확장-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크고 작은 가정과 직장 대인관계 등 일상에서 격는 생활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 지혜를 확장하는 길이다. 그것이 높은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현대사회에서 격는 물질 돈 이성 스트레스 취업 직장동료 · 상하관계 가족관계 제반 문제와 갈등을 몸에 배어있는 관행에 맡기지 말고, 지혜로 접근하다보면 의외로 주저앉거나 포기해왔던 어렵고 복잡한 골치 아픈 일들이 신기하리만큼 가볍게 해결되고 가뿐해진다.
제주원명선원 중앙선방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번지 ☎ 1644-5266 / 070-7519-9929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통합검색 '활인선원'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일 주 문



공불련 세종 청사 법회서 법문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2월 4일 세종청사서 열린 공불련이 개최한 신년법회에서 법문했다.



해군 불자생도 졸업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2월 7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졸업법회를 개최한다.



보명한의원과 한방진료 협약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은 1월 29일 서초 보명한의원과 저소득 장애어르신 개별맞춤진료 협약을 맺었다.



제주도 특별성지순례 봉행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3월 27~28일 제주도 특별성지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7



참선집중수행 참가자 모집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2월 15일까지 참선집중수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061)533-3521



불교문화 국비지원 공모 접수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2월 15일까지 2013년 불교문화행사 국가보조금지원사업 시행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02)2011-1779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종훈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9일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 결사총괄부장에 종훈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자성과쇄신결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괄부장은 사무국과 화쟁위원회, 결사위원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종교평화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직제다.

종훈 스님은 능가 스님을 은사로 1971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사 선원 등에서 수행했다. 2006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과천 보광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1일 인사를 단행했다.

▲불교대학원 부원장 겸 불교대학 부학장 우제선 ▲공과대학 부학장 박준영 ▲과학영재교육원장 김선정 ▲박물관장 정우택 ▲바이오자원생태농장장 겸 학술림 관리소장 강호덕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홍성조

"운영 내실화·콘텐츠 개발에 주력"

문화 사업단 신년 기자회견
3월 발전 방안 수립 예정



실무자 급여 체계 확립
브랜드 중심으로 운영
사찰음식 경연대회 개최

"문화사업단은 그간 템플스테이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고, 이에 대한 일정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제는 인력육성, 프로그램 개발, 조사 연구 등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임명된 정산 스님〈사진〉은 1월 27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운영 기조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스님이 강조한 운영 기조는 △운영 내실화 △불교문화 콘텐츠 발굴 △사찰별 특성화 전략 등으로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 시즌2'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운영 인력 지원이다. 이를 위해 운영 인력의 경력관리와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인력 처우 개선에 나선다. 그간 천차만별이었던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을 위한 보수 체계 확립과 복리후생, 포상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템플스테이로 굳어져 있는 문화 사업단의 업무를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로 확장하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찰음식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전반을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불교문화상품의 영역 조사를 통해 불교문화 자원이 어떻게 특성화되고 산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며 "또한 국내외 순례상품 개발과 브랜드 런칭을 통한 인지도 향상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음식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찰을 확대하고 사찰음식 현황 및 고문헌, 기능성 등 전문화를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찰음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식문화 개선 범국민 캠페인과 5월 중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시즌 2'로 접어든 템플스테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간 문화체험 중심이었던 템플스테이를 사찰별로 특성화해 수행, 휴식, 힐링 등 영역을 세분화하겠는 것이다. 사찰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곧 사찰만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산 스님은 "문화사업단은 향후 사찰 자원의 역량을 고려하고 수요자의 요구 및 사회적 트렌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찰별 콘텐츠 제공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템플스테이가 정신, 사회 문화, 경제 등에 순기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성 강화는 템플스테이가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올해 사업기조를 발표한 문화사업단은 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대적 아픔 공감하는 '佛靑' 되자"

대한불교청년회 제26·27대 중앙회장 이취임식



전준호 중앙회장이 지도법사 덕신 스님에게 장군죽비를 이양받고 있다.

"젊은 불자의 기백과 용기, 지혜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전법도생의 정토 건설에 몸을 바치겠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26·27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소통·화합·비상하는 청년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대한불교청년회 지도법사 덕신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삼귀의·반야심경·장군죽비 이양·재직 기념패 전달·이취임사·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회기와 장군죽비를 이양받은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제27대 중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에 산재한 시대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창립자인 만해 대선사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대한불교청년회의 화두"라며 "27대 집행부는 교육사업과 공공시설 운영, 청년인재 불사 등을 통해 신행·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환경 문제에 불교적 해법 찾아달라"

조계종 6기 환경위원 위촉… 위원장 장명 스님



1월 31일 4층 접견실에서 위촉된 제6기 환경위원들.

사회적 화두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6기 환경위원들을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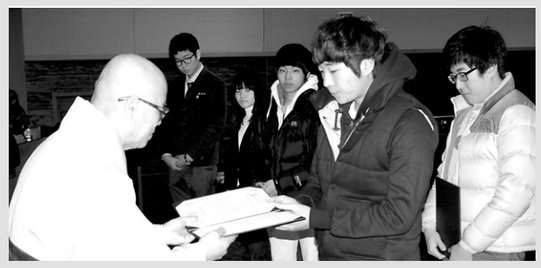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총 19명으로 중앙종회의원 장명 스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미등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성전 스님, 봉은사 총무국장 진경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 이병인 부산대 교수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조채희 사찰생태연구소장 등이다.

이날 자승 스님은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시대에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통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이후 6기 환경위원회는 환경위원장에 장명 스님을, 부위원장에 이병인 교수를 선출했다.

한편, 환경위원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불교수목원 설립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사찰 적용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을 위한 지침서 마련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중일 기자**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재단법인 연등장학재단은 1월 27일 대구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제8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팔공산 제2석굴암 주지)은 영남지역 고교생 31명에 1인당 50만원, 대학생 19명에게는 100만원 씩 총 345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법등 스님은 인사말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불가의 불사 중 인간불사가 우선돼야 한다. 마음공부를 열심히해 내 인생의 원을 굳건히 세워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나가라"고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 주지 이취임 법회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이취임 법회가 2월 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무원 스님은 천태종 삼광사 제11대 주지에 취임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종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종 부산시의회 의장,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문재인 의원 등 지역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무원 스님은 "삼광사를 명실상부한 포교중심 사찰로 육성하고 신도회 법회를 더욱 활성화해 유아,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국대 일본 대지진 피해자 추모

한국과 일본, 독일, 영국, 스리랑카의 불교학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학자들이 1월 24~25일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인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쵸(平泉町) 및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를 방문해 지진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동국대와 일본 국립 사이타마대학(埼玉大)(학장=가미이 요시히코(上井 喜彦)) 관계자 20명은 1월 22~23일 일본 사이타마현이 공동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국경을 넘어서 아시아를 생각하다' 이후 지진피해지역을 찾았다. 이들은 24일 히라이즈미쵸(平泉町) 중존사(中尊寺)와 모월사(毛越寺)를 방문해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공양을 위해 세워진 불상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불교음악,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교수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시식/예불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7시	이기봉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대령/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7시	*	*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마일운	30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시	조인욱	30
불교의식(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4시	심만춘	*

학 점 은 행 제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영산재 행위전승 학습	불교의식이론	화	오후 1~4시	30
사물실습	불교의식실기	화	오후 1~7시	30
범패실습 I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30
영산재 의례절차 II	영산과정	금	오후 1~7시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시	약간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 등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편 입 학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 2013년 1월 14일 ~ 2월 28일
■전 형 료 : 50,000원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 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최 원 혀 합장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02)392-3234, Fax:02)392-3239 홈페이지:www.okchunbud.kr











①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생전 집무실에 설친된 지관 스님의 추모관. 매월 초하루 · 보름 연구원은 정기추모다례를 봉행한다.
②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연구실 중 하나인 금련실. 연구원은 백련, 청련, 홍련 등 4개의 실을 운영중이다.
③ 지관 스님의 유작 〈가산불교대사림〉. 향후 8년을 이어갈 대작불사다.
④ 연구원 서재한켠의 지관 스님 문집 자료.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연구원은 이를 한데 묶어 전집으로 발간한다.
⑤ 지관 스님의 보따리. 스님이 항상 지니고 다니며 원고작업을 했다.

수행 · 학문
사상 · 업적

스님이 남긴 모든 것, 한데 모은다

지관 스님 1주기…추모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2012년 1월 2일, 당대 최고 학승이며 율사였던 종교지도자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은 불자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스님이 적멸의 세계에 든 지 1년이 됐다. 문도와 후학들은 현재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사업들을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24일 찾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종로 명륜동에 위치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1991년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건립한 곳으로 현재 20여 명의 상근 연구원들이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스님 입적 후 원내 집무실을 추모관으로 보존하고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 다례재에는 원내외 스님의 제자 5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유지를 되새기고 있다.

재가 제자인 정병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장은 "정기 추모 다례재는 단순히 '상망'이 아닌 스님의 유지와 사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가산불교대사림〉이 완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사업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스님의 유작 〈가산불교대사림〉편찬. 올해 국고 지원 5억 원을 받는 〈가산불교대사림〉은 3월 중 14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본책만 20권 보유편, 색인편 각 1권씩 총 22권이 발간되며, 향후 8년 간 출간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정 연구위원장은 "대사림의 한권 당 원고 매수는 2만여 매를 상회한다. 모든 원고를 교차로 검수하는 작업까지 거치면 1년에 1권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며 "이미 스님께서 관련 원고를 전부 집필해 놓으셨다. 절반가량의 원고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시스템에 맞춰 대사림을 편찬하면 된다.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림 편찬은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세계불교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완간되면 한국불교의 위상은 분명히 증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 저서 전집 발간

〈가산불교대사림〉이외에도 스님의 사상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들을 연구원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전승불교학총서 〈가산지관대종사전집〉이다. 전집은 한글판 40권, 영문판 15권으로 총 11부 55권으로 이뤄진다. 현재 95%가량 원고가 완료됐으며 영문 원고는 마이클 핀치 계명대 교수, 리처드 맥브라이드 하와이대 교수, 요한 조르게센 호주 국립대 교수, 암준현 미시간대 교수, 페트릭 울만 등의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들 영역자들은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시절 추진했던 〈한국전통사상총서〉의 다자간 번역시스템에 참석했던 학자들이기도 하다.

전집 11부는 △행장록 △한국불교소의경전대강해 △금석문 △계율 △사료 △선종 △원효찬술 △교화 △의례 △법어 △논문집으로 구성되며, 그 안에는 스님이 연구 · 저술한 〈불교종단발달사〉, 〈조계종사〉,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역대고승비문〉, 〈한국고승비문총집〉, 〈남북전육부율장비교연구〉 등의 저서와 법어, 대담, 칼럼, 논문 등이 전부 수록된다.

대사림 3월 중 14권 발간
2020년 경 22권 완간 예정

한국불교정수 '가산 전집' 준비
총 11부 55권 방대한 분량
전문 교수 5명 영역화 진행

정 연구위원장은 "스님의 저술서와 논문부터 칼럼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전집을 보면 신라부터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정수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만큼 스님의 연구 분야가 폭 넓고 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사부대중을 위한 서적들도 발간된다. 스님의 〈신행일감〉의 개정판인 〈한낮에 높이 드신 등불〉(가제)에는 스님의 진영, 행장, 최종인터뷰가 게재된다. 가산지관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문집 〈큰스님 뵙고 싶습니다〉도 준비 중에 있다. 추모 문집에는 스님과 인연이 각별했던 108명의 인사가 각자 추억담을 원고에 담아낼 예정이다. 주요 인사로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前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해 이종찬 前 국정원장, 김명호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아카이브 구축 · 보은공원 유지 사업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지관 스님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아카이브 사업도 진행한다. 스님의 자필원고, 일체 문서 자료, 영상 등이 한데로 모이는 아카이브에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지관 스님의 60년만의 고향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청하 '보은공원'의 유지도 연구원이 이어갈 사업이다. 지관 스님은 공원에 '고향방문기념비'의 비문을 직접 쓰기도 할 만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스님은 이 공원을 통해 '일체중생의 무한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한국불교의 특별한 효 사상을 선양하길 바랐다.

실제 지관 스님은 비문에서 "고향을 지키며 공동의 도덕을 선양계승해 온 여러 위대한 선조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문도회와 연구원은 올해 4차 산문을 신축하고 '보은문' 현판을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정 연구위원장은 "지난 1년간에는 스님의 선양사업을 기획하고 대사림 발간에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면서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 스님의 연구원과 함께 설립한 삼학원의 강좌 등을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말보다는 실천…선양사업에 최선"

김정배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 스님과의 인연은 1970년대 초 스님이 청룡암에 주석하고 계실 때부터 이어지네요. 스님은 내가 아는 한 최고의 학승이셨습니다. 그런 스님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배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사진〉과 지관 스님의 교유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막역지우(莫逆之友)'의 관계였다. 지난해 10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요청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수락한 이유도 각별했던 관계가 컸다.

"생전 스님과 학술적, 인간적 교류를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속인이지만 마치 형제와 같았지요. 당시 故서경수 동국대 교수와 셋이 주로 만났는데 당시 스님은 '셋이 만나면 마음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원이 어려울 때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저를 추천했다고 하니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현재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가산불교대사림〉의 완간이다. 이를 완간하는 것이 스님의 큰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이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대사림 편찬입니다. 이는 고려대장경 이후 한국불교계의 가장 큰 역경불사입니다. 대사림 완간은 좁게는 연구원의 영광이고, 조계종의 업적이며 민족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입니다. 현재 전 연구인력이 매일 불철주야 편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밖에 상(相)을 내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다.

"스님은 항상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스님께서 열반 한지 1년여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경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연구원은 그때 모든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향후 김 이사장은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대사림 편찬을 위해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쓸 방침이다. 이번 국고 지원도 김 이사장의 발품이 가져온 결과이다.

"지관 스님이 일궈오신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스님의 유작인 〈가산불교대사림〉과 다양한 선양사업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중일 기자



“서로의 마음공부법 들으니 도움돼요”

한마음선원 전국 청년 연합 수련회 4백여명 참석


안양 본원을 비롯해 부산, 울산, 청주 등 16개 지원 20~30대 청년 법우 400여 명이 부산지원에 모였다. 청년들은 마음공부를 주제로 조별로 머리를 맞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발표를 하며 공감했다.

전국 한마음선원 청년 법우들이 모여 서로 둘 아닌 도리를 알고 마음공부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 본원을 비롯해 부산, 울산, 진주, 광주, 청주, 공주, 광명선원, 대구, 강릉, 포항, 문경, 목포, 중부경남, 제주, 통영 등 16개 지원 20~30대 청년법우 400여 명이 1월 25~27일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에서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를 주제로 전국 청년연합 수련회를 열었다.

그동안 매년 각 지원별로 하계 · 동계 수련회를 진행해오다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청년법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 더욱 뜻 깊다.

행사는 혜은 · 혜영 · 혜란 · 혜전 · 청룡 · 청일 스님 등 청년회 담당 법사 스님들의 지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수련회는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지원 법사 스님들은 형식에 걸맞게 입승(立繩), 찰중(察衆), 도감(都監), 다각(茶角), 호법(護法) 등 소임을 맡아 행사를 이끌었다.

첫날 각지원에서 모인 청년법우들은 입재식후 대행 스님의 비디오 법문을 들었다. 대행 스님은 법문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빛보다 더 빠르며,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이란 그렇게 광대한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죽이고 살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담당하고 있고요. 내세에 앞으로 다시 뒤바뀌어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법인 것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됩니다”고 강조했다.

대행 스님 법문에 앞서 입재식에서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내 자성자리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니 일체 경계를 내면의 근본자리에 돌려놓으면서 행하면 일체가 밝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투게 될 것이니 알차게 정진하는 시간 되길 바란다” 말했다.

14년만에 전국지원 청년 참가
2박3일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
16개 지원 청년 모여 신심 키워

둘째 날에는 예불, 발우공양, 조별토론 및 발표, 금강경 독송과 사경, 좌선 수행, 특별강연과 촛불재가 진행됐다. 토론주제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주변인연의 포교방법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공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삼포시대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나는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청년회 활성화 방안 등이 주어졌고, 청년들은 조별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법회에 나온 법우부터, 친구 따라 불교와 인연을 맺어 20대에 선원을 찾은 초심자까지 청년법우들의 고민거리가 쏟아졌다.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선원활동에 소홀해진다. 양쪽모두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활동하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 않아 고민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해 감사하게 느꼈다.(○○○씨 · 부산지원)”

조별 발표자들은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표를 그려 프로젝터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재치 있는 입담으로 수련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대체 마음공부가 무엇일까. 주인공한테 무엇을 관한다는 것일까. 처음 마음공부를 할 때 모든 것이 생소했겠지만, 법우들은 토론과 발표를 통해 그런 고충들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더 자신의 근본을 알아가고 체득해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후 청년 법우들은 금강경 독송, 좌선, 사경 등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겸임교수의 특강을 경청했다.

‘둘이 아닌 도리의 실천’을 주제로 강의한 황 교수는 “요즘 같은 경쟁시대에 마음공부가 과연 필요하냐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대는 마음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의식혁명〉의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지도’를 언급했다. 의식지도란 인간의식 수준을 수치화해 마음치유에 이르는 길을 단계별로 제시한 이론이다. 각 수치에 면밀한 분석과 그 수준의 치유와 극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실용적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황 교수는 “의식수준이 600(평화, 축복)점 정도인 사람은 하나가 됨을 느낀다. 기업에서도 기업영성자본이라고 해서 이러한 의식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200점 정도(용기, 긍정)의 수준에 있다”며 “마음공부를 하는 청년 도반들은 얼마든지 영성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촛불재를 통해 자신의 근본 마음을 밝히기 위해 다짐하며 하루를 다짐했다.

마지막 날 청년법우들은 태종대를 둘러보고 선법가, 댄스 등 장기자랑을 선보인 뒤 전체일정을 마무리했다.

윤상현(20 · 본원) 씨는 “각 지원에서 모인 법우들의 다양한 마음공부이야기를 들으니 좋았다. 배울 점도 많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세용(25 · 진주지원)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과 모여 어울리니 위로도 되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본원 청년회 지도법사 혜은 스님은 “각 지원들과 함께 열어보자는 법사 스님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게 됐다”며 “청년 법우들이 수련회를 통해 각자의 마음자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인들이여 자부심을 느끼자

금강경독송회, 미대사관 가족 초청 한국문화 알리기 나서

“Korean is diligent. Through this spirit Korea have achieved 20 centuries remarkable economic growth.” (한국인들은 근면합니다. 이 정신으로 한국은 20세기 기적이라고 까지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을 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이들은 고조선 시대 청동거울과 팔만대장경 등 한국문화와 현대 한국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 등 한국의 현대화를 보며 연신 탄성을 내뱉었다.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 산하 단체인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가 미국 대사관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문화 체험 행사의 모습이다.

1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제2교육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미국 대사관 가족 53명이 참여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영상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웠다.

송혜경 상임이사의 안내 하에 행사는 고조선의 청동거울, 고려 금속활자, 팔만대장경의 영상물 상영과 한복 체험 및 세배, 떡국 및 구절판 시식, 한국의 발전상 영상물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며 뜻 깊게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예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웠으면 합니다.”

이등서기관 총무과장 알렉산더 피 고글스키 씨와 부인 스테파니 고글스키는 설날 세배 예절 체험 후 한국전통예절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사관 가족들은 한복을 입고 아이들과 한식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 이후 공보관 도나 머피 씨는 팔만대장경을 만든 한국인들의 정신이 놀랍다고 말했다. 머피 씨는 “전란 중 한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며 훌륭한 문화재를 남긴 데에는 불교를 비롯한 한국만의 고유한 정신문화가 바탕에 있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공보참사관 보좌관 키톤 창 씨는 “금속활자 등을 보면 한국인에게는 정교한 과학적 기질이 있다. 조선업과 반도체 등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회 산하 단체인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미국 대사관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송혜경 상임이사는 “금강경독송회를 만든 김재웅 법사님이 미국 법회 때마다 재미교포들이 인종 차별과 폭력에 주눅 들어서 사는 것을 보고 난 후부터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민족의 자부심을 높이는 행사를 열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뛰어난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8종의 책자 70만 권을 인쇄해 배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됐으며 국내외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는 포항 금강정사(흥해읍)다. 독송회는 메주 · 된장 · 참기름을 생산하고 농사는 물론, 옷가게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한다. 이들은 절약을 생활화해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15년째 기부하고 있으며 미국 각 지부는 김치와 만두를 만들어 판 수익금을 행사비용에 보태고 있다. 노덕현 기자

힐링, 받지만 말고 힐링 해주자

지혜경영연구소, 명상지도자 과정 개설

한국의 전통 명상기법과 서구 명상의 장점을 접목해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는 3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지혜인 명상 지도사(1 · 2급)’ 양성 과정을 열고, 명상 지도자로서의 잠재적 소양이 있는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혜경영연구소는 ‘지혜인 명상’ 프로그램을 토대로 초중고 집중력 캠프, 경영인 · 교사 · 공무원 · 일반인 등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인성 · 리더십 · 학습 · 경영 ·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기업체 간부들에게 효과적이다. 지혜경영연구소는 삼성전자, 신한은행, 중소기업연수원 등에서 마음관리와 소통, 성공적인 삶의 비전 정립 등을 주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과 과중한 업무, 교권침해로 상처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힐링캠프, 치유성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학습 경쟁과 휴대폰 중독 등으로 고충을 겪는 초중고학생들에게는 집중력 향상과 힐링에 도움을 준다.

손기원 대표는 “21세기에 한국인이 한류(韓流)의 주역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 양궁, 골프, 사격 등 집중력 종목과 B-Boy, K-POP 등 신명 나는 분야를 비롯해 휴대폰, 조선, 디자인 등 창조적인 분야까지 명성을 날리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는 한국인의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다. 21세기의 개인과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일도 한국인의 오랜 전통에 해답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지혜인 명상 지도자’ 양성 과정은 1 · 2급 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140시간, 커리큘럼은 △한국인의 5천년 명상전통 △한국 · 동양사상의 진리와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기간 동안 해발 800m 산속 청정지역에서 명상과 힐링, 사찰 자연음식을 체험하는 워크숍도 마련된다.

교수진으로는 〈지금 행복해야 항복한 거야〉〈공자처럼 학습하라〉의 저자인 손기원 대표를 비롯해 박의동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청길 달문명상기수련원장, 이명순 지혜경영연구소 이사 등이 참여한다.

수료자에는 수료증과 지혜인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지혜인 명상지도자로서 소양에 따라 교육 진행에 참여할 기회도 부여된다. (02)766-9455

이나은 기자

생활속의 불법수행 ④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포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무지개는 본래 일곱 색깔이 아니다



빨 · 주 · 노 · 초 · 파 · 남 · 보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을 띤다. 햇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일곱가지 색깔로 나뉘어져 하늘에 수를 놓은 것이 무지개이다. 빛이 프리즘과 같은 분광(分光) 장치를 통과하면 똑같이 선명한 일곱색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색을 일곱 가지로 받아 들인다. 그러나 빛은 일곱 색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 일곱 색으로 보일 뿐이다.

사람의 눈은 적외선, 자외선을 볼 수 없다. 또 너무 가까운 것, 너무 먼 것도 볼 수 없다. 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영역에 속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소리의 파장이 아주 길거나 짧을 경우 사람들은 소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코끼리는 자기들끼리만 알아 듣는 저음을 낼 줄 알고 박쥐는 또 기계장치로나 포착 가능한 극초단파로 통신 한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오관을 통해 감지하는 바깥 세상의 모습은 그 전부가 아니라 한 귀퉁이에 불과하다. 빛의 극히 일부분만을 볼 수 있고 소리의 일부분만을 들을 수 있다. 냄새 · 맛 · 감촉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았다고 하는 것, 내 두 귀로 분명히 들었노라 하는 것이 실은 참이 아니다. 그러니 오관을 통해 주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식의 작용이라는 것도 따져 보면 왜곡된 것이 대부분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받게 되는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자면 많은 양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진리, 또는 그에 가까운 것보다는 왜곡된 것이 대부분이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교육이란 이 세상의 실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방법 · 투쟁의 방법을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갈등 · 분쟁 · 폭력 · 범죄 · 전쟁 따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다.

진리라는 측면, 궁극적인 실제의 입장에 서면 인간은 ‘가짜’라는 이름의 신을 믿고 ‘가짜’라는 이름의 종교에 빠져 사는 셈이다. 귀머거리, 장님이나 다름 없고 고작해야 우물안에 갇힌 개구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은 진정한 눈뜸, 귀 열림을 그토록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깨달음의 자리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누구나 통 속에 갇혀 살고 은산철벽에 둘러싸인 꼴이니 어찌 애통해하지 않겠는가.

‘나’를 앞세우는 한은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가짜요, 배우는 것도 모두 가짜이다. 사랑한다는 것도 가짜 사랑이요, 베풀고 나눈다는 것도 가짜 베품이다. 그러기에 불법에서는 눈 없는 눈으로 보고 귀 없는 귀로 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무주상의 삶이어야 비로소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나’가 빠져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으며 바른 배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한 ‘나를 죽이는 일’ - 아상 · 아만 · 자존자대 · 자기 사랑을 멈추는 일만이 진정으로 배우고 노력해야 할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 무지개는 본래 일곱 색이 아니다.

협찬 천덕불교 031)792-6288, 794-4055

교계 노인복지관 일자리 사업 실시

경기불황에 정부 지원 늘려 근무 2개월 연장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로 베이비부머세대가 700만이 넘는 시대를 맞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베이비부머의 은퇴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평생을 직장과 자녀양육에 몰두하며 지냈던 베이비부머 중 정작 본인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다.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허덕대는데 노인네 일자리는 무슨…' 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노후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국 불교계 복지관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며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급식도우미, 환경지킴이,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지하철 안전도우미 등 '공익형' △보육교사도우미, 실버강사 등 '교육형' △육아지원,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등 '복지형' △택배, 신문배달, 자연체험학습장 등 '시장형' △주유원, 시험감독관 등 '인력파견형'의 5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지난해보다 사업기간을 2개월 연장해 2월부터 9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불교계 복지관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북카페 '삼가연정'에 취업한 실버바리스타.

서울시노인복지센터(센터장 청원)는 2월 1일~15일 노인일자리사업을 모집한다. 학교급식도우미, 매점판매, 탑골훈장프로그램, 동년배상담가, 취업알선상담가, 라디오DJ, 도슨트, 이동도서관 관리자, 영화상영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센터는 다양한 경륜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슨트, 동년배상담가, 취업알선상담가 등을 강화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취미로만 즐겼던 미술작품 감상을 은퇴 후 새로운 직업으로 만나는 창의직업아카데미의 도슨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거주시민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지원가능하다. (02)6911-9584

서울노인…도슨트, 라디오DJ
안양시니어…할미손 텃밭 실시
서호노인…독거어르신 실태조사단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스쿨존교통지원, 영유아보육도우미, 도서관도우미, 무료급식지원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노동 시장에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거나 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교육강사파견사업, 사랑나눔복지도우미파견사업, 노노케어도우미파견사업, 사서도우미파견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파견사업, OK6070아파트택배 등의 일자리를 광진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02)466-6242

노인일자리 창출전담기관인 **안양시니어클럽**은 바리스타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는 카페인 '커플데이'와 국수전문점 '잔치하는날',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해 도시락을 만드는 '할미손도시락', 무공해 새싹과 채소를 재배하는 '할미손 텃밭'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안양시 거주 만 60세 이상의 안양시민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31)455-0558

남양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인봉)은 보육시설도우미,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가정방문, 동화구연 강사, 실버도우미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031)573-0570

수원 서호노인복지관(관장 윤학수)은 독거어르신 전수(실태)조사를 하는 '희망드림지원단' 참여자를 모집해 어르신들을 수원지역에 파견, 독거어르신집을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031)291-0911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교통질서계도사업, 공용주차장관리사업, 건물청소파견사업, 365실버새싹지킴이사업, 희망드림지원단사업, 실버보듬이사업 등 일자리 200여 개를 제공한다. (031)919-8677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환경지킴이, 스쿨존교통지원 등 공익형 사업과 문화해설가파견, 배우리교육강사파견 등 교육형 사업, 지역아동센터도우미, 실버케어사업 등 복지형사업 일자리를 제공한다. (052)707-0770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자살예방센터 상담 700건 넘어

"우울증, 대인관계, 가정 문제 순으로 많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2011년 자살예방센터 개원 이래 자살위기 상담 누적 785건을 기록했다.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2011년 6월 1일 개원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위기 상담을 통해 청소년 및 성인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활동해 왔다.

그동안 자살예방센터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자살위기진단 및 관리방법을 홍보하는 동시에 자살위기자들과의 사이버 상담(이메일, 비공개)과 전화상담, 면접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 및 삶의 활로를 찾게 도왔다.

상담 건수는 월 평균 50건으로 내용은 △우울증·자살충동(43%) △신변비관·대인관계문제(32%) △가정·개인문제(25%) 순서로 집계됐다. 내담자 연령은 20대가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95명, 50대 53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133명으로 각각 무직 52명과 회사원 51명을 크게 앞섰다.

일면 스님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은 성과이기에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02)734-8050

이나은 기자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금융문제 상담 시작

1월 30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약식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소장 청원 스님〈사진 왼쪽〉과 정호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금융문제 해결 및 어르신 지원 협약'을 맺었다.

금융관련문제로 고민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확대·마련된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소장 청원)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장 정호성)는 1월 30일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금융문제 해결 및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어르신 관련 전문상담(가족, 심리 등) 뿐만 아니라 재정·금융관련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청원 스님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들이 매우 복합적이며 그 해결책을 위한 다양한 연계상담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재정·금융관련 상담 인프라를 더하게 돼 어르신 상담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6911-9551

이나은 기자

진각복지재단, 헌혈릴레이 동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 정사)은 설립 15주년을 맞아 '사랑의 헌혈릴레이' 행사를 진행한다.

복지재단은 자발적 헌혈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2월 18일 진각문화전승관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법인 및 종단 산하시설, 성북지역주민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진각종에서는 2011년 1회 사랑의 헌혈릴레이 행사 때 192명, 2012년 2회 행사 때 213명이 참여해 헌혈증을 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 했었다.

진각복지재단은 이날 모이는 헌혈증서는 진각복지재단 협력의료기관에 전달돼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 혈우병, 출혈 환자 등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02)942-0144

이나은 기자

불교계 복지관, 설맞이 행사 이웃과 나눠

무료점심, 떡국, 생필품 증정…떡꾹떡 팔아 장학금 전달도

불교계 복지관들이 설날을 맞아 인근 지역 독거어르신과 소외이웃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에서 운영 중인 양양군노인복지관은 2월 7일 복지관에서 600여 지역어르신들에게 무료점심식사와 선물을 전달한다.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은 5년 이상 복지관을 이용한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만두를 빚어 200명 저소득 어르신들을 방문해 설인사와 함께 만두를 나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2월 7일 복지관 2층에서 '새해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에는 서용교 국회의원, 이종철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400세대를 초청해 노래자랑과 판소리 공연을 떡국거리와 생필품을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떡국'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저소득가정 희망장학금 지원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한편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는 1월 28일~2월 1일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새해인사를 실시했다. 복지관은 경로당활성화사업대상인 고양시 일산동·서구 내 31개소 570여 어르신에게 새해인사와 함께 떡국떡과 다과를 증정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2월 4~8일 경로당 어르신들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설맞이 명절행사 '행복나눔 한마당'을 진행한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과 연계한 명절음식나누기, 세배드리기, 덕담나누기, 민속놀이 등이 마련된다.

이나은 기자

노인성질환 어르신 이야기 담은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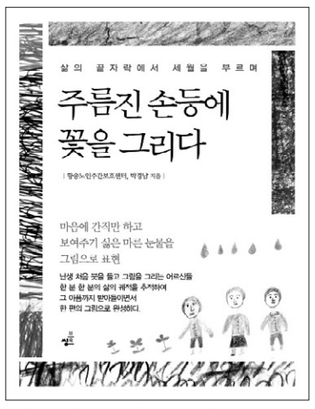
황송노인복지관, 〈주름진 손등…〉 발간

뇌혈관성질환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그린 그림과 사연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 부설 황송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자원봉사자인 박경남 작가와 함께 그림에세이집 〈주름진 손등에 꽃을 그리다〉를 발간했다.

황성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법에 의해 3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책은 센터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10개월 간 실시한 미술치료를 통해 완성된 작품들과 작가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박경남 작가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터득하게 된 어르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난생 처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그 아픔까지 받아들이면서 한 편의 그림으로 완성했다.



박경남 작가와 황송노인주간보호센터가 펴낸 〈주름진 손등에 꽃을 그리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3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3월 5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초기 부처님 말씀·불교 역사 공부 필수”

불교진흥원 신년대법회-금강경의 현대적 조명

김윤수 (前 판사)

〈금강경〉은 가장 대중적인 경전이다. 많은 이들이 수지하고 독송하는 이 경전을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로 대한불교진흥원의 신년대법회 시리즈 중 하나로 열린 1월 30일 김윤수 前판사의 법회는 〈금강경〉의 탄생과정과 불교 변천사를 통해 부처님의 진정한 말씀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자리가 되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김윤수 前판사는 1951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76년 제 1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불교 저서로는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보신의 주에 의한 대승입능가경〉 등이 있다.

이번 법회의 주제가 ‘금강의 현대적 조명’입니다. 저는 대승불교의 소의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이 나온 배경을 미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라는 작품에 보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 그림을 모자라고 하지요. 저는 〈금강경〉이 이렇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당시 초기불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승불교의 이야기만 하고 있죠. 눈이 밝은 사람은 코끼리를 볼 수 있으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모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7~18년 전부터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교가 뭘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교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보통 사람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의 전체 모습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굵직굵직한 역사적 줄기를 꿰뚫고 나면 불교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끼리 코를 코끼리로 생각하거나 코끼리 다리를 코끼리로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코끼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줘야 쉽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쳐서 중생들에게 가르친 불교는 지금 불교와 비교했을 때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죠. 이는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가진다고 해서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욕망을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다면 이 욕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그것은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본질 깨닫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괴롭다는 것이 인생의 본질일까요? 보람 즐거움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인생이 괴로운가요? 궁극적으로 욕망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뱀 뱃속 코끼리 볼 수 있어야
〈금강경〉 지혜의 눈으로 이해 가능”
고집멸도 실체 보는것 쉽지 않아
욕망은 ‘苦’의 본질…수행으로 소멸

이런 욕망을 없애는 것은 깨달아야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간략히 줄여서 얘기한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해야 하는가 하면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마치 물과 같아 변화하고 고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에 의해서 생기고 멸하기 때문에 계속 부단히 변화해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계곡물이 상쾌하지만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은 물과 같이 붙잡힐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금강경의 현대적조명을 주제로 신년대법회를 열었다. 1월 30일 김윤수 前판사의 법회에는 15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동떨어져서 봐야 합니다. 지혜의 눈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 집중해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가지려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욕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하는데 BC 7세기 경 정도의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수천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떠서 완전 자유를 구했습니다.

이 당시 불교는 욕망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없애야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이를 위해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가 많이 발전하고 변화했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만 이해해도 일상에서 상당 부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500년이 지나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 버렸습니다. 실제로 잘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수행자들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인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기존의 불교가 기본적으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또 이렇게 불교가 힘을 잃게 된 데에는 아라한이 되는 데에 너무 치중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 한 분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열반하시기까지 그 분을 굉장히 존경할 수 있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죠. 결국 중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떡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결국 〈금강경〉을 가지고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면 부처님과 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금강경〉 제 4품 묘행무주분(妙行無主分)에는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한다’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상이라는 것은 허망하고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컵도 계속 미세하게 변하고 있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조건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얻기 위해서는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법이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해야한다는 마음을 먹고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가 불교수행의 핵심이라는 말에 근거가 됩니다. 일체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금강경〉이라는 것은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교의 신앙화입니다. 의지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지요. 보아뱀 안에 든 코끼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자가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대승불교가 일어난지 500년이 지나자 이것이 사변화 되고 중생 이끄는 데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것이 선불교입니다. 결국 불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교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대승불교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선불교 티베트불교 등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불교를 좀더 객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부처님께서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유심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과거 연구물 비판 검토…연구시작"

김성철 동국대 교수, '나의 학문과 저서…' 발표
한국불교학회 40주년 동계 워크숍에서

불교학계의 맏형인 한국불교학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2월 1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동계 불교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나의 학문과 저서, 저자로부터 듣는 불교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술저서의 저자와 함께하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2005년부터 7년여의 연구 끝에 완성한 '특히 승랑-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에 대한 연구 과정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김성철 교수는 승랑 스님과 관련된 논문으로 제6회 청송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승랑 스님(僧朗, 450~530년)은 고구려 요동 출신으로 동아시아 불교의 초석은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철 교수는 "승랑은 지금부터 1500년 전 중국 난징(南京) 부근에서 교화활동을 했는데 그 가르침은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방식으로 제자 승전에게 전수됐으며 이후 삼론학으로 집대성됐다"며 "그 사상적 토대 위에 천태교학과 남종선 수행론이 창출됐으며 남조 화엄학 역시 그 연원이 승랑에게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논평을 맡은 김영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이에 대해 "'승랑'이라는 고대 한국불교 인물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김성철 교수는 이에 대해 "고익진 교수의 〈한국의 불교사상〉에서 '승랑의 중관적 공관'을 읽은 후였다"며 "이후 2000년 불교학연구회 학술회의에서 박상수 박사가 발표한 논문 '승랑의 삼론학과 사제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논평을 담당하며 많은 내용들이 아직 정리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구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김영진 연구교수의 연구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과거의 연구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비로소 나름의 연구가 시작된다"며 "승랑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유관자료 등을 검토해 선별하는 작업을 선행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07년 열린 한국불교학회 하계 워크숍 모습.

불교학 학술단체의 대표격인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불교학회는 1973년 7월 7일 창립된 이래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한국불교학의 지평을 널리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립해인 1973년 11월 9일 제1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1975년부터 학술논문집 〈한국불교학〉을 지금까지 총 65권을 발행했다. 한국불교학회는 창립 20주년인 1993년부터 전국불교학술대회를 2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2006년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뒤에는 춘추계 전국불교학술대회 외에 봄 가을로 학술워크숍을 열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국불교학회로 인해 불교학은 본격적인 학문으로서의 궤도에 올랐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 옛서울의 불교와 건축 관계는?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월 1일 세미나서 조명

동아시아 고도(古都)의 불교와 건축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유진)은 2월 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한 · 중 · 일 3국 고도의 도시 불교와 건축'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문무왕 동국대 전임연구원은 '경주 도성과 불교건축'을 통해 경주에서 사찰을 비롯한 불교건축물이 도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조명했다.

이날 문무왕 연구원은 "경주 지역에 사찰이 건립된 것은 신라 중고기"라며 "이 시기에는 불교수용과정에서 건립됐으며 국가주도로 불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연구원은 "왕경이 확장되며 사찰에도 변화가 시작됐다"며 "주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건립이 지작돼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이어 "통일기 이후에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성전사원으로 까지 사찰의 역할이 확대 된다"며 "7처가람설, 금입택 등 개인소유 사찰도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이런 건립 형태가 신라만의 독특한 형태가 아닌 동아시아 사찰조영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넓지 않은 경주일대를 활용해 남산 일원에 밀집된 사찰 조영은 신라 불교문화 만의 단적인 특징이라고 밝혔다.

지에용치앙는 중국 섬서사범대 교수는 '당대 수도 장안성의 불교사원 건축' 발표

韓 경주 남산 일원 밀집 조영

中 장안 구역별 분배 배치

日 나라 지역 교류따라 독특

를 통해 "당대는 중국불교의 번영기었고 중국 불교사원 건설의 번성기였다"며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는 사원이 널리 분포되었고 불탑이 즐비했다"고 소개했다.

당인 위술의 〈양경신기〉에는 당 장안성에 91개의 불교사원이 있었다고 기재돼있으며 송인 송민구의 〈장안지〉에는 당 장안성에 불교사원이 104개 있었다고 기재돼 있을 정도였다.


경주 불국사 일대 항공 사진. 밀집된 형태가 눈길을 끈다.

지에용치앙 교수는 "당 장안성은 구획을 나눠 불사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라며 "백여개의 구획 중 불교사원 구획이 정해졌으며 이 구획에는 3~4개의 불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코자키 카즈히사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은 '7~8세기 일본의 도시사원' 발표를 통해 일본 도시사원에는 백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일본 최초의 사원은 유력 호족이었던 소가노 우지(蘇我氏)가 건립한 비조사"라고 밝혔다.

비조사는 588년 백제로부터 승려와 장인을 데려와 건립하기 시작해 불당과 탑, 회랑 등을 만들었고 596년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하코자키 연구실장은 이어 "일본에는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법륭사(호우류우지) 서원(사이인), 약사사(야쿠시지) 동탑 등이 있다. 당시 국가 사원 뿐만 아니라 지방사원에서도 독자적인 문화 교류가 진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지역 교류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경 봉암사 일원 명승으로

문화재청 문경 봉암사 및 희양산 일대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聞慶 曦陽山 鳳巖寺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2월 1일 지정 예고했다.

문경 희양산은 암봉(巖峯)이 아름다운 산으로 희양산을 배경으로 통일신라시대 지증 대사(智證大師; 824~882)가 창건한 봉암사(鳳巖寺)가 있다. 봉암사 주변에는 백운대계곡(白雲臺溪谷)이 있다.

문화재청은 "희양산과 봉암사, 백운대계곡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봉암사 경내에는 문경 봉암사 극락전(鳳巖寺 極樂殿, 보물 제1574호), 봉암사 일주문(鳳巖寺 一柱門, 경북 문화재자료 제591호), 지증대사탑비(智證大師塔碑, 국보 제315호), 지증대사탑(智證大師塔, 보물 제137호), 봉암사 삼층석탑(鳳巖寺 三層石塔, 보물 제169호) 등 다수의 불교문화재가 있다.



또 봉암사는 통일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 선종의 아홉 문파)의 하나로 지금도 조계종립 특별선원으로 선(禪) 수행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백운대계곡 일대는 신라 말 유학자인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 선생의 각자(刻字)와 바위에 조각된 봉암사 마애보살좌상(鳳巖寺 磨崖菩薩坐像, 경북 유형문화재 제121호)이 남아 있어 역사문화경관 가치가 높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원, 기록유산 관련 목소리 경청

국사편찬위 · 고전번역원 · 국학진흥원 사례발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교학술원은 1월 31일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정보화 사업을 수행해왔던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유관기관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불교학술원이 진행 중인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ABC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류준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연구사는 '한국사 자료 전산화의 경험과 전망-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축한 디지털 역사 자료인 전자사료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설명했다.

류 연구사는 "디지털 역사자료 구축은 사료의 편찬으로 평가받는다"며 "자료 이용자가 사료비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원본 자체의 오탈자 등 오류, 식별불가능 문자의 표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禪文化硏究〉 학술등재지 선정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발간하는 학술논문지 〈선문화연구(禪文化硏究)〉가 학술등재지로 선정됐다.

〈선문화연구(禪文化硏究)〉는 선리연구원이 연 2회 발행하는 학술지로 현재 13집까지 출간됐다. 2006년에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2009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선학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학(禪學)을 중심으로 한 학문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등재지 선정을 계기로 소장학자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절밥 먹으며 한문경전 공부해요”

백양사, 재가자 전통강원 개설

포교사를 비롯한 재가자들도 사찰의 전통강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됐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스님)는 교계 최초로 포교사를 비롯한 일반 재가불자와 타종단 스님들을 위한 전문 강원을 개설한다.

오는 3월 3일 개강하는 ‘백양사 포교사 전문 강원’은 2년 과정에 초발심자경문, 치문, 반야심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서장, 도서, 절요, 능엄경, 법성게, 화엄경 등 일반 강원에서의 교과목을 전통 교육방식으로 공부하며, 입학자격은 모든 불교종단의 비구, 비구니와 조계종 포교사 자격을 갖춘 재가불자면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주지 진우 스님은 “참사람 결사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원교육은 포교사들의 불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보다 높은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조계종에서 처음으로 범종단적 시범 운영한다”고 말했다.

교수방법도 기존 강원형식과 같이한다. 강의를 진행할 백양사 강원 강주 우궁 스님은 “일반적 불교교육단체는 불교경전을 개론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이번 백양사 포교사 강원은 한문위주로 하는 원문강의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어려운 한문공부에 대해서도 “먼저 각 교과목과 경전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줄거리를 읽힌 후에 각 세부내용을 선별하여 공부를 할 수 있어, 큰 어려움 없이 경전공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공부하는 방식에는 타종단 스님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을 배려했다.

스님 · 포교사 대상으로 접수

숙식형과 통학 2개반 운영

한문 교육으로 6년 4학기 과정

먼저 이수기간이 대폭 길어졌다. 학기제로 4학기(2년)을 이수하면 되지만, 기간은 6년으로 길어졌다. 즉, 6년간 4학기를 이수하면 졸업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백양사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하는 상주형 대중과 토요일 오후 수업으로 진행하는 통학형 대중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주형 대중은 비구 3명과 우바새 20명으로 한정하여, 백양사에서 전통강원 방식으로 승가생활에 준하는 대중생활을 하게 된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교계 최초로 포교사를 비롯한 일반 재가불자와 타종단 스님들을 위한 전문 강원을 개설하고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통학형 대중은 스님들을 비롯해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에게 맞춘 강의법이다.

주지 진우 스님은 졸업자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문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향후 백양사와 관련된 말사, 포교당 그리고 포교현장에 배치되어 불교를 올바로 알리는데 활용된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세부적 활동에 대해서도 “현재 백양사 뿐 아니라 각 말사에서 수련회와 템플스테이, 법회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백양사 포교사 전문강원은 기존 출가 승려에게 한정되었던 강원 교육을 타 종단과 재가 수행자에까지 확대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주지 진우 스님은 “최근 서옹 스님의 참사람 결사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스님을 포함한 모든 사부대중에게 참사람의 가치를 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취지를 덧붙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당 뒤 불교 문화재 훼손 심각

익산 화산리 마애삼존불 보존대책 마련 시급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화산천주교회(일명 나바위성당) 뒤편 바위에 조성된 화산리 마애여래 삼존불의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충남 강경의 금강 황산포구가 내려다보이는 바위에 새겨진 화산리 마애여래 삼존불은 높이 약 4m에 이르는 깎아지른 바위에 본존의 높이 3m에 이른다.

이 마애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 인조 때 비상시 군량보급창으로 이용되던 인근의 나암창과 관련하여 식량 운반이 순조롭고 강경 황산포구의 고깃배들이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가면서 안전 운항을 기원하며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불은 여래좌상으로 하의가 단을 덮고 있는 상현좌 형식을 하고 있고 본존을 중심으로 양쪽의 협시보살은 광배가 새겨져 있으나 조각이 얕고 마멸이 심해 알아보기 힘들고 아래 부분은 조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천주교 성당이 들어서면서 불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한국사지총람. 2010 문화재청〉

현재 이 마애삼존불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마모 상태가 심하고 바위 틈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주변의 나무가 우거져 있어 습도 또한 높아 훼손이 심한 상태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성당 안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고 작은 길을 따라 바위 아래로 내려가야 해 접근도 쉽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지역의 불자들도 마애불의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이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일까지 빈번해 성당 측에서 경고문을 세워놓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불자들은 문화재로 가치가 적다하더라도 금강의 뱃길 안전을 기원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깃들어 있는 마애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일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홀한 것 같다” 며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황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화산리 마애불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며 “성당 측과 협의해 안내판을 세우는 등 보존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위에는 천주교에서 망금정이라는 작은 정자를 세워놓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화산천주교회 뒤편 바위에 조성된 마애여래 삼존불의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백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백산장학재단은 1월 27일 전주관광호텔 백악홀에서 2013년 신년하례를 겸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1월 27일 전주 관광호텔서

백산장학재단(이사장 도영 스님, 완주 송광사 회주)은 1월 27일 전주관광호텔 백악홀에서 2013년 신년하례를 겸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백산장학재단은 중·고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1,47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계사년 신년하례에 이어 법진 스님의 장학재단 경과보고, 장학증서 전달, 도영 스님의 법어,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내빈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 날 행사는 완주 송광사, 금선암, 흥복사, 죽림정사 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도영 스님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대자비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만이 베풀 수 있다”며 “인재불사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젊은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신년하례식에서는 참석한 스님들이 축복경(알갈라 숫따)을 한 목소리로 암송하며 참석대중들의 새해 선업을 쌓아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지난 2010년 발족한 백산장학재단은 재단기금 마련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출범한 이래 2011년에도 1,4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래하고 춤추며 건강 찾았죠”

대해노인복지센터 건강체조 호응 커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 법림사 주지)가 지역 어른들을 위한 건강체조와 노래교실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동구지역에 사는 어른들은 매주 센터에서 마련한 ‘건강 체조 합시다’, ‘신나는 노래교실’에 참여해 연일 최신곡에 맞춰 체조를 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트로트 가요가 나오면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치매질환을 갖고있는 양 모(78) 할머니는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있으니 기분이 한결 좋다”고 참가 소감을 이야기했다.

건강체조와 노래교실은 정서지원과 인지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다. 무진 스님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과 이를 동반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어른들의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나는 노래교실에서는 동요, 트로트, 민요, 타령 등을 선택, 진행자와 참여 어르신들이 같이 노래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간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해노인복지센터 건강체조 교실 장면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로 어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불교계 단체이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 밑반찬 제공 및 각종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생필품지원, 무료급, 나들이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정마을 아픔 함께 보듬겠다”

제주불교연합회 ‘불교환경연대’ 설립

제주불교환경연대가 출범한다. 제주불교연합회는 1월 21일 회의를 갖고 3월 발족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강정마을 주민을 위한 용왕대재가 성공리에 개최됨에 따라 발족을 결의한 것이다.

제주불교환경연대는 2월까지 각 종단 스님과 환경전문가를 추천받아 임원을 구성하고 3월 경에 발기인 대회를 통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불교연합회는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재)일붕선교종 등 각 종단들이 열흘에 한번 법회를 주관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정혜숙 기자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3월 5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해외봉사로 청소년 포교에 앞장

진해 대광사, 해외봉사 활동 발표회 가져



진해 대광사는 해외 봉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시진은 지난해 연말부터 1월 7일까지 실시한 태국 봉사활동 사진

진해 대광사(주지 탄경 스님)가 해외봉사로 청소년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대광사는 1월 27일 대광사 교육관에서 청소년들의 해외봉사활동 발표회를 가졌다.

구랍 30일부터 올 1월 7일까지 총 18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9일간 태국을 다녀왔다. 봉사단은 국경지역인 메솟의 미얀마 내 정치범을 지원하는 인권단체인 AAPP, 무료병원 메타오클리닉, 민마호 고등학교, 난민촌 멜라캠프와 뚜에뗏 초등학교 등에서 해외 교육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날 발표회는 총 4개조로 나뉘어 태국의 이해, 민마호 교육봉사, 난민촌봉사 및 문화교류활동, 버마의 민주주의란 4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모습들을 사진과 함께 파워포인트에 담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청소년에게 봉사 의지 계기 심어줘
다양한 경험 제공 포교 범위 확대

2011년 4월부터 대광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어 온 학생들이라 그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해외봉사를 다녀온 홍성현(지리산고 입학예정)양은 "난민촌이라 많이 부족하거나 어렵게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한편으론 더 부러웠다"며 "하지만 버마의 정치적 탄압으로 나라에서 쫓겨나 태국에서 생활하는 민마호 학생들을 보면서 인권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올해 중학교 진학을 앞 둔 백창명(진해중 입학예정)군은 "장래 희망인 건축가가 되서 다시 이곳에 와서 좋은 집과 건물들을 지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희망의 마음을 전했다.

학부모이자 인솔교사인 남미영 씨는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 부쩍 성장한 아이들을 곁에서 직접 보는 것은 정말 뿌듯하다"고 전했다.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탄경 스님은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 공동체가 공존하는 국경도시인 매솟 지역 탐방을 통해 청소년들 간의 교류, 평화와 국제 연대에 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고 해외봉사활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참가한 학생들의 변화한 눈빛이 가장 큰 수확이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사찰의 청소년들과 연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감회를 전했다.

진해 대광사는 2011년 4월부터 청소년 포교의 일환으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했다.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술, 택견, 생태탐방, 해외봉사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만 14~25세 사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가치있는 활동을 스스로 정하고, 계획하며 매주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이웃과 사회 위한 대자비 실천"

중앙신도회 · 종교인평화회의 신년하례 법회

대구지역에서 중앙신도회와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신년 하례법회가 각각 열렸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년하례 법회가 1월 26일 동화사 통일대불에서 봉행됐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동화사 신도회장의 신년대중발원문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 치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격려사, 류병선 제9교구 신도회장의 환영사,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인사로 진행됐다.

이날 중앙신도회 신년하례회 동참대중 일동은 '불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대자비를 실천하는 진전한 불제자가 되어 불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 고 발원했다.

또한 대구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신년 하례회를 갖고 종교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구종교인평화회의는 1월29일 만남의 교회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비롯한 6개 종교단체 대표


중앙신도회는 1월 26일 대구 동화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자 등이 참석해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불교대표로 참석한 동화사 총무국장 원광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자기 종교의 가르침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종교간 평화가 멀지 않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암사 승가대 졸업식



청암사 졸업식

김청 청암사 승가대학 · 승가대학원 졸업식 이 1월 27일 청암사 자양전에서 개최됐다.

청암사는 승가대 졸업생 13명과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 6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또한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졸업생 1명도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은 훈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맞이하는 순백한 마음가짐으로 전법에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길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오등선원 안심대법회 마련


오등선원 법회 장면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참선 안심대법회를 마련했다. 오등선원은 조실 대원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1월 29일~31일 부산 롯데호텔 대연회장에서 법석을 열었다. 오등선원은 중국의 고봉 대선사가 집필한 '선요'를 중심으로 3일간 무료로 법석을 펼쳤다.

대원 스님은 용성 스님, 고암 스님의 법맥을 전수받았다. 효봉, 경봉, 향곡, 성철, 월산 스님 등 한국 선불교를 대표했던 선지식을 모시기도 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의 요소 '디자인' 고려해야

오래전 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를 가곤 했던 일본사찰에는 콜라나 녹차, 생수 등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있었는데, 이 물건이 그때는 꽤나 신기해보였다. 더운 여름 땀을 흘리면서 이리저리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다가 자동판매기에서 시원한 녹차 하나를 꺼내 먹는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꽤나 시간이 흐른 뒤, 우리나라 사찰에도 이러한 자동판매기가 도입되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일본처럼 일상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료가 필요한 불자들에게는 이 자동판매기가 여간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자동판매기는 전기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여러 가지 고장이 나고 작동을 멈추는 것이 문제였다. 일본사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재나 철제상자를 만들어 자동판매기를 넣어두거나 지붕을 씌운 쉘터를 만들어 기계를 보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호상자나 쉘터가 일본사찰의 전통적인 경관성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는 아예 보호상자나 쉘터를 설치하지 않아 고장이 나거나 청결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그러한 장치를 했다하더라도 디자인이 조잡하여 우리의 사찰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문제가 된다.

사찰은 특별한 장소성을 가진 곳이다. 종교적 상징성을 가진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성을 오롯이 간직한 사찰환경 속에 도입되는 새로운 요소라면 오랜 세월 사찰에 도입된 다양한 요소들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요소는 한국사찰경관의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경관요소를 도입할 때 기존의 경관요소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생활불교의 성격을 수용하고, 불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찰에 도입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종교적 상징성을 전달해야 하고, 그것이 한국성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에 도입되는 요소들은 종교적 상징성과 한국성이 드러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

사찰 주지스님 종단 스님, 불자님 누구나 동참 가능합니다.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 (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금리거리


대불선원


만리장성


무 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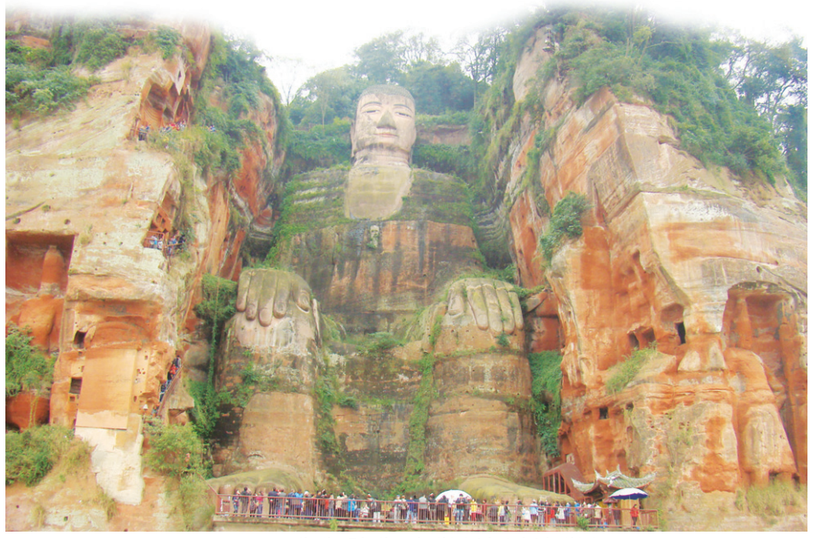

문 수 원


이 화 원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 (3/29, 금)	북경, 성도
2일 (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 (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 (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 (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 (4/ 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 1,370,000원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867-8009
■ 접수 마감 : 2월 28일까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운흥사 오래된 차나무…초의 스님 닮았나

초의선사 출가 길-운흥사

초의선사(1786~1866)는 조선 후기의 대선사로서 다도를 정립해 다성(茶聖)으로 불린다. 초의학술문화원(이사장 용운)은 초의 스님의 차정신을 기리며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초의의 길' 순례를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1월 26~27일 초의선사 탄생지인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에서 출가처인 나주 운흥사까지 초의의 길 첫 순례길을 열었다. 눈이 오는 와중에도 35명의 불자들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었다. 박종길 작가(세한대 생생교육원 전담교수, 前 목포과학대 교수)의 글을 통해 초의 스님 출가의 길을 따라가 본다.



순례길에는 눈이 내려 초의가 느꼈을 고향에 대한 애절함을 더욱 느끼게 했다. 순례단은 왕산리에서 운흥사까지 이틀에 결쳐 걸었다.





나주에 있는 후백제 설화가 담긴 식전바위〈사진 위〉와 첫 순례를 마치고 운흥사에서 〈사진 아래〉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 땅에서 태어나 많은 중생들에게 참 마음과 깨우침을 주었고 후세인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켜주신 초의 선사.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선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해 보고 선사의 참 삶을 통해서 지혜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213년 전 초의 선사가 수행을 행했던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으며 선사의 사상과 참 삶에 대해 다소나마 마음을 다져 보고자 한다.

초의 선사는 위대한 예술인으로 이 땅에 차(茶)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했으며 선사상을 통해 참으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다.

그 출발은 출가의 발심에서부터였다. 1월 26일 오전 8시 선사의 탄생지인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旺山里)의 초의 선사 사당에서 순례단은 참배를 통해 순례의 시작을 알렸다. 초의 선사가 출가를 위해 걸은 길은 길라잡이 용운 스님이 안내를 맡았다.

'초의의 길'이라 부른 이 길에는 마침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례길을 축복하는 듯한 날씨에 35명의 초의의 길 걷기 참가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초의 선사가 즐겨 걸었을 마을길을 지나 옛 포구였던 중등포(中登浦) 저수지 둑길을 따라 유교리 앞으로 지나갔다. 초의 선사의 출가처로 알려진 운흥사로 가는 길이다.

초의 선사가 걸었던 길은 너무도 많이 변해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옛 산의 형체는 그대로 있어 그 길을 따라 더듬어 길을 재촉했다.

중등포는 유교리 앞 계곡의 물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포구 마을이었다. 걷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자신의 집을 떠나 중등포 앞을 지나며 초의 선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정겹고 그리운 대상이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한다. 그것이 비록 고달픈 삶이었다 해도 그 고통을 추억으로 승화시켜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훗날 초의 선사는 귀고향(歸故鄕)이란 시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절함을 표현했다.

"멀리 고향을 떠난 지 40여년 만에 희어진 머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왔네. 새 터의 마을은 풀에 묻혀 집은 간데없고 옛 묘는 이끼만 끼어 발자국마다 수심에 차네, 마음은 죽었는데 한은 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나는가, 피가 말라 눈물조차 흐르지 않네, 외로운 중(僧) 다시 구름 따라 떠나노니 아서라 수구(首邱)한다는 말 참으로 부끄럽구나"

여우는 죽으면서도 머리는 고향 쪽을 향한다는 말이 있다. 말년의 초의 선사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가 시에 드러난다. 그런 초의 선사가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야 어떻든 고향이 그리웠을 것이다.

집을 나서서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떠나온 마을이 멀어지고 앞산에 가려 마을도 길도 보이지 않았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했을 초의 선사를 떠올렸다.

출가의 결심으로 길을 나섰던 초의 선사의 나이는 15세였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속세와의 이별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순례단은 초의 선사의 그 심정을 헤아리며 걷고 또 걸었다. 길을 걸으며 선사가 선택한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

일상에서 걸음걸이가 부족했던 참여자들을 배려해 4km를 걷고 10분씩 휴식하며 여러 마을 앞을 지나 일로읍(一老邑) 회산연꽃방죽 앞에 당도했다. 다시 길을 재촉해 무안군 몽탄면과 나주시 동강면 사이를 흐르는 영산강(榮山江)에 설치된 몽탄대교에 도착하니 시계는 어느덧 한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213년 전 15세 소년의 출가 길
조선시대 운흥사 380칸 대찰
6·25때 전소…대웅전 등 복원

몽탄대교가 없었을 당시, 영산강 자락에는 나루터가 있어 작은 목선으로 사람들의 왕래를 도왔다. 아마 초의 선사도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을 것으로 생각된다.

점심을 하기로 한 식전바위 까지는 한참을 더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걸음을 재촉했다. 점심 식전에 도착하기로 한 식전바위, 하지만 도착한 시간은 1시를 훌쩍 넘어있었다. 아침부터 걸은 거리는 20km 가량이 됐다.

식전바위는 나주시 동강면 대정 3리 길옆에 있는 평편한 바위다. 후백제 군사들이 인근 대전 2리 동전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태봉국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해 나주 공산면 상방리 복사초리 전투에서 승리하자 후백제 병사들이 퇴각하며 이 바위에서 아침을 먹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식전바위에서 점심을 먹고 3시 무렵 나주시 동강면소재지에 도착했다.

길은 길었다. 차츰 뒤처진 일행과 다리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오고 이들을 뒤따라오는 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계속했다. 다음날의 일정과 초행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나주시 공산면 복사초리에서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숙소는 초의 선사의 탄생지인 왕산리. 왕산리로 돌아가는 버스에 승차 후 나주 관광해설사 김지훈 씨가 들려주는 나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 등을 듣다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1월 27일의 날이 밝자 다시 순례를 떠났다. 간밤에 내린 눈이 얇게 깔려 있었지만 큰 추위는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어제의 강행에 놀랐는지 진통제며 근육이완제 등 서로 약품을 주고받으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 길라잡이 용운 스님도 그리고 참가자들도 아직 근육통이 풀리지 않았는지 걷기를 불편해 했다. 27일의 일정은 나주 운흥사 입구부터 시작했다.

덕룡산(德龍山) 운흥사(雲興寺)는 초의 선사가 15세(1800년)에 출가수행 한 사찰이다.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중창했고, 조선시대에 들어 1573년(선조 6년), 1684년(숙종 10년), 1758년(영조 34년)에 중창했다.

초창기에 불렀던 도성암이라는 이름은 웅점사(熊岾寺)로 개칭되었으며 16세기 이후 웅치사(熊峙寺), 18세기 후반부터 운흥사로 다시 개칭됐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380칸 규모의 대사찰로 15채의 전각과 10채의 요사채 등 20개의 암자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1694년과 1702년 두 차례 화재와 한국전쟁 때 전소됐다. 현재는 혜원 스님이 1998년에 부임하며 점차 불사를 이루고 있는 사찰이다.

대웅전을 사굴하며 금동여래입상(전남유형 문화재 제 260호)이 발견됐다. 현재 대웅전에는 금동여래입상을 본떠 조성한 불상을 모셔놓고 있으며 관음전에는 주존불이 모셔져 있다. 팔상전에는 고려 후기 불상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불상은 1968년 나주 동강면 옥정리에서 발굴돼 용운사에 봉안했다가 2001년에 운흥사로 옮겨온 것이다.

영산포 버스터미널을 지나 길을 나서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운흥사 방향으로 길을 옮겨도 눈은 계속 내렸다. 나주의 특산물인 배나무밭 과수원에 하얀 배꽃 대신 눈꽃을 피워 추억의 여행처럼 운치를 더했다.

운흥사에 도착하자 석장승이 일행을 맞이했다. 운흥사 석장승은 남장승과 여장승이 길 양 옆에 마주보고 서있는 구조다. 남장승은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여장승은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라 새겨져 있다. 여장승 뒷면에는 강희 58년(1719년) 화주승(化主僧) 변학(卞學)과 별좌(別座) 김노즉윤(金老即尹)이 세웠다는 글이 있다. 주지 혜원 스님의 안내로 참배 후 차를 마셨다.

혜원 스님은 운흥사의 오래된 차나무에 대해 얘기했다. 두 차례 화재 때 화마의 피해를 입었지만 밑동이 살아 다시 새순이 돋아 현재 큰 차나무가 된 나무였다. 마치 초의 선사의 수행 가풍과도 같은 나무라 생각이 들었다.

안양에서 온 이재숙 씨는 "눈길을 걸으니 나이를 잊은듯 먼 시간여행을 온듯한 느낌"이라며 "이번 기회에 초의 선사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선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온 유복열 씨는 "초의 선사의 수행이 당시에는 길이 좋지 못해 어려웠을 텐데 먼길을 걸어 걸어 수행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억불 숭유의 조선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초의 선사의 선사상과 다도가 전해지는 것은 수많은 이들을 감화시킨 참 삶의 모습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며 첫 순례를 마쳤다.



박종길(前 목포과학대 교수)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의 장 석무염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법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종 무 소 051)893-3346
학 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여성주의와 여성성의 사회

가부장적 사회서 여성성 회복하라



지율 스님은 한국환경운동사를 새로 쓴 인물로 평가 받는다. 스님이 주도한 소송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첫 소송이었고, 죽음 직전까지 멈추지 않았던 단식 시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前 18대 대통령 후보까지 찾아오게 했다.

생명을 지키는 여성들

"내원사 선방에 왔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포크레인으로 바위를 부수고 길을 내는 현장을 봤지요. 그게 얼마나 섬뜩하고 잔인하게 보이던지 저는 폭행당하는 여자가 생각났어요. 구타당하는 어린이를 보거나 강간당하는 여성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 때의 그런 심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벌이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을 산을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고속철도를 위한 터널 공사의 포크레인 굉음을 듣고 산의 울음소리를 듣고 벼락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는 지율스님의 이야기이다.

1973년 갠지즈 평야지방에 테니스라켓 제조회사인 사이몬사가 호두나무와 물푸레나무를 벌채하기 위해 산간마을인 고페쉬왈에 벌목인부를 보냈다. 이때 그 지역의 여성들이 주동이 되어 벌목대상이 된 나무를 감싸안고 "나무를 베려면 나의 등에 도끼질을 하라"고 소리치면서 시위를 벌여 벌목을 저지시켰다. 마을버스 매표원이었던 찬디 프라사드 밧트가 주도하여 힌디어로 "나무껴안기"라는 의미의 "칩코 운동"(Chipco Andolan)운동이 벌어진 이 운동은 인도 전역에 벌목저지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왕가리 마타이는 식민지배를 한 영국인처럼 케냐 정부도 나무와 숲을 베어 차나 커피를 심어 부유한 나라에 팔아 돈을 벌지만,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숲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수차례 투옥을 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숲을 살리기 위해 그린벨트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3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2004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환경운동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위와 같이 여성들의 자연과 특유의 교감능력을 바탕으로 한 운동은 여느 환경운동과는 확실히 다른 동기와 전개의 양상을 띄고 있다. 모두 자연에 대한 모성적 자비심이 기반이 되고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여성은 생태적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

1991년 대구의 페놀오염사건은 다수의 주부들로 하여금 기형아출산의 공포로 인해 자연유산과 낙태를 하게 했고, 실제 페놀이 섞인 수돗물을 먹은 임산부가 반신불수가 되고 기형아를 출산하기도 했다. 또한 울진, 월성 등 핵발전소의 근무하는 노동자의 부인들과 골프장의 캐디들이 유산을 경험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여성들의 모유내에 PCBs나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물질의 함양이 높아지고 유산, 조기 폐경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기형아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저소득층, 원주민, 소수민족등 약자들이 대체로 환경문제로 인한 질병의 피해를 입게된다.

실제로 임신, 출산, 육아, 수유를 전담하는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물, 식품, 공기등 환경적 영향이 곧바로 태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여성과 어린이가 환경파괴에 방사능, 살충제, 독극물등 기타 오염원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환경운동이 여성과 주부들에겐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천운동이 될 수 밖에 없다.

과거 봉건사회에서는 왕이 국민을 '지배'했고, 귀족이 노예나 농노를, 양반이 상놈을 '지배'하는 수직적 사회였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으며, 우월한 것이 있고 열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월한 것은 열등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렇게 '지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회가 바로 가부장적 사회이며, 그러한 지배를 중심으로 생각해온 것이 바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만든 것이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 사회였던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는 곧 생태위기와 여성차별의 동일한 원인제공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이 지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의 세계를 필요로 한다. 문화-자연, 정신-육체, 이성-감성, 보편-특수, 인간-자연, 문명-원시, 공-사, 주체-객체, 자아-타자 등 둘로 구분한다. 이러한 이분법은 대체로 어느 한쪽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유색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 식민지국가의 제국주의 지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의 세계는 분리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둘로 분리하여 지배와 종속관계를 만들고 그 사이에 대립과 갈등, 투쟁을 당연한 자연의 질서라고 몰아가며 오랜기간 문화를 만들어온 것이 바로 가부장제사회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회의 특징은 '차이'가 있으면 그것들 간에 우열을 만들어 '차별'을 만드는 사회이다. 이러한 가부장적사회의 극단적으로 정치행위가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역시 여성과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된다. 이렇게 볼때 여성운동은 곧 환경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나아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과도 분리될 수 없다.

여성들 환경운동…모성애 기반둬
인도 벌목저지운동 여성들 주동
여성과 어린이 환경파괴에 피해 더 커
생태여성주의 핵심은 여성 가치 존중

여성운동서 한발 나아가는 'Eco Feminism'

여성의 참정권이 생긴 것은 불과 100년이 안되었다. 자유의 국가인 프랑스만해도 1946년에야 참정권이 인정되었고 우리나라는 48년에 인정되었다. 아직도 뿌리깊은 가부장적인 차별과 관습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성이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또한 힘과 근육을 중심으로 한 노동이 간편한 기계조작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서비스노동으로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한 높아졌다.

여성운동은 5-60년대를 거치면서 대단히 활성화되었다. 참정권운동부터 여권신장을 위한 법적 차별철폐를 위한 우먼리브(Women's liberation)운동, 남녀가 실질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운동(Feminism)이 오랜기간 동안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여성운동은 생태주의사상과 결합되면서 기존의 여성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가부장적사회에서 평등이란 곧 남성적 질서내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 안에서의 평등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가부장 남성적 질서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질서안에서 여성은 남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은 여성들이 자기 특성인 여성성을 포기하고 남성적 문화를 추종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생태여성주의 (Eco Feminism)는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가 환경파괴적 가부장적 남성성의 사회질서를 뛰어넘어 생태를 회복하는 여성성의 사회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남성 따라가기 또는 남성과 같아지기 운동이 아니라 생태주의 여성운동은 오히려 여성성이 주된가치로 발현되는 사회, 곧 여성성의 사회를 만들어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 자연, 육체, 감정 등 남성적 문화에서 폄하되었던 여성적 가치들을 재평가하고, 옹호하면서 폭력, 지배, 정복을 특징으로 하는 남성적 가치에서 평화, 조화, 상생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가치의 사회를 목표로 노력해는 것이며, 갈등 대신에 협력, 대립 대신에 관계, 권리와 의무 대신에 배려를 강조하는 '돌봄의 윤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생태여성주의는 1974년 프랑스 작가 드본느(F. d'Eaubonne)가 처음 사용한 이래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죽임살이를 넘어선 여성들의 살림살이

마리아 미즈와 반다나 시바와 같은 생태여성주의 운동가들은, 풀뿌리 수준의 자급적 생활,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주의 극복 등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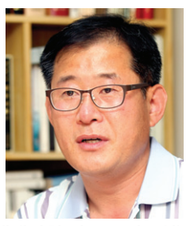
또한 국가주의로부터 탈집중화,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안적 경제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참여민주주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등이 바로 그러한 여성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성의 사회는 남성적 억압을 다시 여성의 억압으로 환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남성의 해방, 생명의 해방을 의미한다.

가이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이다. 그래서 지구는 종종 가이아라는 말로 사용되었고, 자연은 항상 어머니 지구, 어머니 대지 (Mother Nature)라는 표현처럼 생식하고 포태하고, 양육하며 보살피는 여성적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을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라 '살림살이'라고 표현했다. 살림살이는 죽임살이의 반대개념이다. 살림살이란 생식과 양육, 보살핌을 잘하는 것이며, 인간이 자연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자기 내면의 우주를 찾아 발현하는 것이 살림살이인 것이다.

생태여성학자인 김정희씨는 여성에게 억압적 질서를 제공한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유기체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그것은 곧 모든 만물이 상호의존성의 자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의 세계관은 불교와 노장의 세계관인 모두가 연결된 관계망적 사고여야하며, 깨달음이란 바로 이러한 '생명', '살아있음'의 관계망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은 아주 넓게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게이, 페즈비언, 양성애자등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고, 더 나아가 동물들에 대한 생명권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고 차별되고 있다. 사회문화가 발전할수록 그 마저도 아무런 차별과 불편없이 사는 방향으로 인류는 진화해야 할 것이다.

지율스님은 터널을 뚫지 않으면 대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대안을 말하지 않아요, 아니 못합니다. 왜냐면 천성산을 뚫는다는 말에 이미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안이라는 건 결국 천성산 대신 다른 데를 뚫거나 다른 곳을 지나가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른 누군가한테 안길 수가 없어요. 저는 고속철도가 천성산을 뚫지 말고 우회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성산이 살겠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느 누군가에게 너무도 귀할 수 있는 숨은 가치를 훼손시키라는 말이잖아요."



'생태 여성주의'라는 말도 잘 몰랐지만 지율스님은 이 사상을 가장 실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불교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4.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_역경학과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5. 불교미술학과 연구과정은 1년 또는 2년 과정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 · 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역경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본과	00명	3년제	정규반
	연구과정	00명	1년제 /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학 과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2. 12. 24(월) ~2013. 2. 18(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3. 2. 18(월)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_실기_면접)	2013. 2. 19(화) 10:00 ~ 16: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3. 2. 19(화) 17: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의 필기_실기_면접고사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 · 불교회화를 수학하고자 하는 자
3.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 · 불교회화를 수학하고자 하는 자

※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 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Ⅴ.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Ⅵ. 전형료

1.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본 종단의 포교사자격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과 재학 중 각종 장학제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사행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 FAX:(02)744-346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유불선 통달한 스님…나오기 힘든 불교인”



方山老의 無影樹 〈3〉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석주 스님

※본 내용은 석주 스님 입적(2004) 전, 2002년의 대담이다.

-석주스님께서는 탄허 스님을 어디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까?

내가 탄허 스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일제 말기에 선학원에 있다가 상원사에 가서 한 철을 날 때였지요. 그 때 탄허 스님이 한암 스님을 모시고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탄허 스님은 고향에서 보천교를 믿던 사람 두 명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와서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을 하였지요. 그래 그 세 사람하고 함께 한철을 보냈어요. 그런데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 밑에서 계속 공부했지만 다른 두 사람은 나중에 가 버리고 말았어요.

-탄허 스님과 함께 상원사에서 수행을 하실 적에 탄허 스님이 불교경전이나 유교경서 같은 책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산림 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상원사에 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공부는 했지만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참선할 때에는 그대로 참선만 했지 뭐 특별히 다른 책을 본 기억은 없어요.

-상원사에서는 한암 스님 지도하에 경전 공부를 하였는데 탄허 스님이 글을 새기고 그랬다는 데요. 석주 스님께서는 탄허 스님이 한문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문 잘 한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선학원에 있을 때 상원사에 한문 잘 하는 이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탄허 스님은 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문을 다 배워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절에 들어와서는 한문을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석주스님께서는 상원사에서 한 철 지내고 그 이후로는 어디로 가셨나요?

나는 한 철 나고 바로 선학원으로 되돌아왔어요.

-1941년 선학원에서 유교법회가 열렸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선학원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려고 찾아갔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요?

유교법회 당시에 한암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적으로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참석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법회도 처음에는 ‘고승법회’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말이 많아 ‘유교법회’로 하였지요. 그때 총무원 측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그것을 주도한 이들은 청담 스님하고 운허 스님이에요.

-1937년쯤인가요? 상원사에서 〈금강경오가해〉와 〈보조법어〉를 현토 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발문을 한암 스님이 쓰셨는데 그것을 원보산 스님이 화주를 하였지요?

원보산 스님은 원래 화주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화주를 해야 양식도 대고 그랬지요. 그이가 선학원과 상원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잘 알아요.

-8 · 15 해방 이후와 6 · 25 당시에 석주 스님께서는 탄허 스님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6 · 25때 나하고 탄허 스님은 피난 생활을 같이 했어요. 도봉산의 ‘덕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새로운 사실인데 그 곳에서는 얼마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탄허 스님을 시봉하던 분은 혹시 도원 스님이 아니십니까?

도원 스님은 그 뒤의 일이고 그때는 보경, 즉 희태라고 하는 이가 시봉을 했었는데 그리 오래 있지는 않았고, 몇 달씩 있다가 다른 데도 가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피난 중에 탄허 스님은 책을 보지 않으셨나요?

피난 시절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나라가 온통 난리 통인데 책을 볼 겨를이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이는 이미 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피난 시절에까지 경을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탄허 스님은 그 전쟁 통에 통도사 · 미래사 등지를 전전하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였답니다. 석주스님께서는 혹시 부산 쪽으로 피난 가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덕절에 있다가 도봉산의 원통사로 왔다 갔다 그랬어요. 추석 지내고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유엔군이 대포 포격을 시작하는 바람에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선학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석주 스님은 해방이 되어서 선학원에서 김용담 스님하고 선학간행회를 만들어 〈선가구감〉을 간행하였지요?

그랬지요. 용담 스님하고 나하고 선학원에서 선학간행회를 만들고 〈선가구감〉을 펴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제일 잘된 일이지요. 후일 법정 스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손질하여 법통사에서 다시 펴내기까지 했어요.

-혹시 용담 스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담 스님은 혁신운동을 하다 김구 선생을 따라서 이북으로 갔는데 이북에서 병원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나온다고 나에게는 말했어요. 그리고 이북에서 정리할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가서는 내려오지 않고 말았지요. 그러다가 6 · 25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내려와 조계사에 있었어요. 그때 불교인 7~8명이 같이 갔는데 그들은 수복 후에는 다시 이북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 뒤 이북으로 간 사람들의 행방은 통 알 수가 없어요. 용담 스님은 만해 스님의 상좌인데 나도 그 분의 이력은 정확히 몰라요. 부인이 서울시내에 있어서 선학원에서 상주하지는 않았어요. 나하고 용담스님은 선학원에서 불교혁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이념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불교발전과 혁신만을 이야기하였을 뿐이지요. 그런데 수복 후에 내가 3번이나 경찰서로 불려갔지요. 용담스님하고 김해진 이런 이들이 6 · 25때 내려와서 남조선불교도동맹을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면에는 대처 측에서 떠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



석주 스님(조계종총무원장 · 중앙승가대 학장 등 역임, 칠보사 조실)

‘한문 잘 하는 이’로 소문나
6 · 25 때 피난생활 함께 해
운허 · 탄허 역경 방법 달라
정화 직후 오대산 수련원 개설



탄허 스님 친필

知風之自知微之顯
지 풍 지 자 지 미 지 현
可與入德矣
가 여 입 덕 의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알고 은미(隱微)함이 드러나는 것임을 안다면, 함께 덕(德)으로 들어갈 수 있다.”

원인 · 기인(起因)하는 바를 알며, 은미함 속에서 드러남을 안다면 함께 덕(德), 즉 도(道)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 〈중용〉 33장에 있는 말

-그 당시에 석주 스님께서 선학간행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혹시 탄허 스님하고 같이 경전 번역 작업을 하실 계획은 없었는지요?

선학간행회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모를까 탄허 스님이 오대산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선가구감〉 간행 이후에도 선문 관련 문헌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어요.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에 대한 유시 발언으로 정화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석주스님도 선학원과 조계사를 다니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당시에 탄허 스님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특이한 기억은 없어요. 선학원에서 탄허 스님을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탄허 스님은 남의 앞에 나서서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의 조계사가 당시에는 태고사였는데, 비구 측 스님들이 입주하여서 조계사로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바뀐 조계사 현판을 탄허 스님이 썼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주로 선학원에만 있었고 회의할 때에만 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때 지효 스님은 할복을 시도하였고 구산 스님이 손가락을 끊어서 혈서를 썼지요. 재판 중에 그랬어요. 그 당시 탄허 스님은 그리 나서지는 않았어요.

-탄허 스님은 정화 직후에 월정사에서 승려교육을 위해서 오대산 수도원을 개설하였는데, 수도원이 개설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당시 월정사에는 가보셨습니까?

월정사와 선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은 들었지만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곳에서 운학스님도 배웠어요. 그때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이 몇 더 있지요.

-오대산 월정사 수도원은 몇 년 후 자금 부족과 대처 측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진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은사로 옮겨 수도원이 재개되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영은사에서 배도원 스님, 녹원 스님, 혜거 스님, 자민 스님, 명성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탄허 스님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도원 스님은 탄허 스님께 많이 배웠지요. 도원 스님이 탄허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으니 그것은 잘 알 겁니다.

-통합종단 출범 전후에 석주 스님은 법보원을 설립하여 여러 가지 경전을 번역, 출간하였지요? 그런데 왜 그곳에서 탄허 스님은 책을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법보원은 선학간행회의 후신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은 내가 운허 스님에게 역경을 부탁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게 되었지요. 내가 낸 책이 〈열반경〉, 〈유마경〉, 〈능엄경〉, 〈선가구감〉, 〈육조단경〉, 〈부모은중경〉 등이었는데, 나중에 동국역경원이 출범하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법보원에서도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서 탄허 스님 책을 출판하기 어려웠지요.

-대한불교청년회에서 그 즈음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펴냈지요? 그래서 석주 스님하고 탄허 스님이 함께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데요.

그랬지요.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법통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때는 나도 기억이 나지만 몇 번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 후에 종단에서 동국역경원을 출범시켰지요(그 후 동국대 부설로 되었지만). 그때 석주 스님이 동국역경원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탄허 스님은 역경위원으로 나오는데요.

운허스님이 원장을 하시고, 나는 그 살림살이를 맡은 셈인데 처음에는 무척이나 곤란했어요. 용주사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어요. 그때 나하고 운허 스님 등 몇 사람이 역경위원을 정했지요. 탄허 스님은 역경위원이기도 하지만 또 역장장으로 용주사에 가 있었지요.

-탄허 스님은 역경위원이자, 증의위원으로 활동하였지요?

탄허 스님은 처음에는 약간 활동을 하였지만, 자신의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동국역경원에는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탄허 스님은 역경사 양성소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동국대에 있던 대학선원의 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일은 기억나십니까?

제1대 원장은 석호 스님이었고, 다음 원장이 탄허 스님이었지요.

-운허스님 역경과 탄허 스님 역경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운허 스님은 의역을 주로 하였고 탄허 스님은 직역을 하였는데 이런 차별성을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운허 스님과 탄허 스님 간에 역경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역경하는 방법이 달랐지요. 그러나 그것이야 그 두 분의 차이점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석주 스님께서는 탄허 스님이 한암 스님의 법을 계승하였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암 스님의 법을 계승한 것은 잘 한 일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불교인이지요.

-스님께서는 탄허 스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내가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내가 보기에 탄허 스님처럼 유불선에 통달한 이는 없었어요. 그런 인물은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탄허 스님과의 귀한 인연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허공같은 부처…모양에서 찾지 말라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5〉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즉시 법체(法體)와 어긋나고, 모양에 집착하게 된다.

어리석은 이들은 한 생각 잘못 일으키는 순간, 생사에 함몰되고 만다. 중생의 한 생각 한 생각은 생멸의 반복이어서, 무명에 뒤덮여 본질을 잃는다. 이것은 금생의 일만이 아니다.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던 것이다.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면, 어느 날 홀연히 마음의 눈을 뜨는 기회를 가진다. 그렇게 전과는 다른 상태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맺는 것이다.

또한 중생은 공부를 하면 만사형통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줄 착각한다. 그것은 인과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표주박은 물결이 일면 이는 대로 덩달아 흔들리고, 물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다. 이미 지어놓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표주박과 같이 흐름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내맡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세세생생 어둠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무시(無始) 이래로 모양에 집착한 부처란 없다. 육도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곧 차제(次第)를 두는 것이다. 시작함이 없는 옛날부터 차제를 밟은 부처란 없다.

우리가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서 부처를 찾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이 마음은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하여,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심삼매야말로, 진정한 부처의 마음이다.

육도만행은 여섯 가지 수행으로 육바라밀이라고도 한다. 이 여섯 가지를 잘 닦아야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곧 차제라는 말이다. 차제란 일종의 차등과 단계 등의 뜻이다. 따라서 덜 닦은 사람, 모두 닦은 사람 등 차별을 두게 된다. 이는 원래 비어서 닦을 것이 없는 부처의 마음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어쨌든 난행, 고행 끝에 부처가 된다는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방편으로 한 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 정도의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먼저 점점 나아지는 차제를 두고 점차(漸次)를 보여줘서 믿음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방편은 마침내 시절인연이 도래하였을 때, 한 생각 돌이켜 본래 부처였음을 자각토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부처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평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지 한마음을 깨치면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이런 말은 공부한 사람들 간에는 소화가 가능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겐 먼저 화두 들고 의심하게 해서, 눈앞의 은산철벽(銀山鐵壁)을 깨뜨리게 해야 한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한 마음으로 다를 바가 없다. 허공과 같아서, 잡됨도 무너짐도 없다. 마치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는 것과 같다.

허공은 그 자체가 너무 맑고 투명하여 온 누리를 비추는 햇살같이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허공, 현재 허공, 미래 허공이 따로 있지 않다. 동쪽 허공, 서쪽 허공도 따로 있지 않다. 허공은 투명하여 본래 색이 없지만, 인연 따라 이런저런 구름의 모양이 만들어질 뿐이다. 만일 그 모양에 집착하면, 구름의 실체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된다. 그것을 즉시 깨닫고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본래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짊어지고 있으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짊어지고 가라고 한다. 짊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허망한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내려놓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활짝 눈을 열게 된다.

해가 떠올라 온 천하가 두루 밝아질 때라도, 허공은 일찍이 밝은 적이 없다. 해가 져서 온 천하가 어두워질지라도, 허공은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다.

허공 스스로는 밝아지거나 어두워진 적이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밝거나 어두움에 아무 관계가 없다. 인연 따라서 밝아지니까 밝아진 것이고,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진 것일 뿐이다. 밝음에 더 이상 머무르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밝음과 어두움에 관계없이 마음을 쓸 줄 아는 방법을 확인했으면 그만이다. **범어사 주지**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55



이 보살마하살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 이것이 바로 나를 공양하는 것이 된다

〈마하반야바라밀경〉 삼탄품(三歎品)

그렇구나, 과연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일찍이 다 일러두셨구나. 정말로 중생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고 다 보신다고 하시더니, 과연 그렇구나. 부처님과 중생들 사이의 대화가 떠오른다. 먼저 중생들이 항변하고,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다독거리신다.

중생의 항변

부처님, 우리 중생들은 누가 뭐라 하든, 오직 한 길로 부처님 당신을 향해서 위로, 위로만 올라가는 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당신은 어떻게 아셨는지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 중생들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함을 당신께서는 일찍부터 아시고 계셨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마치 동



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어린 얼룩말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주위의 다른 어떤 동물도 눈에 띄지 않고, 오직 얼룩말만이 보였던 것처럼, 마치 화살표가 직선으로 날아가듯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줄 당신께서는 또 어떻게 아셨는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그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 직선주로(走路)만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선분(線分)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나와 당신, 님과 나 그렇게 단 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 사이에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끼어들 수 있다면, 그것들은 다 불순한 것들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바로 그렇게 당신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당신을 향해서 노래부르는 것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마치 당신을 향한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증거라도 하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시여,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왜 무엇이 못마땅하신지요?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직 불순하게 보이시는지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요? 당신께서 우리 중생에게 내리시는 명령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다 따를 수 있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눈길을 다른 데 돌리라는 그 말씀만은 차마 따를 수 없나이다. 제발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셔요. 가혹하십니다.

부처님의 대답

그래, 이 어리석은 중생아, 내 그대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나로만 보느냐? 어찌하여 나를 나에게서만 찾느냐? 내가 어디에 있더란 말인가? 내 몸만 나이고, 내가 사는 집만 나이고, 내가 설한 말씀만 나의 말씀이더냐?

내 사랑하는 그대들 모두 다 내가 아니더냐. 내 길을 따라서, 나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간 길을 따르는 저 제자들, 저 아들, 딸들 다 내가 아니더냐. 나에게는 고귀한 공양을 올려서 내 배를 부르게 할 줄 알면서 어찌 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딸, 아들들에게는 공양할 줄 모르느냐. 어찌 그들이 배가 고픈지 아픈지는 관심조차 없더란 말인가? 그들이 어찌 내가 아니란 말이더냐.

어리석은 제자들이여, 나는 나만 나가 아니다. 나 아닌 모든 것들도 다 나이다. 나에게 나가 아닌 존재는 없다. 더욱이 그들이 나의 길을 따르고, 나의 가르침을 펼치려고 마음을 발했다면 더욱더 내가 아니겠는가. 그대들이여, 그대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들고자 한다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젊은이들, 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 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널리 구현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보호할지어다. 그들이야말로 보살마하살의 길에 들어선 나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두고서, 어디 내가 있기에 그대들은 그 젊은이들을 외면하고서, 그들의 고뇌나 고난에는 눈을 감고서 내게로만 달려온단 말인가. 그대들이 나의 길을 따르는 젊은 보살마하살들을 잘 보살필 때, 그런 인재불사에 보시를 할 때, 그런 인재불사에 공양을 할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고 나를 공양하는 일이 될 것이니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50〉

완전한 성취에 이르는 수행의 길

대승불교의 수행도-육바라밀(六波羅蜜)

초기불교의 수행도는 삼십칠보리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수행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이르러 수많은 수행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돕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참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예컨대 강을 가운데 두고 이쪽 강 언덕을 생사윤회(生死輪廻)하는 세속의 세계라고 하고 저쪽 강 언덕을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 출세간(出世間)의 세계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큰 배[大乘]를 타고 모두와 함께 건너려는 것이 대승의 수행도이다. 이와 같이 이쪽 언덕[此岸]에서 저쪽 언덕[彼岸]으로 건너가는 것을 불교원전의 언어인 범어로는 빠라미따(pāramitā)라고 한다. 이것을 한문으로 음사해서 번역한 것이 바라밀(波羅蜜)이고 수행의 완성, 완전한 성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라밀중에는 초기불교의 팔정도에 비견될 수 있는 육바라밀이 대표적이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이다. 보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보시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재물을 베푸는 재보시(財布施),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법보시(法布施),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무외시(施無畏)의 세종류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이든 그것이 바라밀인 이상 완전한 수행, 완전한 성취로서의 보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야 완전한 열반에 세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보시란 베푸는 자도 베품을 받는 자도 베품의 내용도 없는 보시를 말한다. 무아와 무상의 진리가 적용된 보시야말로 이미 완성된 깨달음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이다. 지계란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초기불교의 계율정신에 기반하고 있지만 대승불교는 거기에 더해 다른 사람을 이익 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이다. 인욕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공격, 핍박에 대해서조차 증오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종교적인 경지의 인내심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근원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설령 화를 내야하는 경우에도 상대를 위한 성냄이어야 하는 게 인욕바라밀이다. 초기불교에도 인욕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승불교에서처럼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이다. 정진은 팔정도의 정정진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정진바라밀도 전쟁에 나선 용맹무쌍한 병사처럼 물러섬이 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한 정진에는 번뇌라고 하는 적을 무찔러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열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이다. 선정 또한 팔정도의 정정과 동일한 의미이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산란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정이 단지 정신을 통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순간의 집중된 마음상태는 매순간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지혜가 없이는 그와 같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순간의 지혜의 작용이야말로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이다. 지혜바라밀은 말 그대로 분별과 집착을 떠난 완전한 지혜를 말한다. 육바라밀 전체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바라밀이며 공(空), 무아(無我)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 베푼다고 하는 집착이 없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도 타인을 이롭게 하는 윤리도덕으로서의 지계도 그 외의 다른 바라밀도 모두 가능하지 않다.

육바라밀은 이와 같이 팔정도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수행의 의미를 부각함으로써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 사정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그대는 ‘선림예단’의 얘기 꺼리”

근자에 발굴된 〈벽해타운첩〉은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첩으로, 총 21신이 실려 있는데, 〈완당문집〉〈여초의〉와 중복된 것이 13신이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편지도 8신이나 된다. 이들이 나누었던 지음의 아름다운 세계는 이것을 통해 더욱 풍요롭게 밝혀지리라. 새로 발굴된 〈벽해타운첩〉4신의 내용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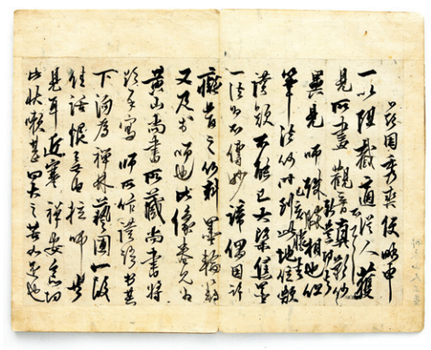
一以阻截 適從人獲見所?觀音眞影 何異見師 殊勝相也 但筆法何時到此地位歟 讚歎不能已

大?焦墨一法 爲不傳妙諦 偶因許癡發之 何料墨輪輪轉又及於師也 此像卷見爲黃山尙書所藏

尙書將欲手寫師所作讚語於其下 洵爲禪林藝圃一段佳話 恨無由拉師共見耳 近寒禪安念切

此狀嗽甚 四大之苦如是也 玆因秀奭便 略申不具 新篁付之 己亥 臘吉

모든 소식이 끊이고 막혔다가 마침 종자(從者)로부터 (그대가) 그린 관음진영을 얻어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를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마는 정말 뛰어난 호상(好像)이구려. 하지만 (관음진영을 그리는)필법이 언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소.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개 초묵법은(焦墨法: 진한 먹을 사용하여 그리는 것) 전하기 쉽지 않은 오묘한 진리인데, 우연히 허소치가 이어 드러냈으니 전해지고 전해진 초묵법이 또 그대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관음상권(觀音像卷)은 황산 김유근상서께서 소장하려하십니다. 황산 대감께서 그대가 그린 관음상의 하단에 찬탄하는 글을 손수 쓰고자 하시니 초의 그대는 선림예단(禪林藝圃)의 아름다운 얘기꺼리입니다. 그대를 끌고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구려. 근래 추위에 그대의 수행은 편안하신지요. 마음만 간절합니다. 나는 기침이 심하여 사대육신의 고통 또한 견디기 힘듭니다. 여기 수석 편에 대략을 전하고, 나머지는 이만… 새책력을 보냅니다. 1839년 12월 초 하루



〈벽해타운첩〉 추사편지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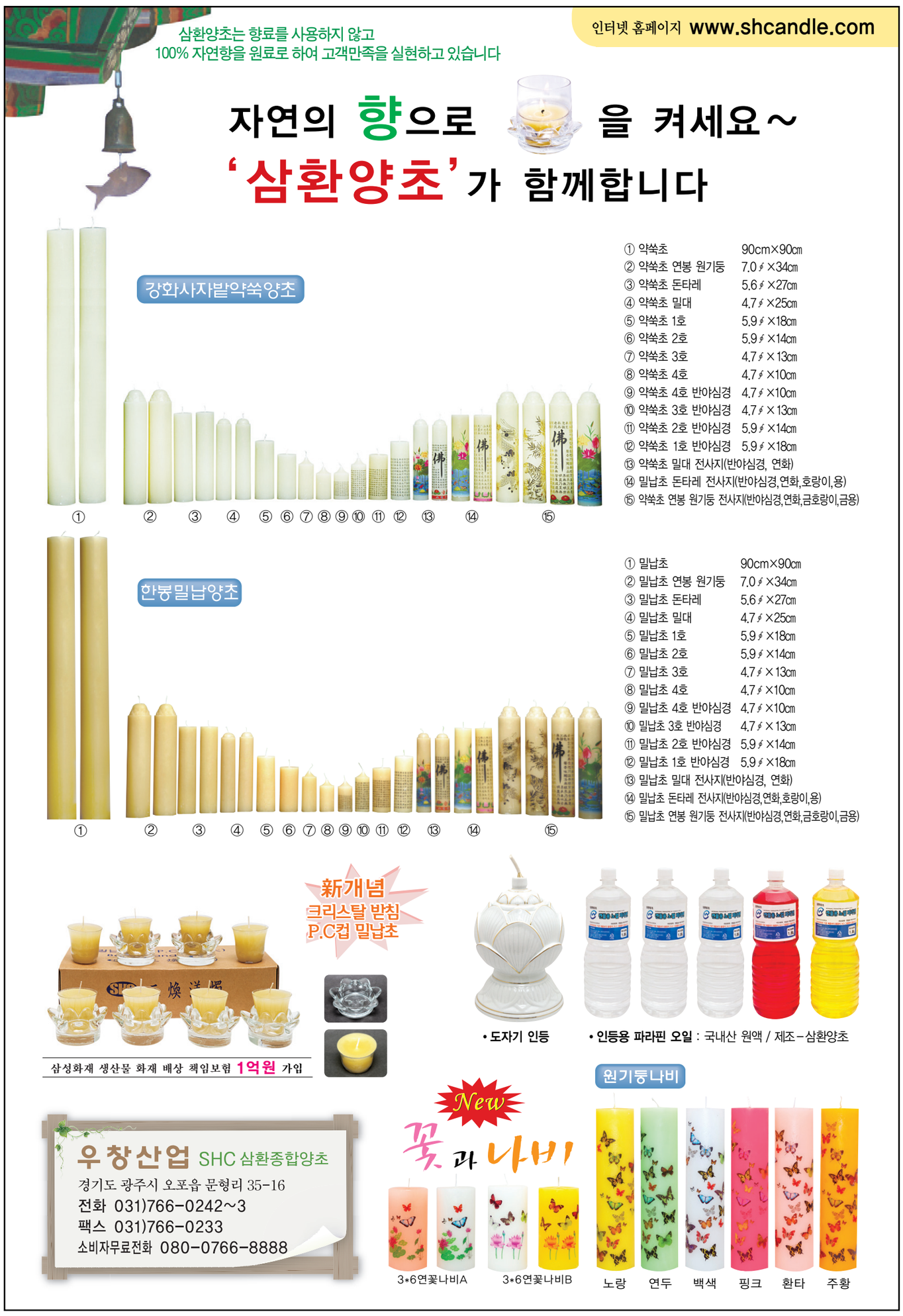
추사는 초의의 관음진영보고 감탄

초묵법 절세의 명작 소재 자못 궁금

초의의 그림 솜씨는 익히 세상에 알려졌던 듯. 추사는 초의가 초묵 필법으로 그린 관음진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언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냐”는 추사의 물음은 초의의 괄목(刮目)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이미 오래 전 초의의 일격(一格)은 다산의 문하를 드나들던 시절, 스승의 요청으로 그린 〈다산도〉와 〈백운동도〉에 묻어난다. 당시 선림예원을 대표했던 초의는 특히 불화에 능했으니 그의 관음진영이 권세가의 애호품이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추사가 “이 관음상권(觀音像卷)은 황산 김유근상서께서 소장하려하십니다. 황산 대감께서 그대가 그린 관음상의 하단에 찬탄하는 글을 손수 쓰고자 하시니 초의 그대는 선림예단(禪林藝圃)의 아름다운 얘기꺼리입니다”라고 한 추사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추사가 말한 황산은 누구인가. 김유근(1785~1840)이다. 황산은 그의 호이며, 김조순(1765~1832)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 김조순은 딸이 순조 비 책봉된 후, 세도 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던 최고의 권세가였다. 황산을 상서(尙書)라 칭한 것은 그가 이조판서에 제수되었기 때문이리라. 한편 황산은 갈묵(渴墨)의 운치와 간일(簡逸)한 필치, 문기 있는 예술의 세계를 풍미했던 남종화풍의 문인화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초의의 관음진영이 절세의 명작임을 한 눈에 알았을 터. 그가 이 진영의 말미에 찬사를 쓰려했던 것은 천의무봉의 관음진영에 감응된 것은 아니었을까. 자비의 화신 관음보살, 아쉽게도 이 절세의 명작이 지금까지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낸 적은 없다. 그 소재가 자못 궁금하다. 아울러 황산의 안복을 누리게 했던 초의, 이들의 첫 만남은 언제였을까. 이들의 교유는 1830년, 초의가 상경했을 때 추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초의는 김조순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니 황산과의 인연은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들이 함께 주고받은 시는 〈일지암시고〉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편 초의의 초묵법이 소치에게 전해졌다는 추사의 증언은 실로 중요한 단서이기에 초의와 소치, 추사의 인연은 다음호에서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클래식음악으로 동체대비 실천

강형진 단장(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래식과 교향악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한 서양음악이다. 때문에 전통문화를 중요시하는 불교계에서는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또 연주회 한 번에 수천만원이 소요돼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 없이 개인 혼자서 대형 단체를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60)은 클래식 음악의 황무지라 할 수 있는 불교계에서 서양 클래식 음악으로 홀로 포교를 해 나가고 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니르바나)는 1999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봉축기념음악회와 소아암환자돕기음악회 등 자선후원음악회를 봄·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키즈음악회·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열어오는 등 불교계 유일한 서양음악연주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니르바나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형진 단장은 “서양음악과 불교를 접목해 음성포교를 하겠다고 발원했다”고 말한다. 강 단장의 말처럼 니르바나의 캐치프레이즈는 ‘서양의 언어로 동양의 정신을 펼쳐나간다’ 이다. 서양의 악기와 기법에 한국적인 가락이나 정신을 접목하는 것, 클래식을 도구화해 불교정신을 넣는 것이 불교적 클래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니르바나가 처음 활동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불교 이름을 빌려 클래식 연주를 하는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한 번 공연을 하게 되면 대규모 인원이 연습할 공간과 악기 대여료가 필요해서 늘 재정난에 허덕여 해체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강 단장은 그럴 때 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음악으로 포교해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어야겠다’ 고 다짐하고 일어섰다.

강형진 단장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연세대 등 대학 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재원이다. 연세대 기악학과 바이올린 전공으로 졸업한 그는 국립교향악단(현 KBS 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앞날이 창창한 인재였다.

속된 말로 국내에서 가장 잘나가던 교향악단 단원을 지내면서 대학 강의를 나가고 학생들의 레슨을 봐주면서 인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강형진 단장을 불교계로 이끌어 황무지를 일궈나가게 했을까. 본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충남 서산 출신인 강 단장은 교육자 집안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소질이 있던 그는 1965년 KBS어린이합창단의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 어린이 노래회 활동을 시작했다. 음악을 워낙 좋아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바이올린을 전공하리라 다짐하고 예술가의 길을 택했다.

자신만의 경력을 탄탄히 쌓던 중 강 단장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의 친오빠를 통해서다. 대학교수로 지내고 있던 오빠는 사고로 뇌 손상을 입게 되면서 초라한 말년을 지낸 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오빠를 돌보던 강 단장은 오빠의 회복을 기원하며 집 근처 불광사를 다녀보고 기도도 해봤다. 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고 상황은 더 힘들어지기만 했다. ‘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며 답답해했다. 동생이 보기에 오빠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을 해서 본인의 삶을 더 망가뜨리는 것 같아 보였다. 그 때 한 스님이 일침 했다. “오빠는 꽃피고 새 울고 나름 괜찮은데 왜 네가 오빠를 걱정하느냐.”

강 단장은 “그때는 스님의 말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람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던 것을 깨달았다. 그때 비로소 오빠에 대한 걱정을 놓게 됐고, ‘난 이렇게 살아야해’ 라는 고정관념도 놓을 수 있었다. 기복적으로 믿던 불교를 다시 보게 됐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발심 이후 신행 활동을 시작한 강 단장은 1995년 중앙승가대 비구니 수행관 개관 기념 수계법회에서 고산 스님으로부터 ‘자인화(慈仁華)’ 라는 법명으로 계를 받았다. 그 즈음에 불교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던 대학동기인 정부기 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을 만났다. 그때 강 단장은 정부기 이사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불교음악회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찬조공연을 맡으면서 ‘왜 서양음악이 개신교의 전유물이어야 하나. 불교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1999년 2월 ‘니르바나 실내악단’ 이 창단했다. 처음에는 체임버 형식의 소규모 실내악단으로 작게 꾸려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다 2002년 남들은 따내기 어렵다는 서울시 문화과에서 ‘전문예술단체’ 로 지정받아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 명칭을 변경하고 점점 규모를 키워갔다.

강 단장은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크고 인정받는 KBS 교향악단 단원생활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자부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니르바나는 창단 이후 7년여 동안 자선음악회를 신년마다 개최하고 산사음악회 등 불교계 행사에 단골로 초청돼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정우택 박물관장과 함께하는 불화이야기, 이시우 박사와 함께하는 천문학이야기 등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 쉬운 클래식, 가곡 등과 함께 엮어가는 테마연주회는 새로운 시도로 화제가 됐다. 그러나 강형진 단장의 신심과 열정만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재로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그러다 결국 강 단장은 2005년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봉축기념 제7

에티오피아 여성, 소아암 환자 돕기 공연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등 지도

클래식음악으로 불법 전하겠다 다짐

재정문제, 인식부족으로 해체위기 겪기도

후원회 도움으로 재기…인재양성 힘써

해외진출목표 ‘싯다르타’ 뮤지컬 기획

공연기획사 설립해 본격 준비

회 니르바나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를 성황리에 마친 뒤 해체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600여 명의 관객이 저마다 환희심을 가득안고 돌아간 뒤였다.

해체소식이 전해지자 니르바나를 살려내기 위한 후원회가 발족했다. 바로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1인당 1만원 보시하기 후원회’. 평소 강 단장이 종종 들르던 해산물 전문음식점 ‘해장금’의 오시환 대표에게 고충을 이야기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후원회는 “7년 간 힘들게 버텨온 불교계 유일한 서양음악 오케스트라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 없다. 당장은 니르바나의 회생을 위해 시작한 후원활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자 음악인들이 제대로 설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 지원에 나섰다. 회원 1000명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불교계에서 예술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보니 현재 회원 수는 240여 명에 불과하다.

이 때 강 단장은 “후원 가족들의 기대와 도움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회고하며, 불교음악 창작과 음악을 통한 해외포교, 재능있는 불자 음악인 발굴 등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2006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니르바나 주니어 챔버’ 를 창단해 재능 있는 불자 음악인 발굴에 힘을 썼다. 부모들이 법회에 참석하는 동안 사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수준 높은 연주자들을 선생님으로 구성하고 사찰에서 일정액을 부담해 학원보다 저렴하게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2011년 또 한번 좌절을 겪었다. 사찰에 공간이 없다는 것과 신도들이 기도하는 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폐쇄된 것.



강형진 단장은 1999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후 소아암환자돕기음악회 등 자선후원음악회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불교계 유일한 서양음악연주단으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내소사산사음악회에서 공연을 선보인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 1977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하고 전 KBS 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했다. 1994년 Bulgaria sophia academy 석사과정 졸업한 후, 1999년 니르바나 실내악단을 창단했다. 2006년 불교여성개발원 제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된 그는 '2003 행원문화상' '2006 대원상 특별상' '올해의 인재상' '2012 제1회 불교음악상 원력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현재 현 불교계 유일의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및 대표로 있으면서 현 JK앙상블 매니지먼트 대표 • 공연기획사 아카사 대표를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이가 재능이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요새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데 합주 공연은 아이들의 협동심과 배려심을 길러줍니다. 또 음악공부를 하러 절에 오니 어린이포교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음악교육을 통해 오케스트라를 개최하겠다는 꿈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강 단장은 언젠가는 꼭 이루겠다는 희망을 가슴 한 켠에 두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런 뜻의 발로로 시각장애인 김지선 씨를 발굴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시켜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인 김남윤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양과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모차르트 콘체르토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강 단장은 후원자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사회로 환원했다. 2011년에는 에티오피아 아이들과 여성돕기 음악회, 2012년에는 '지구'를 주제로 환경음악회를 선보였다. 올해부터는 태고종 자비 나눔단체 '나누우리'와 함께 분기별로 환아돕기 자선음악회를 열어 수익금을 회향할 계획이다.

강 단장은 재미와 예술,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기획했다. '바흐와 삼매' '칸타타 담마파다'가 대표적인 기획 공연. '바흐와 삼매'는 바흐의 선율을 통해 종교적 삼매를 체험하는 형식으로 중간에 불칼럼니스트 이미령씨가 나와 해설을 곁들였다. '칸타타 담마파다'는 〈법구경〉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160여 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한 유례없는 대규모 공연이었다. 이 밖에 '법의학자가 들려주는 음악가들의 생로병사에 얽힌 이야기-슈베르트, 차이코프스키 등' 시리즈는 클래식을 잘 모르는 관람객들에게도 흥미와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바흐의 곡에 삼매라는 개념 하나만 심어줘도 충분한 포교가 되거든요. 이런 작은 씨앗을 하나 심어놓으면 불교에 대한 관심이 언젠가는 커지리라 봅니다."

조금이나마 불교를 알리겠다는 그의 노력을 부처님께서도 알았는지 2012년 제27회 불이회 시상식에서 음악을 통한 불교 문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또한 그는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이 선정하는 '2007년 올해의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클래식과 불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형진 단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소리라는 것은 냄새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연습할 때 들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연습합니다. 나의 마음이 균형 있게 잡히지 않는다면 소리에 대한 판단이 깨집니다. 또 소리에 너무 몰입돼 연습하면 다른 악기와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또렷이 깨어 있되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죠. 성성적적(惺惺寂寂)한 상태로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다. 박자, 소리 등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소리를 맞춰야 해요. 필하모닉(philharmonic)에서 필(Phil)의 어원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고자 하는 경이로운 행위가 클래식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가르침과 너무도 닮지 않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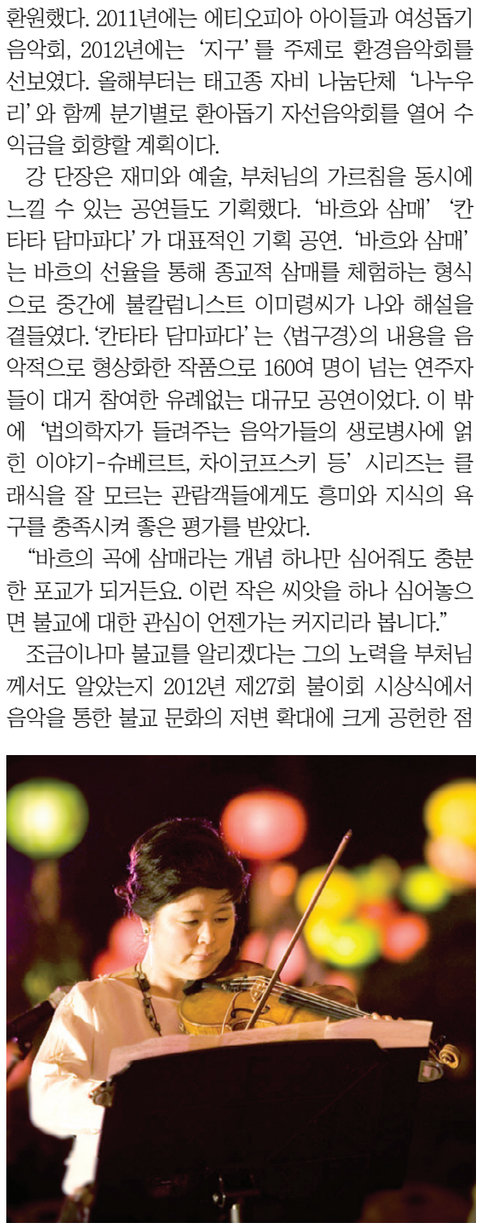
강 단장은 공연을 하기 전에 늘 부처님께 절하듯 관객들에게 절을 올린다. 대부분 종교가 개신교, 천주교인 단원들에게는 불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연주에 앞서 이 말을 꼭 전한다.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교음악회 연주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입니다. 남의(타종교) 공연에 와서 연주하고 가면 남의 공연 밖에 되지 않지만 내 공연이라 생각하면 진정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수처작주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연주자들에게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한다. 요가와 참선을 통해 해법을 찾고 연주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연주자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 단장의 역할이다.

강형진 단장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한 수행을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한다. 현재 해외진출을 목표로 부처님 일대기를 대형 뮤지컬로 제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연출, 음악가 들과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판소리 오페라도 기획해보고자 '아카사(Akasa; 빨리어로 우주라는 뜻)'의 공연기획사를 설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니르바나 창단 이후 한시도 니르바나가 마음에서 떠나 본적이 없다는 강 단장. 니르바나 운영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보내느라 가족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창단하면서 자신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려 한다.

"'지금 여기(Now and Here)'가 제 삶의 모토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일하듯 계획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니르바나를 운영하기는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현재와 지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앞에 닥치는 경계를 하나하나 순응하며 사는 것이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굴 원망하거나 탓하는 일로 쓸데없는 정신적 소모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매순간마다 저를 지켜주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제 모든 것을 걸고 니르바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봉축길상음악회에서 바이올린 솔로 연주를 선보이는 강형진 단장

전법일기

해외포교사 존경스러워

스리랑카서 안거 중 숭산 스님 만나
달라스 포교당서 홀홀단신 포교
6개월 뒤 귀국…해외포교 고충 느껴

해외포교의 인연, 미국의 경험

94년 여름, 1년을 기약하고 떠난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불교국가 순례길이 4개월에 접어들 때 스리랑카에서 여름안거를 지내고 있었다.

보다 의미 있는 만행을 위해 영어공부도 하고 힘을 얻어가던 참선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안거를 반쯤 지냈을 때 영어공부는 제법 진전이 있었지만 정진에 큰 고비가 왔다. 좌선을 하면 속이 꽉 막힌 듯 거북함과 답답함이 점점 심해지며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마침 희한하게 숭산 스님께서 스리랑카에 오셨고 스님께 가르침을 받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스님께서는 동안거부터 당신의 지도하에 공부하기를 권하셨지만 계획한 여행이 많이 남았기에 양해를 얻어 다음해 하안거에 들기로 했다. 95년 하안거, 한국스님으로 온전하게 한 철을 산 스님이 거의 없었다는 화계사국제선원생활은 해인사 승가대학 1학년인 치문반 시절보다 수월하지 않았다.

융통성이 거의 없는 원칙적인 수행일정과 매일 아침 큰스님의 법문, 그리고 매주 있는 선문답은 10년차 승려를 완전히 초발심자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정진에도 큰 발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명인이 된 현각스님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국제적인 감각도 익힐 수 있었다.

해외포교에 뜻을 세우고 20여년 세계 각국에 100여 곳의 선원을 건립하고 많은 외국인들을 출가하게 한 숭산스님의 원력과 법력을 몸으로 마음으로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다. 큰스님께서는 당신의 지도아래 더 정진하기를 권하셨고 나 역시 그러기를 원했지만 그 해 겨울, 해외포교의 인연이 되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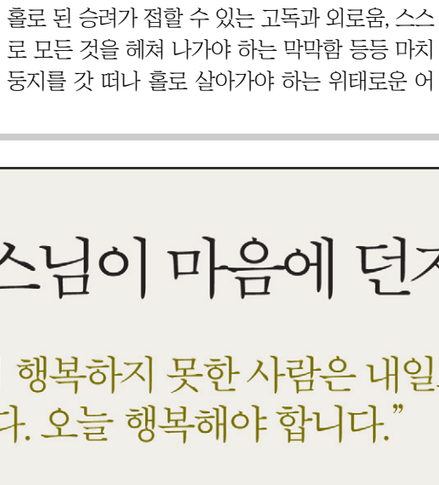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미국의 달라스 포교당에서의 생활은 일생을 통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다. 고국과 대중을 떠나 홀로 된 승려가 접할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하는 막막함 등등 마치 둥지를 갓 떠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위태로운 어린 새의 느낌이었다. 그런 와중에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애환과 갈등,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은 실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세탁소 일을 하며 미국포교를 시작했다는 숭산 스님을 비롯한 해외포교에 몸담은 스님들의 고생과 헌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 3년을 기약하고 떠난 길이었다.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교민신문에 글을 연재하며 한국불교의 정서를 전하고, 예불기도를 근본으로 하여 포교당생활에 전념한 까닭에 신도들도 조금씩 늘었다. 경험이 쌓이고 인간적인 인연도 늘어가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고 영어공부도 계속하였다.

하지만 또한 내면에서는 갈등과 고민이 커져가고 있었다. 아무리 주인노릇을 하고자 하여도 객일 수밖에 없고 간격을 좁힐 수 없었던 포교당의 소유형태와 소유자와의 불안정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었다. 비자만료기간인 6개월이 되었을 때 결국 귀국을 결정하였다.

"북극이나 사하라사막에서도 생존가능 할 철의 인간이 미국생활을 못 견뎠냐."는 도반들의 짓궂은 놀림도 있었지만 내게는 장애를 통해 발전을 경험한 수행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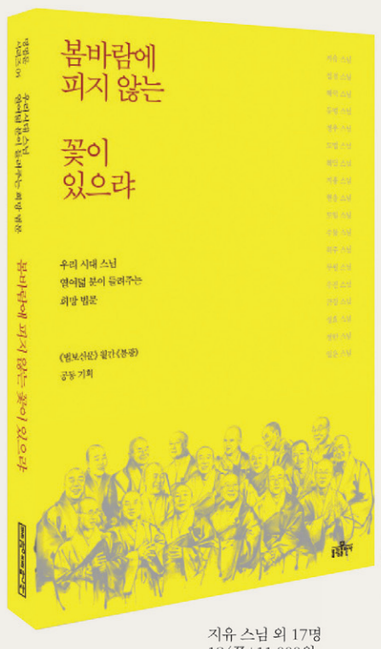
페이스북에는 그때 인연을 맺었던 불자가 친구를 맺어서 가끔 안부를 전하곤 한다. 더 위안과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한다.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큰 가피가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지유 스님
설정 스님
혜국 스님
동명 스님
정우 스님
도법 스님
혜담 스님
지홍 스님
현응 스님
도일 스님
수불 스님
허주 스님
무원 스님
우진 스님
금강 스님
성효 스님
청안 스님
일운 스님

열여덟 분 스님이 마음에 던지는 큰 울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다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지유 스님 외 17명
184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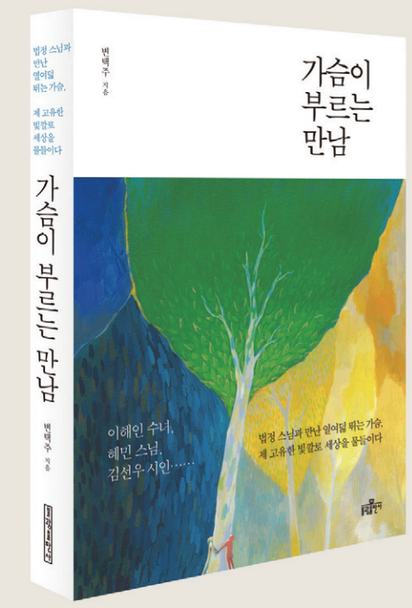
명법문 시리즈04

우리 시대 스님
열여덟 분이 들려주는
희망 법문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가슴이 부르는
만남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 지음 | 352쪽 | 15,000원

가슴이 부르는
만남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 혜민 스님,
김선우 시인……

법정 스님과 만난 열여덟 뛰는 가슴,
제 고유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다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 드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보여 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 이해인 수녀

"여행자가 지닌 몇 권 되지 않는 책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책이 법정 스님 책이에요. …… 책에서만 스님을 뵙고 『무소유』 같은 책을 자기 삶에 특별한 표징처럼 늘 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나게 돼요." – 김선우 시인

"아무리 좋은 말이나 관심도 내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싫어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비춰 주세요. 따뜻하게. 그게 사랑이에요." – 혜민 스님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印, '불교 역사·예술·철학 결집한다'

주정부, 불교유적 조명 첫 국제회의 개최
2월 1~3일 개최…120여 불교·역사학자, 스님 참여

고대 동인도 불교문화의 정수를 고스란히 품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세인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 곳, 오릿사(Odisha) 주(州) 우다야기리(Udayagiri)에서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Diamond Triangle) 불교유적과 그 가치'를 주제로 한 첫 국제회의가 열렸다.

인도타임즈(The Times of India)는 최근 "1980년대부터 조사·발굴되기 시작한 우다야기리, 랄리트기리(Lalitgiri), 라트나기리(Ratnagiri) 불교유적의 가치를 점검하고 알리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보도하고, "오릿사 주(州)정부의 문화관광부가 '해양과 동남아시아학 오릿사연구소(Odisha Institute of Maritime and South East Asian Studies)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 각국에서 120여 명의 불교학자, 스님, 관광사업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오릿사 문화관광부 차관 아속 트리패티(Ashok Tripathy)는 "주정부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우다야기리, 랄리트기리, 라트나기리의 불교유적의 가치를 짚어내는 한편 그 지리·역사적 연결고리를 끄집어내, 세 지역의 불교유적을 연결한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Diamond Triangle)' 이 공인되기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오릿사 주 소재 불교유적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오릿사 관광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시리 동남아시아·해양연구소장 수닐 팟네익(Dr. Sunil Patnaik) 박사는 "이번 국제회의는 고대 오릿사의 찬란했던 불교예술과 철학을 결집하고 홍보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더했다.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발굴된 우다야기리는 발굴 당시 잘 보존된 유적과 그 규모에 인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도 오릿사주의 우다야기리에서 발견된 불교유적지

오릿시 주의 최대 불교유적이다. 이번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우다야기리 불교유적 가운데 '8엽 형태의 전탑 형식의 불탑과 승원(불탑 뒷편)'과 '우다야기리 승원 터 입구'에 주목했다.

불탑의 경우, 탑신 사방에 수놓은 각기 다른 자세의 불상의 수려함이 조명됐다. 또한 그 뒤편 승원의 경우, 건축 양식과 내실의 불상 및 보살상이 라트나기리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됐다.

이는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Diamond Triangle)'의 개연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다야기리 승원 터에 이르는 길'도 주목 받았다. 우다야기리 승원의 찬란했던 사격을 엿보게 하는 이 길의 끝부분에는 두 개의 석판이 인방 블록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를 다른 석판이 덮고 있다. 정숙하고 순수한의 조각으로 뛰어난 건축 양식을 보인 석판에는 붓다, 아미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인도타임즈는 문화관광부 우파드하(H.S.Upadhyay) 국장의 말을 인용, "세 지역에서 진행된 조사·발굴을 통해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유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며 "이번 국제회의는 오릿사 불교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대계(大計)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릿사 주에는 지금까지 324곳의 불교유적이 발견·발굴되었고, 이중 108곳에는 승원과 불탑 등 그 부속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역사학자나 불교학자들이 오릿사 주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은 여전히 오릿사에 인색하다. 그보다는 부다가야나 인근 네팔에 더 쏠린다. 관광객의 수를 비교하면 자명하다.

따라서 오릿사 주정부는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주 소재 불교 유적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우파드하 국장은 "오는 3월부터 태국, 스리랑카, 일본 등지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마하파리 니르반 고속열차(Mahapari Nirvan Express) 운행 역을 신설하는 등 관광 편익 시설을 늘려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티베트인 분신 부추겼다"

티베트 승려에 사형선고

티베트 승려가 동족(同族)의 분신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중국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신화통신은 1월 31일(현지시간) "쓰촨성 중급인민법원은 뤄랑궁치우 스님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티베트인 8명에게 분신을 교사해 결국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수형 생활을 지켜보면서 반성 정도를 보고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이 가능하게 한 제도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추종자들의 지시에 따랐음을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중국이 분신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실제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나은 기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6〉



40만 명 불가촉천민 '신불교'로 개종

암베드카르 사후 현대인도불교

1956년 10월 13일에 있었던 개종식에서 암베드카르와 40만 명의 불가촉천민들은 힌두교를 떠나 불자가 됐음을 천명했다. 이렇게 암베드카르에 의한 집단 개종으로 시작된 불교세력은 '신불교'라고 불리게 됐고 이렇게 불자가 된 이들은 '신불교도'가 됐다. 그러나 이 신불교운동은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56년 12월 6일, 암베드카르가 재판(再版)을 위해 손보고 있던 자신의 책 〈붓다와 그의 가르침〉 원고 위에 엎드린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가 공식적으로 개종을 한 후 채 두 달도 되지 않던 시점이었다.

불교에 대해 많은 탐색과 모색 끝에 개종을 한 암베드카르와는 달리 불가촉천민들은 사실 불교에의 호감 보다는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개종을 했다는 편이 옳다. 따라서 그들은 불교에 대해 그다지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암베드카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은 지도자를 잃었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컸다.

이때 새로이 불자가 된 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상카락시타였다. 상카락시타는 영국인으로 1950년 인도 사르나트에서 수계를 받고 스님이 되었다. 그는 암베드카르 생전에 그를 세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개종식에 대해 함께 의논을 하기도 했다. 암베드카르가 사망하던 날 그는 암베드카르와 함께 개종한 이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개종식이 열렸던 나그푸르로 가던 길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지도자의 별세 소식을 듣고 비통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불교에 대해 가르치며 5일간 머물렀다. 그 동

개종식 이후 불자 18만→325만 명↑
현재 인도 불자수 795만 여 명
암베드카르 사후 불교 정체돼
양적 성장 했으나 질적 성장은 낮아

안에 약 3천명의 사람들이 또 불교에 귀의했다. 또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상카락시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설법을 하고 사원을 짓고 불상을 세우고 여러 의식들을 집전했다. 그는 1965년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자주 인도를 방문하고 신불교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었다.

암베드카르 사후에도 몇 차례 대규모 개종식이 있었고 암베드카르 생전에 75


암베드카르 동상에 참배하는 인도인들

만 명이었던 불자들의 수는 1957년 초에는 400만 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불교로의 개종운동은 주춤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암베드카르의 추종자들이 거의 다 개종을 한 탓으로 보인다.

암베드카르는 전불가촉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가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집단은 자신이 속한 마하르 카스트였다. 그리고 그의 개종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도 당연히 마하르 카스트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하르 카스트가 개종을 하고 나자 개종운동은 그 기세가 한 풀 꺾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암베드카르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불가촉천민들에게 개종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사라져 버렸다.

또한 개종을 한 불가촉천민들도 불교에 대해 알 기회를 그다지 많이 가지지 못했다. 상카락시타에 따르면 암베드카르 사후에 개종식은 암베드카르가 설립한 정당의 정치인들이나 대각회의 승려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치인들은 신불교도들에게 불교에 대해 교육할 만큼 불교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다른 나라에서 온 대각회의 승려들은 인도에 있는 자신들의 사원을 관리하기에 바쁜 처지였다. 그리고 외국인인 그들은 불가촉천민 출신인 신불교도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상카락시타는 대다수의 신불교도들이 개종식 이후에 한번도 승려들을 만나지 못하는 등,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불교적인 생활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불교도들은 개종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도 없었다. 개종을 하고 힌두교를 버렸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상위 카스트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개종으로 인한 심리적 효과는 무척 긍정적인 것이었다. 많은 신불교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은 '천민'이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찌되었든 대규모 개종식의 결과로 불교인구는 크게 늘어났다. 1951년 18만 823명이었던 불교인구가 1961년 325만 227명에 달했으니 실로 급격하게 불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중 278만 9501명이 마하라스트라주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개종운동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마하르 카스트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른 주의 불가촉천민들 사이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1971년의 불교 인구는 385만 2377명이었다. 즉 암베드카르 사후에 신불교 운동이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신불교 운동에 있어 암베드카르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2000년 실시된 인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도의 불교인구는 795만 5207명으로 전체 인구의 0.8%에 달한다. 지금도 종종 불가촉천민들이 집단개종식이 열리기도 한다. 집단개종식의 시초는 불교도들이었으나 현재 인도에서 개종식을 여는 불가촉천민들이 모두 불교로 개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로의 개종도 거의 같은 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암베드카르 사후 지적되었던 불교에 대한 교육 부족도 많이 개선되었다. 싯다르타 대학, 밀린다 대학, 암베드카르 대학 등이 설립되었으며 빨리어와 불교학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출신 승려의 수도 늘었으며 의식집전가나 포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생겨났다. 그러나 수적인 성장에 비해 불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라는 질적 성장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불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불교는 일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풍수, 절반의 증거

'도대체, 풍수가 있을까 없을까?'



'과연 조상님 묏자리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신간이 나왔다.
저자는 '증거證據'임을 강조한다. 그저 뜬구름 잡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상님 묏자리가 후손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의 주장은 과연 온통 미신잡술일 뿐인가? 그렇다면 그 오랜 역사는 결국 미신에 집착한 역사인가?
그건 아니더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풍수가 있는가 없는가?' *10년간을 이거 하나에 몰두한 결과물이란다. 저자는 그 결론을 다음 세 가지 명제로 정리한다.* ***첫째, 풍수 있긴 있다. 둘째, 풍수의 핵심은 (氣가 아니고) 靈(혼령 지령)이다. 셋째, 풍수는 과학이 아니다.***
한편 저자는 이른바 '명당 발복 사상'은 적극 경계한다. 오히려 부정적이다.
현직 공무원인 저자는 앞으로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풍수 바로세우기'***와 ***'풍수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유영재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44쪽 / 정가 25,000원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





왕생극락접등

영가등



극락왕생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小 大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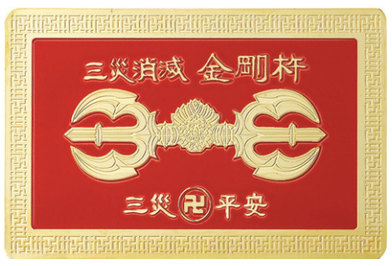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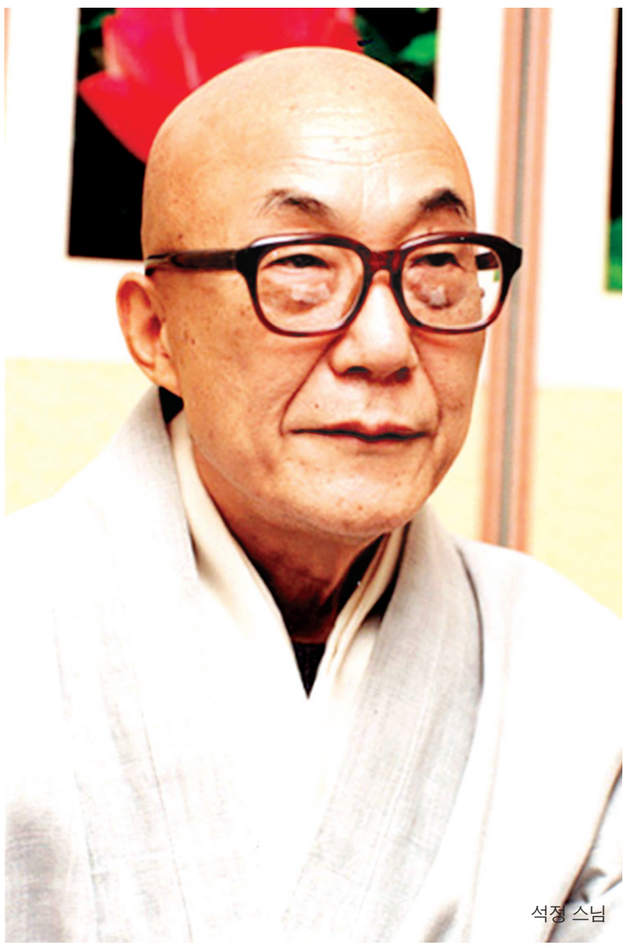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성보 지킨 두 거장 빛으로 돌아가다


석정 스님


석정 스님은 입적 두달 전에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직접 불화 시연을 보여 대중들을 감동시켰다.



석정 스님은 평소 편지봉투를 재활용해 제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림은 스님의 이수자인 전연호 일섭문도회 회장에게 전해준 친필〈사진 왼쪽〉.
스님의 선서화 작품 '蘭'〈사진 오른쪽〉

세상에는 거장이라는 말이 있다. 문학, 문화예술 등 등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불교사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 어린시절부터 금강산 신동으로 불린 석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은 이 시대 최고의 불모였다. 범하 스님 역시 한국 최초의 사찰박물관인 통도사성보박물관을 열고 성보문화재 수호의 새 역사를 쓴 장본인이다. 특히 두 분이 의기투합해 20년 동안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시리즈〉는 한국불교미술사의 새 전기를 마련한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석정 스님의 제안에 따라 범하 스님이 함께 피와 땀과 불심으로 이뤄낸 결정물들이다. 이 시리즈의 출간은 한국 불화를 집대성하고 세계에 한국 불화의 위대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 두 거장은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에 각각 우리곁을 떠나셨다. 거장은 갔지만 이들이 남긴 발자취는 한국불교미술사에 위대한 역사가 됐다. 이 두 거장이 입적에 든지 49일째가 돌아온다. 석정 스님은 2월 6일 송광사서, 범하 스님의 49재는 2월 24일 통도사에서 각각 열린다.

김주일 · 정혜숙 기자

석정 · 범하 스님을 추모하며

"석정 스님은 항상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貞)을 수행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늘 중생을 행복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셨다. 그래서 입적 후 의학도들을 위해 시신을 기증할 수 있었고 불화를 통해 중생을 제도한 것이다. 입적하실 때까지 당신의 재를 지낼 돈으로 선방 수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스님을 화엄경과 같은 분이라고 말한다"

석정 스님 상좌 수안 스님은 스님을 이렇게 표현했다. 늘 자애롭게 후학들을 돌보신 석정 스님의 삶은 말 그대로 화엄과 같았다고 한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불화를 보면 무엇이든 척척 그려내던 신동이었다. 이런 스님의 재능은 당시 신문과 잡지에 화제가 될 만큼 유명세를 탔다. 13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인 석두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서 출가 했고 당대 최고의 불모인 일섭 스님을 만난다. 석두 스님은 수좌의 길을 원했지만 그 뜻을 저버리고 석정 스님은 불모의 길을 스스로 택한다.

이후 스님은 많은 불사에 참여하며 명성을 떨친다. 특히 경상남북도의 모든 불사를 전담하다시피 할 정도였다. 1964년 석정 스님은 통도사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서화수련에 들어간다. 이 결과물들은 1969년과 1970년 연이어 불교계 최초로 선서화전을 열게 되면서 불교미술학계는 물론 화단의 주목을 받는다.

스님은 제자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웠다. 석정 스님의 이수제자인 일섭문도회 전연호 회장은 "스님은 따뜻함과 함께 검소함도 지닌 참 수행자였다. 늘상 편지봉투를 재활용해 메모지를 만들어놓고선 늘 불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말씀하시곤 했다"고 스님을 회상한다.

불화가이자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손연칠 교수 역시 스님과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고 말한다. 손 교수는 "대학 때부터 스님을 찾아다녔다. 당시 다른 불모 스승들은 무조건 수천장 씩 그림을 그리라고만 했지, 어떻게 불화를 그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석정 스님은 채색과 필법 등에 대해 무척이나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불화공부의 기초를 튼실히 다질 수 있었다. 또한 그림 그리다가 몰라서 다급할 때 전화로 질문해도 늘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다."고 회고했다. 또한 손 교수는 "특히 지난해에는 인물화를 연구하라는 지침을 내려 주시며 사찰에 있는 영정 사진들을 비롯한 초상화들을 모아 박스에 포장해 보내주실 정도로 애틋한 스승이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성보 수호 발원한 석정 스님
범하 스님에게 불화조사 제안
〈한국의 불화〉 40권 완간

이후 석정 스님은 1989년 중창 중이인 순천 송광사 대웅전 후불탱 조성을 위해 전국의 불화를 돌아보면서 불화의 허술한 보존과 관리 실태를 목격한다. 그래서 옛 불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해 놓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여겨, 통도사성보박물관을 세우고 내부 정비 중이던 범하 스님을 부른다.

당시 석정 스님은 범하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평생 열심히 불화만을 그려도 옛 스승들이 남긴 우수한 그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래서 옛 불화의 소중함을 뼈져리게 느껴 기록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원력을 세워 조사해보자"고 범하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석정 스님의 원력을 받든 범하 스님은 1989년 12월 18일 태허스님 · 동욱스님 · 장충식 교수, 그리고 당시 통도사성보박물관 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국불화조사단'을 구성하고 성보문화재 보존연구원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1990년 2월, 첫 조사 대상으로 직지사 본말사 60여개 사찰을 선정하고 불화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석정 스님은 선화전과 책 판매 수익금 등으로 이들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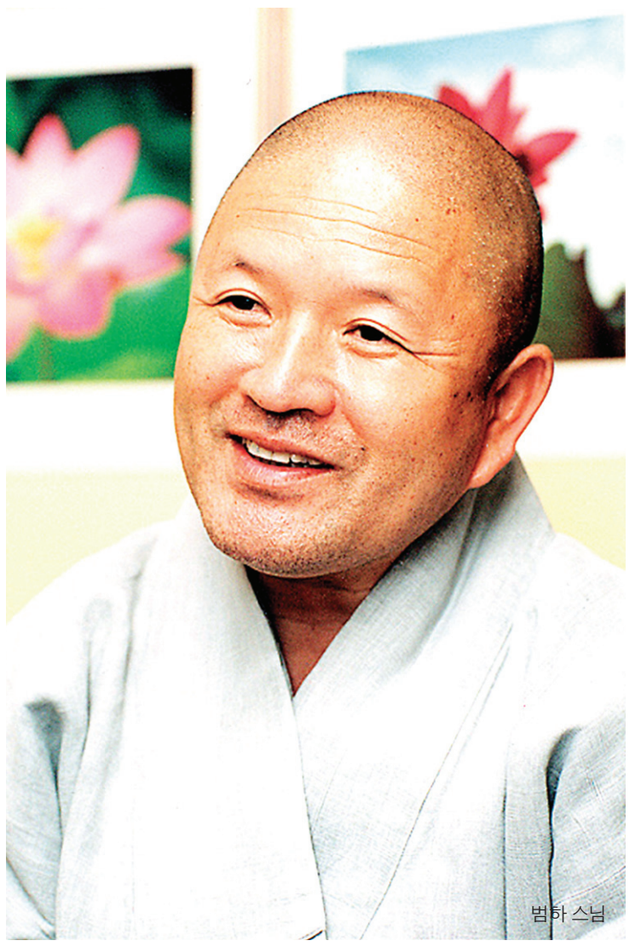
범하 스님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국의불화조사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렇게 서술한 바 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화를 봉안처에서 모셔내야 하는데, 예배대상인 불화를 떼어내는데 대한 사찰 측의 이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지금은 웬만한 사찰에는 자동차가 들어가지만 그때는 차가 들어가지 않는 산길을 무거운 촬영장비를 메고 가야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면 사찰 측에서 반대하기 일쑤여서 힘들게 올라간 우리들의 맥을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범하 스님은 각고의 노력 끝에 2007년 〈한국의 불화 시리즈〉 40권을 완간하게 된다.

함께 연구에 참여했던 구미래 박사는 "순수한 민간연구원의 힘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화를 조사하는 것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성보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범하 스님의 원력 앞에 어떤 제약도 문제가 되지 못했다"면서 "20년의 긴 세월동안 3천여점의 불화를 집대성한 결실은 범하 스님의 추진력과 석정 스님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도 "범하 스님은 1987년 통도사성보박물관 초대관장부터 오늘의 성보박물관 성공모델을 창출한 분이시다."며 "범하 스님의 성보문화재 사랑에 대한 원력에 감동해 2001년에는 '자랑스런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적극 추천한 바 있다"고 범하 스님과의 인연을 밝혔다.

비록 몸을 바꾸셨지만 이 두 스님이 남긴 불화 사랑에 대한 열정 만큼은 길이길이 귀감이 될 것이다.


범하 스님


범하 스님은 1989년 불화조사단을 구성해 전국 곳곳의 사찰 불화를 조사했다. 사진은 1996년 오대산 적멸보궁 조사 장면.


범하 스님이 이끈 불교성보문화재연구원은 2007년 한국의불화 시리즈 40권을 완간했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 뜨리게 될 것이다. 때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와,
때로는 흔적 없는 공기와도 같은 향기를 일별하기를...

신간!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1권 출간!
운거, 소산, 조산, 용아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108 진참회문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한국의 선화 인도를 찾다



동성 스님은 인도 델리대와 뭄바이대에서 선화전시 및 특강을 가졌다. 사진은 1월 16일 델리대 전시 오프닝 행사

동성 스님 선화 인도 초대전 · 특강… 한·인 수교 40주년 기념

'2013 둥글고 밝은 빛 동성스님 선화 인도 초대전 및 특강'이 열렸다. 인도 델리대 1월 16일, 뭄바이대 24일 각각 개최된 행사에서 스님은 전시와 함께 특강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 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인도 델리대 불교대학 학장 KTS 사라오와 뭄바이대 생명과학대학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박사 사상연구소 학장 겸 소장 B.L.자드하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델리대 행사에서는 인도 불교협회 회장 락마하 나약 마하 테라 스님, 불교대학장 KTS 사라오 박사, 부학장 R.K. 라나 박사, 예술대학 교수 H.P. 강네기 박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델리대학교 불교대학 학장 사라오 박사는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전한지 1,500여년 지났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동성 스님이 선화로 다시 인도로 돌아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뭄바이대 행사 역시 뭄바이사원연합회장 라훌라 보디 스님, 뭄바이대 생명과학 학장 겸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 박사 사상연구소 소장 B.L.자드하브 박사, 예술대학 교수 모간 사라바스티 박사, 역사학 교수 T.R. 고블 박사, 국회의원 람다스 호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동성 스님은 '선종미술과 동성의 선화 세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국의 불교미술을 소개한 스님은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아무도 확증한 분이 없었을 때 부처님께서 화현하시어 수행과 설법으로 이를 직접 밝혀 보여주셨다"고 강의했다.



달마도

또한 수행자는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정진으로 열반의 공덕을 성취하기 때문에 수행이 곧 행복이 된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스님은 "청정한 몸 법신(法身)을 이루고, 청정한 마음 정법안(正法眼)을 이루어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완벽한 깨달음 '둥글고 밝은 빛'을 이루어 가자"고 전했다.

한편, 스님은 이번 행사에서 천진불, 나한도, 달마도, 미소동자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정혜숙 기자**

천년의 역사와 문화 무대에 펼쳐

미소2 신국의 땅 신라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미소2-신국의 땅, 신라'가 경주 정동 극장에서 상설 공연되고 있다.

이 공연은 경주의 유적지에서 만났던 역사적 인물, 유물들이 되살아나 눈앞에서 살아서 춤추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준다.

'미소2-신국의 땅, 신라'는 신들의 땅 신라의 시조탄생과 건국, 삼국통일의 꽃, 화랑들이 펼치는 꿈과 야망, 사랑을 담고 있는 장대한 대 서사시다. 또한 신라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만들어낸 천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춤과 음악으로 형상화했다.

'미소2'는 하늘의 정기를 받은 혁거세와 물과 대지의 기운을 품은 알영이 만나 천신이 다스리는 신국, 신라가 탄생한다는 건국신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후 이야기는 삼국통일이라는 민족의 꿈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선덕여왕과 풍월주 용춘의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이야기로 빠져 든다. (054)740-3800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화생(蓮花化生)→만병화생(滿甁化生) ㊦

모든 여신 탄생한 바닷물 압축한 '만병'

이 연재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국불교미술'은 '한국미술'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제1목표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문자기록의 오류로 빚어진 미술사학의 치명적 오류들을 수 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미술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며, 인류가 이루어 온 문화해석에 혁신을 가져오는 금세기 역사적 연재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젊은 미술사학도들, 미술사학자, 불교 관련 학승과 불자들, 문화에 관심을 가져온 중류계층 등을 의식하며 쓰는 연재다. 불교는 고차원의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으니, 불교미술 역시 고차원의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인데 조형적으로 만병에서 만물이 생성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 놀랍지 않은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병이라는 도상은 인도에서 가장 일찍부터 즉 서기 전 2세기의 바르후트 수투파의 난간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만병을 다양하게 표현하였지만 인도 학자들도 그것이 만병인지 모르고 있다. 인도미술 전공 일본학자도 수병(水甁:물병)이라 부른다.

락슈미의 도상, 보살의 연화화생 원형

만병에서 부처님이 나오신다는 것은 전에는 상상도 못하였으며 불경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니 더욱 모를 수밖에 없다. 만병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도의 락슈미라는 여신의 만병화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병 ― 영기문 ― 여래나 보살 혹은 여신(女神)의 탄생〉이라는 도상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은 만병화생이란 말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병이란 그저 병이 아니라 '병 안에 정화된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물에서 영기문이 나오는 조형까지 통틀어 만병'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병만으로도 만병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경우 병이 만병인지 알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병이란 형태가 없어도 불교미술의 모든 것이 만병에서 나오는 것인데 단지 만병을 생략했을 뿐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담아주기 바란다.

서기 2세기의 마투라 지역에서 발견된 기둥에 새겨진 높이 1미터가 넘는, 인도의 대표적 여신인 '미(美)와 행운(幸運)의 여신'은 큰 항아리에서 두 연꽃 위에 서 있어서 락슈미가 연화화생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만병화생이다.(그림 ①) 만병 안에는 정화된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물에서 활짝 핀 꽃, 덜 핀 꽃, 봉오리, 연잎 등 다양한 모양의 연꽃이 연이어 나오지만 연꽃이 이러한 방법으로 피는 법이 없다. 이 연이은 영화된 연꽃인 영기꽃(靈氣花)은 끊임없는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며, 그 가운데 중앙에서 대칭적으로 공작이 탄생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작의 영기화생(靈氣化生)이다. 그저 현실에서 보는 연꽃들 사이에 앉아 있는 공작이 아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공작이 영기꽃에서 영기화생 하듯, 영기꽃에서 락슈미가 영기화생하고 있다. 길게 올라간 영기꽃이 배경을 이루며 한 몸을 되어 화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명력이 가득 찬 만병에서 영기꽃이 나오고 영기꽃에서 여신이 화생하는 도상이라는 것을 지금 쓰면서 아,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불상의 광배(光背)의 기원이 바로 이 작품에 있음을 알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부처님의 광배에 연꽃무늬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락슈미와 영기꽃 줄기는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락슈미 여신 또한 만물생성의 근원자가 된다.(그림②, ③)

락슈미의 만병과 정수사 대웅전 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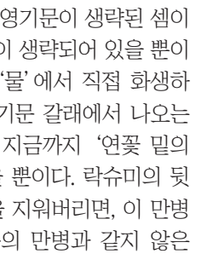
앞에서 본 락슈미상에서 배경을 지워버리니 우리나라 불화에서 보살이 영기화생하는 도상과 같다. 즉 만병에서 피어오르는 영기문이 생략된 셈이다. 우리나라 불화에서는 물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여래와 보살 등은 모두 '물'에서 직접 화생하거나 물에서 피어오르는 영기문 갈래에서 나오는 연꽃에서 탄생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꽃 밑의 물과 영기'문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락슈미의 뒷면에서 앞부분의 락슈미상을 지워버리면, 이 만병은 강화도 정수사의 꽃살문의 만병과 같지 않은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인도의 락슈미의 영기화생의 도상이 한국의 18세기 꽃살문의 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니 전통의 전승이란 놀라울 뿐이다.

그러면 락슈미 여신은 누구인가?

가장 널리 알려진 탄생 설화에 따르면 락슈미는 일렁이는 유해(乳海:산호가루로 하얗게 된 바다)에서 연꽃 위에 앉아 손에 꽃을 들고 태어났으므로, 상을 표현할 때 오른 손은 꽃을 들고 왼손은 유방을 받든 미와 행운의 여신은 불교에 들어와 길상천(吉祥天)이 되고, 힌두교에 들어와 비슈누의 비(妃)가 된다. 락슈미는 여성미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보다시피 바다에서 탄생한 아프로디테(비너스)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락슈미는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연꽃의 여신이다. 비슈누의 아내이고 그의 창조 에너지의 상징이다. 바다에 누운 비슈누의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며 그 연꽃에서 창조신 브라흐마가 탄생한다. 락슈미는 그 우주 모태와 결부될 때 로카-마타(Loka-Mata),곧 '세계의 어머니'가 되며 잘라디-자(Jaladhi-ja), 곧 '바다에서 태어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여성적으로 표현하는 보살도상의 원형이 이러한 락슈미 여신에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락슈미가 바다에서 탄생한 것처럼, 비너스도 바다에서 태어나며, 내가 밝힌 것처럼 수월관음도 항상 바닷가에서 태어나는데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너르디너른 바다를 압축한 만병에서 탄생하고 있으니, 수월관음의 기원은 락슈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 글에서 처음으로 밝힌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락슈미 상의 앞면과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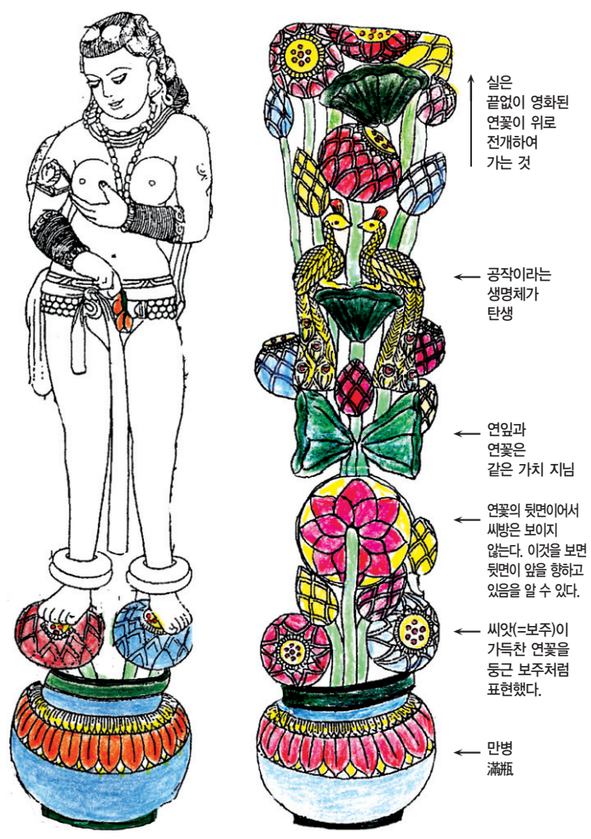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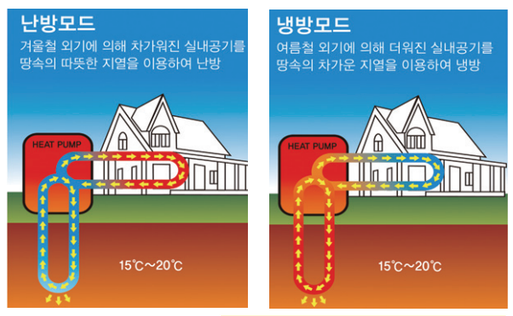


그림 ② 앞면의 채색분석 그림 ③ 뒷면의 채색분석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전성 · 수익성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와 수익 (예)
〈2012년 4월 기준〉
- 수익률 은행금리 약 5배
-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 전국 3,000명 넘음

구 분	월 수익	년 수익	수익률
10kw	약50만원	600만원	17%
20kw	약100만원	1,200만원	17%
30kw	약150만원	1,800만원	17%
50kw	약250만원	3,000만원	17%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빙의, 최면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 생생하게 담아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번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북갤러리
Tel : 02)761-7005 / Fax : 02)761-7995

역학 · 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 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학생 심리 상담
3. 빙의 퇴마, 원인모른 병, 정신이상, 환시, 환청
4.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011-772-4606 / 031-842-8023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스님 말씀 따라 온몸 바치면 '수행' 이고 '행복'



공부하다 죽어라
정찬주 지음
열림원 펴냄
1만5천원



미소굴 등 스님 생전 수행처 돌며
선지식의 삶·수행·가르침 되새겨
'공부하다 죽어라' 출·재가 모두 위한 것
법어·산문 만나 무아체험 길 안내

"지금 우리는 꿈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는 미혹한 중생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미혹한지도 모르고 송장 끄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산 사람인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다 죽으란 말을 많이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도를 닦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책은 2001년 입적하신 혜암 스님〈사진〉의 가르침들을 거울삼아 써낸 산문집이다. 저자는 가야산,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영축산 등 스님이 정진했던 거처를 따라가며 스님을 회상했다. 그리고 스님의 삶에서 기억될 만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조한다.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교보문고 북로그에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글을 모은 것이다. 책에는 연재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혜암 스님의 어록이 함께 실려 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큰스님이 주로 일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혜암 스님의 화두 드는 법을 만날 수 있다.

저자 정찬주는 30여 년간 '불교'를 가지고 글을 써왔다. 몇 해 전 성철 스님이 정진했던 뜻을 모아 펴낸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재작년 연초 법정 스님의 삶을 좇아 쓴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의 맥을 잇는 산문집이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를 통해 성철 스님이 무엇을 공부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화두 삼아 참다운 삶과 수행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면,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통해서는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며 법정 스님이 몸소 체화했던 무소유 사상의 성립부터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살폈다. 그리고 이제 혜암 스님의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말씀을 화두 삼아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안내한다.

"스님이 수행했던 산중 암자를 다니면서 문득 '공부하다 죽어라'가 절 울타리 안의 단순한 법문이 아이라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에게 던진 벼락같은 화두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자는 스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절집 식솔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책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공부하다 죽어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수행자에게 던진 법어이겠지만 누구에게나 깨우침을 주는 불벼락 같은 말씀이다. 작가인 내 경우에는 글을 쓰다가 죽으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동행한 유동영 사진작가에게는 사진을 찍다가 죽으라는 것이다. 스님이 말씀하신 '공부하다 죽어라'는 직접적으로는 위법망구(爲法忘軀),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몸을 버리라는 의미겠지만 또 한 편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일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때까지 녹아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자각한 바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스님의 그 말씀을 화두 삼아 무아를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온몸을 다 바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삶의 행복이 아닐까 싶다. 그 일이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한 일이라면 복덕까지 쌓는 일이니 얼마나 더 없는 행복이고 정진인가."

'글'이라기보다 지도를 읽어 주는듯한 그의 문장들이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안내한다.

미소굴 전경, 스님의 유품들, 손수 일군 채마밭, 오대산 전경 등 책에는 스님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 텍스트와 텍스트를 채우고 있어 현장감을 더한다. 본문 뒤엔 스님의 행장이 정리되어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혜암 스님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효봉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승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서릿발같이 독려하던 스님의 생애는 끝없는 정진뿐이었다. 해인사로 출가한 27세부터 방바닥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 수행과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평생 동안 지켰다.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서 성철 스님 이후에는 종단개혁에 앞장섰다. 해인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거쳐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됐으며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열반했다.

과학적으로 밝혀낸 부처님 말씀



수능엄경 · 하
반라밀제 편역
천명일 해설
지혜의 나무 펴냄
2만원

〈수능엄경〉은 인류의 머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난해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전이다. 경전연구가이며 전통침구학자인 저자 천명일은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의역에 가까운 해설로 경전을 강의했다. 마음에 대한 통찰과 오안설을 통한 저자의 자유로운 필체는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하며, 한문 원전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문 아래에는 한글로 토를 달아 표기하여 일반인도 경문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 중권에 이은 하권으로, 8권에서 10권까지를 담았다.

능엄경(楞嚴經)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약칭으로, 수능엄경, 대불정수능엄경, 대불정경, 만행수능엄경 등으로도 불린다. 능엄경은 인도의 나란다에서 비장(秘藏)하면서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왕명으로 인해 당나라 이전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에 전래되지 못하다가 705년에 중인도 스님 반랄밀제가 한역하면서 전래됐다. 능엄경은 스님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과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과 함께 강원의 사교과 과목으로 채택된 경전이다.

박재완 기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구원확률 높이기 프로젝트

위르겐 슈미더 지음 | 배명자 옮김 | 펜타그램 펴냄 | 1만6천원



'지옥에 가기 싫은 한 남자의 요절복통 종교체험기'란 부제가 붙은 책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 하고 싶은 한 남자의 다양한 종교 체험기다. 몇 해 전 '40일간 거짓말 하지 않기 프로젝트'를 벌렸던 저자가 또 한 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종교'라는 주제는 대중들 앞에 섣불리 꺼낼 수 없는,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다. 이 어렵고도 까다로운 주제를 유쾌·상쾌·통쾌하게 풀어나가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재주를 지닌 저자 위르겐 슈미더는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보고자 다소 엉뚱하고 독특한 모험을 시도했다. '구원 확률 높이기 프로젝트'다. 4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는 한 종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되도록 여러 종교를 믿고 그들이 제시하는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 구원받을 확률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슈미더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란 '모태 신자'지만, 청소년 시절부터는 지루한 강론에 지쳐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왔다. 결국 성인이 되자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 때에만 교회에 나가는 '사흘 신자'가 되고 만다. 그런데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인 그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종종 불안감과 공허함을 느끼곤 한다. 무엇보다 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자문해본다. 종교 혹은 영성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거의 강제적으로 주어졌던 가톨릭을 또 다시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싶진 않았던 슈미더는 자신에게 딱 맞는 종교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같은 세계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신흥종교와 대체종교까지 공부하고 체험한다.

-각종 종교경전 및 종교서적 틈만 나면 읽기
-다양한 종교의 성물들로 자신만의 기도 공간 꾸미기
-필리핀 교회에서 귀신 쫓는 의식 관찰하기

하나의 종교보다 여러 종교 진리 수용
다종교 우리사회가 관심가져야 할 이야기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힌두교 신자 이야기 경청하기
-어릴 때 다녔던 성당에 나가 하느님과 차분하게 일대일 대화하기
-불교학자 스티브 레빈이 창안한 '죽음을 상상하는 명상' 시도하기
-독실한 이슬람교신자와 철저한 무신론자 부부의 속내 들어보기

저자는 그야말로 4년 여 동안 여러 종교와 관련된 체험을 수행한다. 슈미더가 벌인 일련의 열정적인 도전과 모험은 언뜻 보면 너무도 진지해서 오히려 우스꽝스럽거나 생뚱맞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공부와 체험은 허탈한 웃음에 그치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슈미더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또한 예전에 마지못해 성당에 나갔던 것과 달리, 자신만의 확실한 생각과 판단을 통해 주체적으로 종교생활을 펼쳐나간다. 무엇보다 무지몽매함에서 오는 편협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종교를 무조건적인 신앙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슈미더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에게 딱 맞는 종교 하나를 고르는 것이 목표였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종교에만 '올인'하기보다 여러 종교의 좋은 점들을 두루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21세기에 걸맞은 신앙생활의 양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이를 '범신앙론'이라 규정한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가속화된 정보의 세계화 덕분에 예전에는 몰랐던 세계의 거대 종교들, 새롭게 부상한 신흥종교들, 대체종교에 대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종교를 영성을 끌어올리는 매개체로 여기는 대신 끝없는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깨비 방망이' 쯤으로 여기는 세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종교가 모든 질문에 모든 답을 주지 않으며, 모든 종교가 인생의 중요한 물음들에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있다는 저자의 '범신앙론'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야기다.

저자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숙고하고 마음과 머리를 열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존중하게 하는데 영감을 준다면 기쁘겠다."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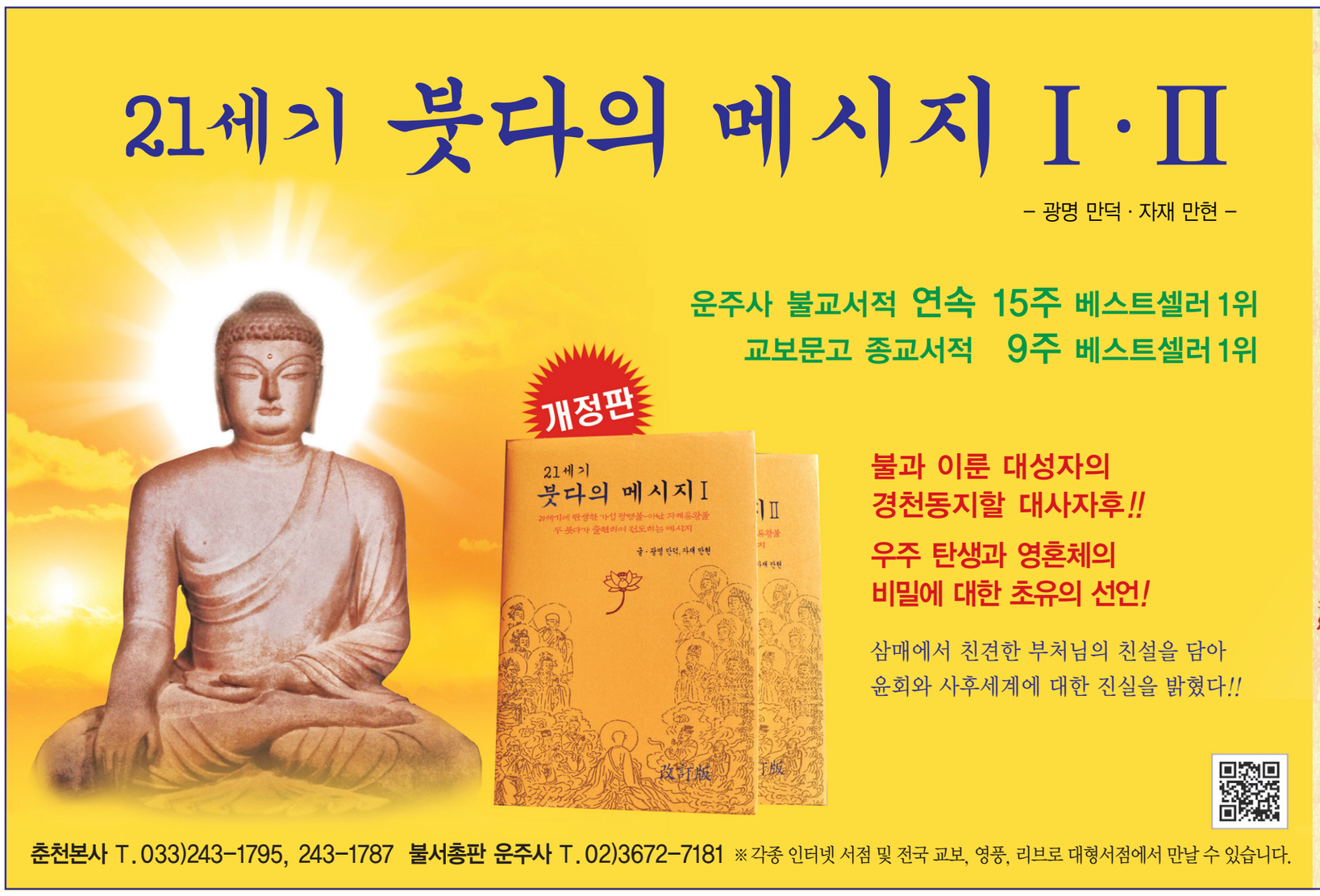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3 ~ 1/2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8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9	롭상 람파의 가르침	롭상 람파	정신세계사
10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묵 혜자	아침단청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금강경〉 읽으면 탐진치 닦고 청정해져"



금강경 공부하기
정천구 지음
작가서재 펴냄
1만5천원

"금강경은 반야부 핵심을 잘 요약한 경전입니다.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기원정사 대법회에 1,250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설법을 듣고 있다는 마음으로 독송하면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으면 재앙이 소멸되고 깨닫는 마음으로 살게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석좌교수는 前 동국대 총장을 지낸 故 백성욱 박사에게 〈금강경〉을 배웠다. 항상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 법문을 들을 정도로 꾸준히 공부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수행방법으로 금강경을 날마다 독송하는 이유는 읽을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바가 늘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제목인 '금강경 공부하기'란 〈금강경〉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여 경의 가르침을 스스로 체득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저자가 오랫동안 해온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공부'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 같이 책을 읽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리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뜻이다. 이 책은 그런 〈금강경〉 공부에 초점을 두었다.

금강경을 읽어 '바치는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처음에는 피부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며 더 공부를 계속하면 정신적 변화와 함께 육체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정신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게 저자의 체험이다.

탐심을 일으키면 어두운 세포가 생성되고

백성욱 박사에게 〈금강경〉 배워
몸과 마음으로 익혀야 참공부
실제 삶에 적용되게 쉽게 해설
32품을 8개 장으로 나눠 설명

진심을 일으키면 독성이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며 치심을 일으키면 탁한 세포가 만들어져 고통 받게 되니 한 생각이라도 소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탐진치를 닦고 몸뚱이에 집착하는 마음을 바치면 청정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마음이 청정하면 여러 마음이 청정하고 여러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줄 최고의 금강경 해설서이자 금강경 공부 실천서 이 책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한다.

2006년 작 〈금강경 공부하기〉의 개정판인



이 책은 스님과 같은 전문적 수행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설로 풀어냈으며, 그 동안 국내외에서 이뤄진 금강경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를 반영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본 텍스트는 소사 백성 목장에서 발간한 〈백성욱 박사 현토: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독송용 이 소사본 금강경은 나습의 한역금강경을 고려대장경 등을 참고해 유통본의 오류를 많이 바로 잡았고 뜻을 파악하면서 독송할 수 있도록 현토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의 첫 부분은 경의 제목과 유래를 다뤘고, 효명태자가 분절한 32품을 여덟부분으로 나눠 해설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히 새로운 분류를 제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경의 흐름에 따라 문장 단락이 될만한 곳을 택해 32품을 몇 개의 장으로 나눠 해설함으로써 불자들이 공부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한편 이 책에는 금강경의 명칭과 유래를 비롯해 '금강경의 요체' '수행의 방법과 단계' '금강경의 공덕과 수지법'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경을 설하는 공덕' 편에서 저자는 "우리 앞에 전개되는 세계는 그 자체로 빈 것이고 중립적인 것인데 각자의 업식이 발현돼 건립된 세계라는 점을 상기해 보자"며 "〈금강경〉은 이런 업식을 깨끗이 해주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향하시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보배로 가득 채워 보시한 공덕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비교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보배를 주는 것보다 마음 편히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계로 가는 열쇠인 이 경을 읽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정천구 교수는?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한국외대서 정치학 학사를 받고 고려대 대학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부터 1983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영산대 초대 총장직을 수행했고, 현재 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 등 10여 편의 저서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연구〉 등 40여 논문이 있다.

불교 철학 정수 〈원각경〉을 종밀 주석으로 해명하다

원각경 · 현담

규봉 종밀 지음 | 신규탁 번역
정우서적 펴냄 | 1만8천원



이 책에 번역된 〈원각경〉은 7세기경에 비로소 한자불교문화권에 등장한다. 이 〈경〉은 인도의 '석가모니'가 한 말이라고 둘러대지도 않는다. 〈원각경〉의 설주는 '바가바' 즉 세상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게다가 역사적 시간도 공간도 아닌, '신묘하고도 막힘이 없고 광명이 가득한 곳'에서 설해진다. 그런데 이곳은 '중생들이 본래부터 간직한 깨침의 자리'이다. 이번 번역에서는 규봉 선사의 경안을 빌어 〈원각경〉의 본문 전체를 번역 주석하고, 또 〈원각경대소〉 현담 부분을 발췌해 번역하고 주석했다.

체계를 두고 단계적으로 본문을 분과하여 신앙 수행의 관점과 진리성을 추구하는 철학적 관점이 조화롭게 융화하였다. 이는 〈원각경〉을 신행하는 이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교학을 어렵지 않게 섭렵할 수 있도록 배려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역자의 서문과 부록에 실은 원각경 해제는 학문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무한히 확장해 주고 있다. 이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자는 원문에서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의 독서법인 구결을 채택하고 있다. 일차 번역인 구결을 버리자 않음으로써 전통을 보지하려는 욕구를 숨기지 않는다.

표점 내지는 백문으로 한문 경전 읽기가 아닌, 구결을 통한 한문읽기는 우리만의 고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역사와 전통 교육 방식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역자가 무조건 과거 회귀적이지 않다는 것은 역자의 역문이 여실히 증명해 준다.

역자는 철학자이다. 누구의 말인가가 아닌, '경험 가능한 효과성(empirical effectiveness)'의 유무에 따라 진리를 판별하는 역자의 진리관은 현대 철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번역문 또한 역자의 현대적인 글쓰기의 귀감을 보이는 데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직지〉를 43가지 이야기로 재조명



직지이야기
박상진 엮음
청주고인쇄박물관 감수
태학사 펴냄
1만5천원

유네스코가 2001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세계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다. 그러나 〈직지〉가 우리 문화유산인데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외국 문화계 일각에서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던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와 달리 세계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면서 〈직지〉가 갖고 있는 의의마저 깎아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에 실린 43가지 이야기들은 〈직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우리 고유의 인쇄 및 출판 문화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제 1부에서는 조선 최초의 근대화 여성으로 알려진 '파리의 조선 궁녀 이심'과 그녀의 남자로 유명한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의 비극적 로맨스, 플랑시 공사와 〈직지〉의 만남, 그리고 재불 사학자 박병선 박사에 의한 〈직지〉의 재발견이 그려진다.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직지〉를 도둑질한 자라는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플랑시는 프랑스 최초의 한류팬이자 조선 골동품 애호가였다. 국가 재정 악화로 관리들에게 봉급조차 주지 못하던 조선 조정을 위해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한다. 또한 조선군을 무장시킬 프랑스제 무기 도입에 관여했다. 그리고 자신이 주재하던 나라인 조선에 정을 붙이려고 비서들과 함께 고서와 골동품 수집에 나섰다. 그 고서들중 하나가 바로 〈직지〉였다.

이어 2부에서는 스승인 백운 화상의 뜻을 받들어 금속활자로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 승려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제 3부에서는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인 〈직지〉의 내용과 가르침이 소개돼 있다. 제 4부에는 우리 고유의 인쇄 및 출판문화가 상세히 다뤄져 있다. 이야기들 사이사이에는 불교나 인쇄 관련 전문 용어를 자세히 해설한 코너와 관련 이미지 자료, 그리고 최초로 공개되는 플랑시 공사와 이심부부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희귀자료 등이 있어서 읽는 재미를 더한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보여준 결정적 증거인 흥덕사지, 즉 흥덕사가 있던 터의 발견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 한국토지공사가 운천 지구 택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1984년 11월 29일, 그 일대에서 유적 발굴조사를 하던 청주대 박물관 조사단은 근처 마을 주민의 제보로 고려시대 절터를 찾았다. 그런데도 토지공사가 공사를 강행하자, 조사단은 토지공사가 반출한 흙으로 조성된 택지까지 면밀히 조사해 청동보당용두와 승려들이 쓰던 사발 등 다양한 유물을 발견했다. 그중 불발에 새겨진 글은 이곳이 흥덕사지임을 분명히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은 1986년 5월 7일에 흥덕사지를 사적 제 315호로 지정했다. **김주일 기자**

20개 사찰의 역사 소개

우리 절집의 옛이야기와 한담

김영숙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절집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 하나하나에는 단순히 재미삼아 눈요기로 넘겨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속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해당 절집의 역사, 그 절집과 함께한 스님들의 이야기, 민중들의 염원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래 전 재미있게 읽었던 절집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사찰에 얽힌 이야기와 그 사찰을 여행하며 생긴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그려냈다. 금련사, 내원사, 용연사, 파계사, 승가사, 정암사 등 20개 사찰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기억 저편에 멀어져 가고 있던, 경전에 대한 메모와 노트를 하나씩 살펴보며 저자는 추억을 되새겼다고 한다. **김주일 기자**

〈백유경〉 99가지 우화 모아

버려진 나무토막이 불꽃을 이룬다

김성규 지음 | 다원 펴냄 | 1만3800원



〈백유경(百喩經)〉은 5세기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가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적 깨우침을 주고자 짤막한 교훈적 우화들을 모아서 편찬한 작품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불교 경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있고 쉬운 비유와 해학성이 넘치는 이야기 가운데 불교 가르침 이상의 깨달음을 보여준다.

비록 우리와는 다른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만은 않다.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짤막한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되돌아보게끔 만든다. 외부로만 치닫고 있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절제와 성찰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상의 보물이라는 것을 이 우화는 가르쳐주고 있다. 법륜교수불자회 회장 김성규 교수가 펴낸 이 책은 초심자들도 쉽게 불교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비유와 해학 넘치는 우화 99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다른 시대의 이야기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저자 김성규 교수는 "이 책에 나오는 우화들을 통해 얻은 교훈들은 오늘날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에게도 감로법문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현대적 감각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영남대 의대에 재직중인 저자는 현재 인터넷 불교교육원 관세음사이버불교대학(www. kwanseeum.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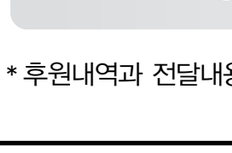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광덕이 「원왕생가」를 지은 까닭은?

노래로 왕생극락을 간절히 기원

1. 광덕과 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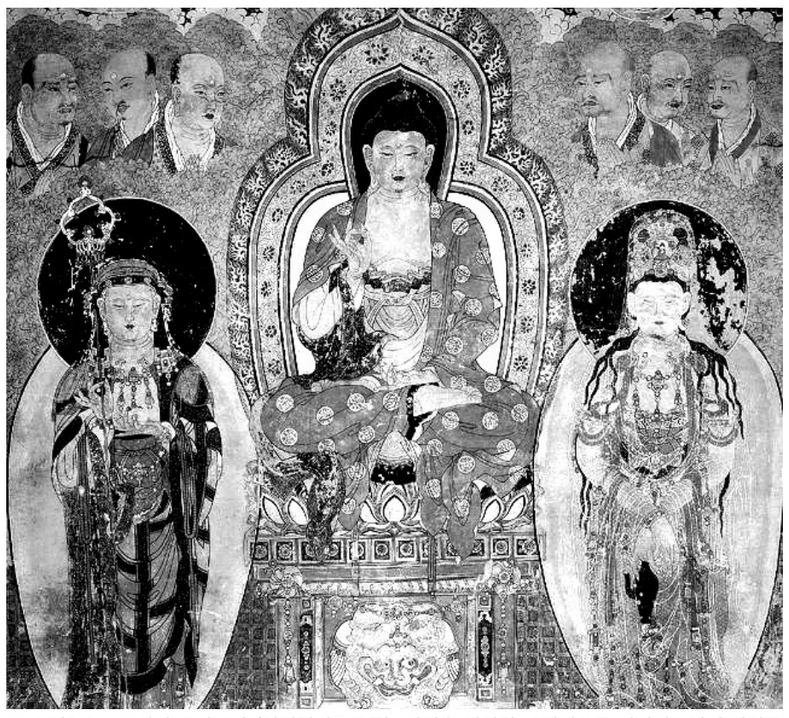
붓다는 수행자에게 길동무[道伴]는 삶의 전부라고 역설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는 같은 길을 걷는 이가 제일의 벗이 된다. 수행자에게는 스승과 도량과 도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셋 중에서 도반은 수행의 도정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좋은 벗[善友]이자 좋은 스승[善知識]이어야 한다. 때문에 도반은 인생의 반려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다. 신라인들은 고유신앙과 불교신앙이 일전(一戰)을 치르고 난 뒤 불교를 수용하여 철저히 자기화하였다. 도솔천에 머무르는 미륵보살을 신라사회 속으로 불러 내렸고, 백제 땅 공주 수원사까지 찾아가 미륵선화를 신라로 데려왔다. 또 황룡사를 역사적 붓다인 석가모니불이 설법하기 이전에 이미 가섭불이 와서 설법하던 곳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 국민이 믿게 하였다. 그리고 이웃의 아홉 나라가 신라에 복속해 오게 하기 위하여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웠다. 나아가 불국사를 세우고 석불사 본존불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 그들은 신라를 불국정토로 만들었다.

때문에 신라인들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남달랐다. 그들은 배우는 범부에서 가르치는 성문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연각과 보살을 넘어 부처가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신라인들은 대상화된 부처에서 주체화된 부처로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곧 부처다' [心卽是佛]는 추상적인 전언(傳言)을 넘어서 '사람이 곧 부처다' [人卽是佛]는 구체적인 확신(確信)을 가졌다. 이러한 믿음 아래 밤낮으로 정진하여 셀 수 없는 부처로서 탄생하였다. 서라벌 안팎과 경주 남산에는 헬 수 없는 부처들이 석불로 환생하고 석탑으로 솟아났다. 또 신라 곳곳의 사찰 법당 안에는 여러 부처들이 봉안되었다. 관음의 화신에 의해 미륵불(노힐부득)과 미타불(달달박박)이 한 국토인 남백월산에서 탄생하였다. 강주(진주)의 미타사에서는 귀진과 그 도반들 앞에서 여종 욱면(郁面)이 부처로 탈바꿈하였다. 『삼국유사』「감통편」의 '광덕(廣德)과 엄장(嚴莊)' 조목 역시 원효(元曉)와 의상(義湘), 관기(觀機)와 도성(道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처럼 도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 분황사 서촌에 은거하여 신 삼는 것을 업으로 삼던[蒲鞋爲業] 광덕은 처자를 데리고 살았다. 출가자들이 신 삼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예는 불교 역사 속에서 적지 않게 보인다. 뒷날 민지(閔漬)는 「일연비문」(一然碑文)에서 일연이 황벽 희운(黃蘗希運)의 제자였던 진존숙(陳尊宿)이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 짚신을 삼아 생업을 유지했던 일을 흠모하여 신 삼는 것을 업으로 삼아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엄장은 그 남쪽 자락[南岳]에 암자를 짓고 화전농사[大種刀耕]에 힘쓰며 살았다. 여기서 남악은 지금의 경주 남산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종'은 '화종'의 오기로 보인다. '화종도경'(火種刀耕)은 산자락에 사는 사람들이 숲의 나무를 베어 불을 사른 뒤 재가 되고 나면 씨를 뿌리는 농법으로 짐작된다.

광덕과 엄장 두 사람은 우애가 깊어 밤낮으로 약속하였다. "누구든 먼저 안양(安養)으로 가거든 서로 알리세." 하루는 석양이 붉은 빛을 띠고 소나무 그늘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엄장의 집 창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제 서방(극락)으로 가네.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 오게나." 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 둘러보니 구름 위에서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밝은 빛이 땅에까지 뻗쳤다. 다음날 엄장이 광덕의 집을 찾아갔더니 과연 광덕이 죽어

광덕, 극락가기를 기원해 지어
수십년 아내 멀리하며 청정행



국보 제313호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도'. 광덕은 아미타 16관법으로 서방정토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유해를 거두어 무덤을 만들고 장사[蒿里,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모두 이곳으로 간다는 중국 태산 남쪽의 땅이름]를 같이 지냈다.

2. 욕망을 이겨내는 것

장사를 다 마치고 엄장이 광덕의 부인에게 말하였다.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소?" 광덕의 처가 이를 허락하고 엄장의 집에 머물렀다. 밤이 되어 (그가) 정을 통하려 하자, 광덕의 처가 듣지 않으면서 말하였다. "스님이 정토를 구하는 것은 가히 물고기를 잡으러 나무에 오르는[緣木而求魚] 격입니다." 엄장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광덕도 이미 그러했는데 나라고 어찌 안 되겠소?" 부인이 말하였다. "남편과 동거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일찍이 한 자리에 눕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다만 밤마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반듯이 앉아서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외면서 16관(觀)을 짓고 마침내 관이 이루어져 미혹을 깨치고 달관하여, 밝은 달이 창에 들어오면 때로는 그 빛에 올라 가부좌를 하였습니다. 정성을 이만큼 하고서도 서방정토로 아니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릇 천 리를 가는 자는 첫걸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니, 지금 스님이 하는 일은 동방으로 간다 하면 옳을지언정 서방정토로 간다 할 수 없습니다." 엄장이 부끄러워 물러 나왔다.

아미타불의 불신과 국토를 관상하는 열여섯 가지 방법인 십육 관법은 『관무량수경』에서 위제희(韋提希) 부인과 다음 세상에 태어날 중생들을 위하여 극락세계에 가서 나는 한 방편으로 제시한 수행법이다. 1) 떨어지는 해를 보아서 극락정토를 관상하는 일관(日觀) 또는 일상관(日想觀), 2) 극락의 대지가 넓고 평탄함을 물과 얼음에 비교하는 수관(水觀) 혹은 수상관(水想觀), 3) 분명하게 극락의 대지를 관상하는 지상관(地想觀), 4) 극락에 있는 보수의 묘용을 관찰하는 보수관(寶樹觀), 5) 극락에 있는 연못의 여덟 공덕수의 묘용을 관상하는 보지관(寶池觀), 6) 극락의 오백억 보루각을 관상하는 보루관(寶樓觀), 7) 칠보로 장식한 부처님의 대좌를 관상하는 화좌관(華座觀), 8) 형상과 관상하는데 나타나는 금색상을 관상하는 상관(像觀), 9) 진정한 부처님의 몸을 관상하는 진신관(眞身觀), 10) 관음보살을 관상하는 관음관(觀音觀), 11) 세지보살을 관상하는 세지관(勢至觀), 12) 극락의 주불인 아미타불과 그를 둘러싼 온갖 것을 관상하는 보관(普觀), 13) 우둔한 이를 위하여 1장 6척의 아미타불상을 관상하게 하는 잡상관(雜想觀), 14) 상치리들이 관상하는 상배관(上輩觀), 15) 중치리들이 관상하는 중배관(中輩觀), 16) 상치리들이 관상하는 하배관(下輩觀)이 있다. 14관 이하는 각기 자기의 깜냥에 따라 적당한 행업으로 왕생할 것을 관상하는 수행법이다.

아마도 광덕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고 닦는 선근인 앞의 정선(定善)의 13관으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의 국토(國土)와 성중(聖衆) 등의 모양을 관상하는 수행을 닦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서 이 13관에다 뒤의 악을 없애고 선을 닦는[散善] 9품의 3관을 닦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법 수행을 통해 광덕은 이성(異性)에 대한 미망을 깨치고 일심(一心)의 진리를 달관하여 극락에 왕생할 수 있었다. 엄장은 그 길로 원효법사의 처소로 가서 도를 닦는 요체[津要]를 간곡하게 구하였다. 원효는 정관법(淨觀法)을 만들어 그를 이끌었다. 여기서 '삽관법'(?觀法) 혹은 '쟁관법'(錚觀法)은 청정한 관법인 '정관법'의 오기로 보이며 모두 정토의 16관법을 가리킨다. 엄장은 이에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잘못을 뉘우쳐 스스로 꾸짖고 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니 그 또한 서방정토로 올라가게 되었다. 일연은 "이 정관법은 (『송고승전』 권4)「원효(대사본)전」과 『해동(고)승전』에 실려 있다. 그리고 광덕의 부인은 분황사의 여종인데 대개 관음보살의 19응신 중의 한 분이다"로 덧붙이고 있다.

관음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33응신(應身)으로 갖가지 모습을 나타낸다[普門示現]. 1) 불신(佛身), 2) 벽지불신, 3) 성문신, 4) 대범왕신, 5) 제석신, 6) 자재천신, 7) 대자재천신, 8) 천대장군신(天大將軍身), 9) 비사문신, 10) 소왕신(小王身), 11) 장자신(長者身), 12) 거사신, 13) 재관신(宰官身), 14) 바라문신, 15) 비구신, 14) 비구니신, 17) 우바새신, 18) 우바이신, 19) 인신(人身), 20) 비인신(非人身), 21) 부녀신, 22) 동목천녀신(童目天女身), 23) 동남신, 24) 동녀신, 25) 천신, 26) 용신, 27) 야차신, 28) 건달바신, 29) 아수라신, 30) 가루라신, 31) 긴나라신, 32) 마후라가신, 33) 집금강신 등이다. 광덕의 부인은 이중 19번째의 응신인 인신(人身) 즉 거토부녀신(居土婦女身)에 해당한다.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의하면 33관음 응신에 대한 19설법상의 일신(一身)으로 해석되며, 『불상도휘』에 의하면 바위에 기대고 바다를 향하여 정적(靜寂)한 모양을 보이는 19번째의 능정관음(能靜觀音)에 해당된다. 이처럼 신라를 불국정토를 만들며 이곳을 미타정토로 삼았던 신라의 수행자들에게 여인들은 관음보살 혹은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현신하였다.

3. 「원왕생가」의 해석

광덕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원왕생가」를 지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작자 여부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 '광덕 엄장' 조목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십구응신지일덕(蓋十九應身之一德)/ 상유가운(嘗有歌云)"으로 끊어 읽으면 '일덕'은 관

아미타 16관법으로 왕생
도반 엄장도 대분심, 정토행

음응신을 가리키므로 광덕의 아내(오꾸라, 양주동, 김종우, 김선기)가 되고, "개십구응신지일(蓋十九應身之一)/ 덕상유가운(德嘗有歌云)"으로 끊어 읽으면 '덕'은 광덕을 일컬으므로 광덕(김동욱, 박노준, 황패강, 조동일)이 된다. 또한 '유가'(有歌)와 '작가'(作歌)가 의미가 틀리다는 입장에서 원효 작자설(김사엽)과 작자 실명설(최철 등)이 주장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광덕설이 더 지지를 얻고 있다. 여러 맥락으로 볼 때 이 노래는 광덕이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더 크다.

"달님, 이제 서방으로 가시어/ 무량수불 앞에 말씀 가져다 전해주오./ 다짐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두 손 모아 비오나니/ 원왕생(願往生) 원왕생 바치오니/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 하소서./ 아아, 이몸 버리시고/ 마흔여덟 큰 소원/ 모두 이루어질까." (양주동 역) 이 시의 어세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이저역'(伊底亦)에 대해 무애 양주동은 '이제'로 보았다. 이와 달리 김완진은 '어째서'로 풀고 있다. 부사 '이제'와 의문사 '어째서'는 이 시의 맛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김완진은 '이뎨=이제', '이적'으로 보는 것이 근사(近似)한 해독(解讀)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사한 데 그치는 독법이라며 두 가지 난점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해서 그는 "달이 어째서/ 서방(西方)까지 가시겠습니까./ 무량수불전(無量壽佛前)에/ 보고(報告)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원왕생(願往生) 원왕생(願往生)/ 두 손 곧추 모아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四十八代願) 이루실까."라고 옮기고 있다. (김완진 역) 하지만 그와 신재홍(애오라지, 아예)을 제외한 모든 학자들은 '이제'로 보고 있다. '이제'로 푸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수행자인 광덕의 가장 큰 장애는 아내와의 세속적 관계였다. 그는 아내와 10년을 살면서도 한 자리에 눕지도 않았다. 부부로서 한 집안에 살면서 살조차 닿지 않고 산다는 것은 범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일 범부와 같은 세속적 삶을 원했다면 그는 애초부터 독신을 고수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수행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열 여섯 가지 수행법을 닦아야만 했다. 광덕은 밤마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반듯이 앉아서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외면서 16관을 지었다. 관법이 이미 잘 이루어지자 달빛이 창문 안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빛 위로 올라가 그 위에서 가부좌를 하였다. "정성을 이만큼 하고서도 서방정토에 아니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아내의 얘기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광덕은 달님을 통해 본래 국왕이었다가 발심 출가한 법장비구가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에게 48원을 세우고 억조 영겁의 수행을 성취한 뒤 아미타불이 된 무량수불에게 원왕생 원왕생 그리워 하는 이 있다고 사뢰어 줄 것을 소망한다. 법장비구(法藏比丘)가 세운 사십 팔대원은 크게 법신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원[攝法身願, 제12, 13, 17원], 정토를 장엄하고 싶어하는 원[攝淨土願, 제31, 32원],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구제하고 싶어하는 원[攝衆生願, 나머지 43원]으로 요약된다. 광덕은 달님에게 아미타불이 자신을 남겨두고 사십팔대원을 이루실 수 있는가 반문한다. 그만큼 그의 수행은 간절하였다. 그렇게 무량수불에게 기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니 광덕의 원대로 왕생할 수 있었다. 「원왕생가」의 바람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의 도반 엄장 역시 광덕 부인의 도움으로 대분심(大憤心)을 발휘하고 원효법사의 도움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잘못을 뉘우쳐 스스로 꾸짖고 한마음으로 도를 닦아서 서방정토로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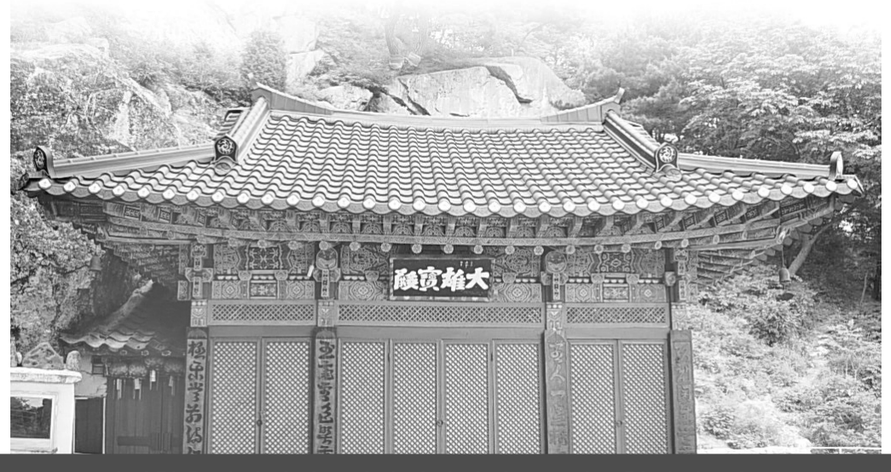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2005; 2007).
고영섭,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한길사, 1997; 2009).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마음 챙기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함 월 선 원 (참선수행)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참나를 찾는 수행공간
생활속 수행을 원하시는
모든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052)243-4900

지리산 청학동 미륵암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및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분들께선 많은연락바랍니다
* 또한암자에서 참선수행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사람 찾음

법명 : 지완(속명:안영재)스님을 찾습니다
아버님은 운명하셨고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니 뵙기를 원합니다
찾는사람 : 형 (안영신)
010-5333-7554

한글본 대장경 구합니다

031)386-1569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아직도 법당에 보살들을 세우시렵니까? 이제 직접 스님들께서 천도의식을 진행하십시오

한국무용 배우실 분
살풀이, 승무, 극락무, 지전무 등등 스님에 한하여 수강해 드립니다
(부산 보성암)
보성스님 010-8510-0108

황토, 상황氣, 참숯, 참솔잎, 뜸,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뜸,
배에는 전단뜸, 앉아서 좌훈뜸,
편안히 무릎뜸, 상황버섯
48시간 달인 물로 황토 반죽
직접 수작업 허리 관절 혈액순환
여성질환 잃어버린 건강 꼭 찾아
장수하세요.
www.wellgang.co.kr
운봉사 011-573-4438

출가자 및 초보부전 (비구니) 모집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음
3년 공부 후
소임부여
010-6429-50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011-9514-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천년고찰 고성 운흥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종무소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강남)
40대 전후, 컴퓨터 사용 가능하신 분.
010-8943-4150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접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전국 지사장 모집

살아수
지마생명공학(주)
1. 쇼핑몰 관리및 홍보
2. 시/군/구 대리점장 모집권 부여
3. 무보증금,무담보,무투자,투잡가
4. 전국 시도별 각1명씩 모집
문의 : 053)768-9532~3 쇼핑몰 : www.살아수.com

비구 부전스님 (50세 미만) 모십니다

(마산)
010-3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34-2198
010-8721-219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계 • 윤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부전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절 운영이나 보살님 절도 좋습니다.
(50대 비구)
010-4668-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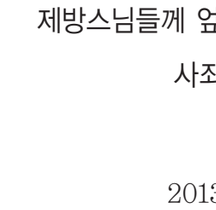
경자생 비구 사찰 및 법당운영 소임 원함

사주명리 명상치유등의 방편력 보유
010-4876-1042
성진 합장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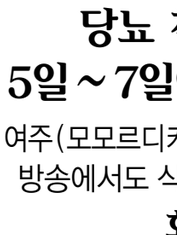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월 14일(목) 저녁반, 3월 15일(금) 오전반, 3월 19일(화)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神내림 받아야 할 운명은 없다



모든 (동자, 조상, 장군)신 등을
처리하고 제도.
전생, 천도, 우울증, 빙의, 산소,
집터, 神내림 해결.
053)623-2202. 010-5159-5778
TV다수출연 (대구 남구 대명동)
네이버 블러그 : 한마음 세성제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규격 : 40 cm * 60 cm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부산청암달마원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포교원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3574-3303

천년고찰 곡성 관음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61)362-4433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용운사
• 주 지 : 지현 (한금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 5동 26-25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6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알 림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2013년 2월2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봉행하기로 한
범종교통합기도회가 불교계에서
모두 동참이 불가하다고 하여 무산되었음을
사부대중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지면을 통하여 각 종단 큰스님 및
제방스님들께 엎드려 깊이 사과의 말씀과
사죄를 올립니다.

2013년 1월 31일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
송진호 정례 합장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소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집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조계종 조용한 사찰에서 물욕없고 수행목적 수행처로 삼을 진정으로 스승을 의지하고 어른 공경히 모시려는 마음 순한 3~40대 건당상좌로 하여 주지로 평생 책임 운영관리할 본종 비구승을 속히 구함. 그리고 음식솜씨 있는 4~50대 포근한 사원을 의지처로 삼을 공양주 속히 구함 (보시는 상담 후 결정함) 지도정진도량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천상기도 20년, 해돋이 기도 12년, 자시기도 1,000일. 태양이 돌라가는 약사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영적문제 고생하는 분 많이 고쳤음.

태양의 기를 받아 달마도를 취향에 맞게 정성껏 그려 드립니다.
영적환자 기도원 건립에 사용하겠습니다.
017-257-6795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 암 역 리 원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02)597-1101 / 011-9150-2284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그 자신을 끌어내듯
- 법구경 -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의왕
- 법당 : 50
- 요사 : 60
- 대지 : 1000
- 종각,가액 8억

- 위치 : 경기
- 법당 : 40평
- 요사 : 100
- 대지 : 700
- 가액 : 15억
- 가액 : 80억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사찰임대
- 위치 : 경남
- 법당 : 17평(목조)
- 요사 : 50평
- 부지 : 2500평
- 전세금 : 3억

- 위치 : 경남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북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100평
- 가액 : 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2천만원 / 월 3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6505-8004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8천 7백 5십만원. 절충가능

054)435-1259

신비의 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 터, 개인소유 400평+국유지임대 680평 합계 약 1,080평
- 시설: 산업사찰법당1동 요사채 1동
- 특징 : 국유지 100만평내외 개인소유 토지로 양 편에 개울과 폭포가 접해 있는 평지. 자궁터로 눈 밝은 운수납자만 주석할 수 있는 청청한 곳
- 가액: 1억 6천만원 (개인토지값만 산정한 것)
- 별장, 펜션, 요양복지 최적지

010-5276-5982

주 택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리
- 대지 약 200평. 건평 약 40평
- 목재 황토 주택 뒤는 산
- 앞 수백리 전망 혐오시설 없음
- 양도가액 : 1억 3,000만원

010-6460-13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 북정동
- 평수 약 50평
- 방3, 부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900만원(절충가능)

010-5716-1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지하철역 근처 서부산권
- 대도로변 ,최고 포교자리
- 평수 150평(3개층사용)
- 법당, 선방, 기도실, 주지실, 친견실, 종무소 등 방 10개, 주차 상당수 무료사용
- 시설비 6천만원(2억투자금액에서 30%만 받음) 등기부 완전 깨끗
- 보증금 1천만원 월 88만원

010-2623-7005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수성구 요지
- 지하철 입구 바로 2층
- 약 30평 •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
- 포교, 상담, 교육 최적지

010-9690-8275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

051)412-04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 평수 : 38평 2층 건물중
- 1층: 공양간 및 방 3칸, 2층 법당
- 도시가스 완비, 전철과 시장 1~2분거리, 시설비 없음
- 가액: 1억 8천 5백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578-49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주시 중앙시장입구
- 4층건물 3층
- 80평. 시설완벽
-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도보 5분
- 소임으로 급양도
- 1000-35-1300

010-5214-7872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서구
- 법당 약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칠성,신중탱화
- 깨끗하고 조용한 산자락 사찰
- 약간의 텃밭도 있음
- 가액: 6천만원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시 묘현면 에버랜드 근처
- 대지 100평, 건물 45평, 화장실2, 방3
- 법당, 삼존불, 산신각, 소불, 지장 등 16나한, 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능)

010-4732-48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100평, 방4개, 화장실, 남 · 여 스님용 공양실 등
- 아미타4자, 관음, 지장, 순금개금, 삼존불 및 법당, 신중탱화, 산신각
- 에어컨80평, 용등3대, 온풍기80평 외 시설완비
- 보증금 4천만원 / 월 85만원
- 시설비 8,000만원

010-4719-5388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산내면
- 소재지에서 5분거리
- 문복산 자락 명당절터, 총 4만평 (임야 3만8천8백, 농지1천2백평)
- 개울물이 철철흐르는 산허리 명당절터
- 전기배설시설은 마을에서 200미터 거리임
- 가액:2억2천만원

010-4856-262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함안군 칠서면
- 건물30평, 법당, 요사채
- 삼존불, 각단탱화
- 아득한동네 뒤편야산
- 가액: 2천5백만원(시설비포함)

010-5386-17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구청 건너편
- 4층 전용면적 45평
- 교통편리, 주차가능
- 올수리, 즉시 입주가능
- 보증금 : 5,000만원(조정가능)
- 관리비포함 월 150만원

010-3772-7514

사 찰 안 내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 2리 부근
- 터 100평, 건평 요사채 25평,
- 창고7평 , 법당 15평, 산신각 2평 주차장 있음
- 터는 1년 문중텃세 5만원
- 가액: 4천 5백만원

010-3810-5908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992번지
- 평수: 906㎡(274평)
- 법당: 47.4㎡(약15평) 요사채(공양간): 52.4㎡(약17평)
- 가액: 1억 3천만원 (상담후 조정가능)

011-579-3889

신축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합천
- 총평수 413평
- 대지 300평
- 대웅전 25평(목조기와 요사채 1동) 창고 1동
- 가액: 2억 6천 5백만원

010-8794-1257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57-24
- 최고급법당인테리어
- 법당내집기, 가구, 소품포함
- 방2, 법당1, 화장실 등 사행활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2,000(조절가능) 월세50만원

010-7767-13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50평, 2층건물중 2층
- 가액: 2천 5백만원
- 삼존불, 관음불, 소불, 각단탱화
- 방1개, 화장실3개, 옥상지하사용가능
- 최고시설, 비품완비, 즉시법회가능

010-2842-6532

도심속의 사찰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평수 : 69평(2층건물)
- 1층: 27평, 공양실 및 방 3개 (도시가스사용)욕실 2개
- 2층 : 27평, 법당, 친견실 방 1개 종무소 4평
- 가액: 3억 4천만원 (은행1억4천 대출가능)

010-6575-171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법당1, 산신각, 용궁 산신, 나한전
- 방3, 공양간, 화장실3
- 전세1억 2천, 시설비2천만원
- 양도가 3억

02)939-4339
010-5299-97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토굴
- 부지 : 2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5천만원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50평
- 양도 : 6억3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건평23평 대지100평외 과수원밭 1.500평(6년생사과나무 250주있음)
- 아주예쁘게지어놓은 황토집이며 법당
-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포교원(급)안내

-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리
- 역전 앞 위치 상권 좋음
- 평수 : 45평 2층
- 보증금 +시설비 2천만원 월 10만원, 방사 2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급한 사정으로 급양도함

054)972-4442
010-6325-2089

사 찰 안 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 전세 1억 5천만원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4178-2700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 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대출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5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 스님들께만 6개월간 명리학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 그동안 제1기에서 제4기까지 전국에서 6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 초보자 위주로 교육하지만 그동안 다른 곳에서 명리학을 배우셨는데 통변에 자신 없는 스님께서는 강의 신청을 하셔서 교육기간동안 적중률이 뛰어난 통변비법을 배워 가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앞으로 사찰 운영하는데 신도들의 확보 문제에서 명리학의 활용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고, 학문인 동시에 살아온 삶들의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사용되는 명리학은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삿된 학문이라고 거부하는 풍토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 이세상 어는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최상의 명리학 비법을 이 기회에 장착하십시오. 스님께 자신감을 드릴 것입니다.

장 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제2장소 : 울산강의실(경상도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일시 및 기간 : 2013년 3월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 신 청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

마크 네포 (미국 철학자 · 시인)

내면은 늘 성장…언제나 '다시 시작' 가능



고통 표현…상처 치유의 약
망설임은 삶의 장애물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매일 텅 빈 그릇처럼 사세요"

엔드게임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래서인지 지상에서의 삶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발휘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무언가가 위기의 순간에 수완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전을 받으면 내면에서 헤밍웨이가 말한 '압력을 받을 때 발휘되는 힘' 이 샘솟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고난의 시기와 고통의 경험을 합리화하거나 비극을 참아내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극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들과 상관없이, 나는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이 우리를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스스로 관여하든 안 하든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자기 존재의 깊은 부분을 새로 돋아난 피부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믿는다.

외부 세계에 부대껴서든 내부로부터 껍질을 벗어던져서든, 우리는 결국 더욱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열어준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진정한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이렇게 진실한 삶을 계속 살아갈까?

암이 격렬하게 내 몸을 관통하면서 나는 열린 삶을 살게 됐다. 이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이후로 나는 열린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위기가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영혼의 도약을 경험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위기에 떠밀리지 않고도 욕망을 계속 초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과거와의 단절과 탈피를 경험한 가장 위대한 순간은 갈비뼈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로 실려갈 때일 것이다. 나는 데메롤 주사로 어지럽고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쳐 가는 병원 천장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며 들것 위에서 되뇌었다.

"죽음이 나를 가장자리로 밀어냈어. 물러설 곳이 아무 데도 없어. 난 두려움을 조롱하듯 죽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신 나게 춤췄어. 한 번도 이토록 자유롭게 춤춰본 적이 없어. 그러자 죽음이 뒷걸음질 쳤어. 죽음이 뒷걸음질 치자 갑자기 불꽃이 일면서 어두운 길이 사라졌어. 이제는 계속 춤추는 것 말고 할 일이 없어. 세 배는 더 용감하게 태어났어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이따금 원치 않는 경험 속으로 깊숙이 떠밀려 들어갈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지 못한 특별한 도약을 통해 활기찬 삶의 중심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깨버리지는 말고

현대의학의 정밀한 기기들 덕분에 요즘에는 기형이나 폐색증에 걸린 태아도 자궁 속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최첨단 기술은 성장이나 치유와 관련해 시간을 초월한 심오한 진리를 보여준다.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 못지않게 놀라운 점은, 아이가 태어나면 수술 상처가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스리면 치료의 결과가 존재의 한 부분으로 체화돼 흔적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간을 초월한 깊은 흐름 속에서 안으로 주의를 돌리는 편이 이미 완성된 것을 부수기보다 훨씬 쉽다.

물론 이미 굳어버린 나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이 흐름을 담아낼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다시 자신과 직면하고 시작할 수 있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방식들을 뚫고 들어가, 이것들을 낳은 연약한 충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완고함의 뼈대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누구 하나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무치는 느낌을 어루만질 수 있다. 두려움의 뼈대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불안해하는 기질을 정화할 수 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의 흔적을 세는 대신, 믿음을 거둬들이게 한 영혼의 상처를 찾아내 입맞춤할 수 있다.

상처 씻어내기

고통을 털어놓을 때면 나는 괴로움과 죄책감에 빠진다. 그렇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가 자기중심적인 잔인한 욕구를 위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어머니와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무엇을 외면했는지 아는 대로 진실을 말해버리면, 어쩐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기 때문이다. 어쩐지 내 고통을 꾸며대는 것만 같고, 부모님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이 그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흔들림 없는 분명한 진실이 있다. 나는 결코 이야기를 꾸며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기분 나빴던 일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지침으로 삼는 것은 정확성과 정직뿐이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다. 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을 자처하지도 않았다. 소년 시절 매를 맞거나 놀림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생의 후반기에 학대당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실 다른 경험을 했다면 내가 하는 말도 달라졌을 것이다.

고통에 대한 나의 책임과 고통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은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는 고통에 대한 표현이 실제와 맞아떨어질 때 일어난다. 왜곡이나 착각이 들어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실은 깨끗한 붕대처럼 상처에 먼지가 들러붙는 걸 막아주고 상처를 치유해준다.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약이다.

거침없는 삶

49년 동안 나의 기쁨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장애물은 바로 망설임이었다.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그 모든 의미와 함께 계속 흘러갔다. 그렇다고 언제든 충동에 따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이것을 부정한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실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작은 망설임, 이 작은 저항은 삶을 불분명하고 아득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나도 이 점을 거듭 깨닫고 있다.

호흡할 때마다 아무것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든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내면에 무엇이 있건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경험에 헌신하라는 의미다. 매일 텅 빈 그릇처럼 살려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의미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이야기인데, 삶은 안과 밖의 교통이 순조로워야 한다. 호흡은 이 점을 되새기게 해준다. 무언가를 받아들여 그 영향을 느낀 다음, 다시 이것을 내보내면서 자신의 느낌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머리와 가슴을 정화하는 영적인 수행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삶의 욕구가 커질 때 작은 새의 옆구리에서도 날개가 돋아남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자신이 짠 촘촘한 감옥에 신물이 났을 때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온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수평선에 잇대어 있는 노란 리본을 먹고 싶은 갈망에 홍학들이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빡빡한 고치 안의 삶에 염증이 나는 순간 우리의 얼굴에서 열정의 기운이 사라짐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외로움을 토로했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랑을 향한 여정이 시작됨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작은 날개처럼 평화가 싹틈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실제로 충분히 무르익으면 모든 노력은 모종의 탄생처럼 세상에서 파문을 일으킨다.

나눔으로 커지는 힘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기다리는데 두 명의 사업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승진했다는 희소식을 전하자, 다른 사람이 축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 힘을 내. (More power to you)"

익히 들었던 표현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다르게 들렸다. 축하의 말치고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을 빌어줄 때처럼 힘을 더 가지라는 말 같았다. 물론 타인들에게 세속적인 힘이나 내면의 힘을 빌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세속적인 힘은 일이나 사람, 상황을 장악하는 힘, 즉 통제력을 의미하는 반면, 내면의 힘은 더욱 커다란 어떤 것의 일부가 됐을 때 생기는 소통력을 뜻하기 때문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축하해준 사람이 의미한 것은 세속적인 힘이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말해 더욱 강한 통제력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혼란을 불러오는 흔한 힘이다. 무언가를 더 원하는 마음은 언제나 결핍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더욱 강한 힘을 바라는 마음은 사실 무력감에서 생겨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유의 땅에서 언제나 사적인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소리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얻는다고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한 잔 더 마신다고 공허감을 달래지는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홉 살 대 자주 하던 골목대장 놀이가 생각난다. 예닐곱 명의 아이들이 언덕을 찾았다. 언덕은 높을수록 좋았다. 게임의 목표는 언덕의 맨 꼭대기에 홀로 서는 것이었다. 한 아이가 꼭대기 점령하면,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몰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게임은 세속적인 힘을 쟁취하기 위한 훈련과도 같았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자리가 언덕 위의 왕 자리다. 철저하게 혼자라서 과대망상증에 걸릴 수도 있고,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우며, 끊임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직업에서 여자, 시세 좋은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이 언덕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언덕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데 급급해서 경치를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이 놀이가 나는 싫었다. 왕이 되면 속이 팽팽하게 긴장됐고, 왕이 되지 못하면 슬펐으며, 놀이를 거부하면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양상은 평생 계속됐다. 피곤함에 찌든 어른이 된 지금은 낮은 언덕이라도 힘들게 오르고 나면 외롭고 무력한 기분에 누구라도 뒤따라 오기를 은근히 바란다. 함께해야만 더욱 힘이 난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준비가 된 것이다.

믿음에 이르는 길

누구나 고통에서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아직 상처를 받지 않았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온전히 겪어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트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물 위에 뜨기 위해 버둥거리면 상황만 더욱 악화된다. 깊은 바닷물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바다에 빠졌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보다 더욱 큰 흐름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호수에 떠 있는 낙엽들은 이런 순응이 우리를 어떻게 떠 있도록 해주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면서 주변을 유영하는 나뭇잎들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삶에서도 몸을 움츠리거나 팔다리를 버둥거리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만다는 것을. 몸을 쭉 펴고 가만히 있어야 소용돌이치는 사건들 밑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 축복의 바닷물이 우리를 인도해준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자신이 사는 대양을 보지 못하듯, 우리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 글은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흐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선현사 부설
제1기 용천불교대학
작법반 학인 모집

선현사 부설 용천불교대학에서
작법반을 수강하실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내용 : 요잡바라, 천수바라, 나비춤 (3개월 과정)
◐ 개 강 일 : 2013년 2월 5일
◐ 교육시간 : 매주 月요일 오후 2시~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원 구비),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43)211-4782. 011-9844-1800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선현사 의식 교육원

선 현 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654번지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1급 · 2급 지도사 과정 모집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3~4월 60시간 ▶1급 : 5~6월 80시간
교육 참관, 워크숍, 명상수련복,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85 용비어천가 1340호

제1기
한국불교 전통의식
(범음범패) 학인 모집
1 강의 내용
1) 기초반 : 3개월
– 종성 · 향수해례 · 사성례 · 천수경 · 행선축원 · 사시불공
– 요령 · 목탁 다루는 법.
2) 중급반 : 9개월
– 49재 및 천도재 · 각종 시식 등
– 태징 ·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3) 고급반 : 6개월
– 바라(천수 · 사다라니 외) ·
– 작법(도량게 · 다게)
4) 연구반 : 위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함.
2 개강일시 : 2013년 3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 5시)
3 접수일자 : 수시 접수
4 모집인원 : 10명
5 회 비 : 월 10만원 / 3개월분 선납 / 교재비 3만원 별도.
6 대 상 : 스님 · 포교사 및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등.
7 연 락 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615-3 불지사 梵音佛敎大學
★ 지도) 승범 · 원광 / H·P 010-9368-0209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5백 명 도둑 사성제 법 듣고 아라한 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6)

5백 도둑의 사형 막은 부처님의 제도

사위국과 비사리국의 두 나라는 원한이 있어서 늘 서로가 노략질하고 괴롭혔다. 사위국의 왕이 생각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 마땅하다. 어찌 백성을 괴롭히는 도둑들을 놓아두겠는가.'

왕은 곧 장사에게 칙명을 내렸다.

"그대는 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둑들을 잡아오라."

이때 사위국의 비구가 안거를 마치고 비사리로 가던 중에 길을 잃고 도둑들의 소굴에 떨어졌다. 비구들이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도둑들이 대답했다.

"우린 비사리로 갑니다."

비구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도 비사리로 가는 길인데 길을 몰라서 그러니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도둑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도둑이라 험한 길로만 다니는데, 그대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따르겠단 말이오?"

비구들이 다시 청했다.

"괜찮습니다. 길을 몰라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오."

이때 사위국 왕의 장사와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비구들과 도둑들을 한꺼번에 붙잡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이놈들이 모두 도둑떼들입니다."

왕이 말했다.

"먼저 비구들을 데리고 오너라."

다시 왕이 말했다.

"그대들은 출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도둑이 되었는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도둑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으로 함께 따라다니게 되었는가를 비구들이 자세히 왕에게 말했다. 그러자 왕은 비구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왕은 다시 도둑들에게 물었다.

"저기 비구들이 너희와 같은 무리가 아니더냐?"

도둑들이 대답했다.

"저희와 같은 무리입니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말했다.

"도둑들을 데리고 가고 비구들을 다시 불러오너라."

왕이 비구들에게 다시 물었다.

"비구가 거짓말을 하다니. 그것도 관청을 속이다니. 도둑들은 너희가 그들과 같은 무리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어째서 아니라고 하느냐?"

하지만 비구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대답하니 왕은 할 수 없이 비구들을 석방했고, 도둑들만 법대로 다스리도록 했다. 5백 명의 도둑들은 곧 사형에 처해지게 됐다.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게 된 도둑들은 크게 울부짖었다.

이때 멀리서 부처님이 도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물으셨다. 아난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이들은 5백 명의 도둑들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죽이려 하니 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백성들의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여야 하거늘 어떻게 일시에 5백 명의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라고 하여라."

아난은 명령을 받들어 바로 왕에게 갔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왕이 말했다.

"존자시여, 저도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도 죄가 많거늘, 하물며 5백 명을 죽이는 것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다만 자주 마을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노략질하기 때문이니, 세존께서 그들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석방하여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아난이 돌아와 부처님께 왕의 말을 전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왕에게 석방만 하라고 말하여라. 내가 오늘 이후로 다시는 그들이 도둑질 하지 않도록 하리라."

아난은 부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해 먼저 형장의 감독자에게 말했다.

"이 모든 죄인들은 세존께서 이미 구하셨으니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왕에 갔다.

"세존께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즉시 도둑들을 세존께 보냈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도둑들을 제도하려고 땅바닥에 앉아 계셨다. 도둑들이 멀리서 부처님을 뵙자 결박이 저절로 풀렸다. 놀란 그들은 땅에 엎드려 부처님 발아래 예배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을 살피시고, 그 인연에 따라 보시와 지계와 행업, 보응, 괴로움, 쌓임, 사라짐, 도의 네 가지 진리의 법 등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로 5백의 도둑들이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기꺼이 출가하지 않겠느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만약 일찍 출가했더라면 이런 괴로움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 저희를 출가하도록 제도하여 주십시오."



삽화 · 강병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들아."

이때 5백 명의 도둑들이 온몸에 걸쳤던 옷이 변하여 세 가지 옷(三衣)이 되었다. 또 발우와 거동이며 차림새가 저절로 백 살 된 오랜 비구와 같이 변하면서 모두가 아라한이 되었다. (〈마가승기율〉 제19권에 나온다.)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수다원과(須陀洹果)

성문사과(聲聞四果)의 첫 번째 경지.

※성문사과(聲聞四果)

성문들이 수행으로 도달하는 네 경지를 말한다. 단계는 수다원과(須陀洹果) · 사다함과(斯陀含果) · 아나함과(阿那含果) · 아라한과(阿羅漢果)이다.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⑥



인연의 소중함

추억의 집

내가 살던 집은 지금도 이웃에 있다. 한때는 그 집에서 행복 했었다. 결혼하여 처음 장만한 넓은 마당의 작은 기와집이다. 서른이 갓 넘었던 그때, 나는 그곳에서 연년생 네 아이들을 키웠고, 불교를 모르던 젊은 또래들을 모아 '연꽃모임'을 만들었다. 불심으로 불붙은 나와 도반들은 우리 집에 모여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가끔 큰스님을 모셔 법회라도 할 때면 잔치하는 기분이었다. 그 때 매일 손님맞이로 신이 났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감히 종정스님이셨던 윤고암 스님을 너무도 격 없이 공양을 청했고, 스님의 잔잔한 미소와 자비로 들려주신 설법을 들었던 일이다. 그리고 일타 큰스님께서도 다른 집 부탁 다 물리시고 꼭 우리 집으로 오셔서 공양하시고 우리를 위해 법문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범어사 수계 산림 법회가 있을 때 마침 일타 큰스님 생신날이어서, 증명법사 스님 모두가 우리 집에 오셔서 공양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음식 솜씨도 없는 사람이 정말 겁이 없었지 싶다.

작은 화분 하나가 사라진 세월 간직해 줘
내 앞에 다가온 모든 것 '공부'
알아보지 못하고 짓는 업 많음 알아야

훗날 그 집이 너무 협소하고 불편해서 새로 지을 때, 일타 큰 스님께서 상량 목에 글을 써주셨다. 그 외 혜암 전 종정 스님, 현 법전 전 종정 스님, 자운 대율사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그리고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법정 스님 혜정 스님 등 많은 큰스님들이 다녀가신 그 도량을 팔고 나올 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복에 넘치는 인연을 짓게 된 고마움 때문이다. 다행이도 그 집은 '혜림사'라는 현판을 걸게 될 스님이 오셨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스님들의 귀한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기에, 그 집은 나의 젊은 시절 꿈이 살아있는 추억의 도량이다. 그러나 최근에 그 동네 모두가 재개발로 어수선 해졌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스님도 거처를 옮기셨다. 세월의 흐름 속에 모두가 변하지만 실로 섭섭한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오랜만에 그 집에 다녀왔다. 오래 전에 산에서 가져와 돌담 벽에 부쳐두었던 콩 난이 담장이처럼 넝쿨이 되어 담장을 덮었고, 뜰에는 내가 심었던 차나무와 동백나무 다른 여러 가지 나무들이 훨씬 커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 집은 너무나 쓸쓸했다. 적막해진 집을 보자 옛날 생각이 났다. 많은 도반들과 스님들로 북적이던 집이었는데…. 그 때 오셨던 스님 중에는 고암 종정 스님과 자운 스님 일타 스님 혜업 스님 등 입적하신 스님들도 있으니 세상사 '무상'임을 새삼 느꼈다.

이제 어렸던 우리 아이들이 서른이 넘었으니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고 집의 모습도 변했지만 내 가슴에는 그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날마다 법우들이 찾아와 부처님 이야기, 절 이야기, 스님들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냥 행복 했던 그 때가….

마당의 차나무 한그루와 콩 난을 가져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화분에 심었다. 세월은 사라져갔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그때'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은 진해지는 것 같았다. 작은 화분 하나가 지나간 시절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이 소중한 것을 새삼 느낀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간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화분 속의 나무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그 추억의 그 시절을 간직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잡초를 뽑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 집 베란다 작은 화분 하나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름 모를 싹이 자랐다. 잡초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그 풀을 뽑아냈다. 뽑아들고 보니 내가 직접 심은 것이 아닐 뿐 이 역시 흙이 낸 생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한참을 손에 잡힌 잡초를 바라보며 나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입에 달고 살면서 그렇게 '내 것'과 '아닌 것'에 분별이 확실하며, 생명에 대한 생각이 가벼웠을까. 정말 부끄러웠다.

알지 못하는 인연도 인연이다. 그 꽃씨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날아온 씨앗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그 틈새에서 생명을 키웠다. 말할 수 있는 있는 것, 소리 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만이 생명은 아니다. 입으로 나불대던 공부는 다 어디로 갔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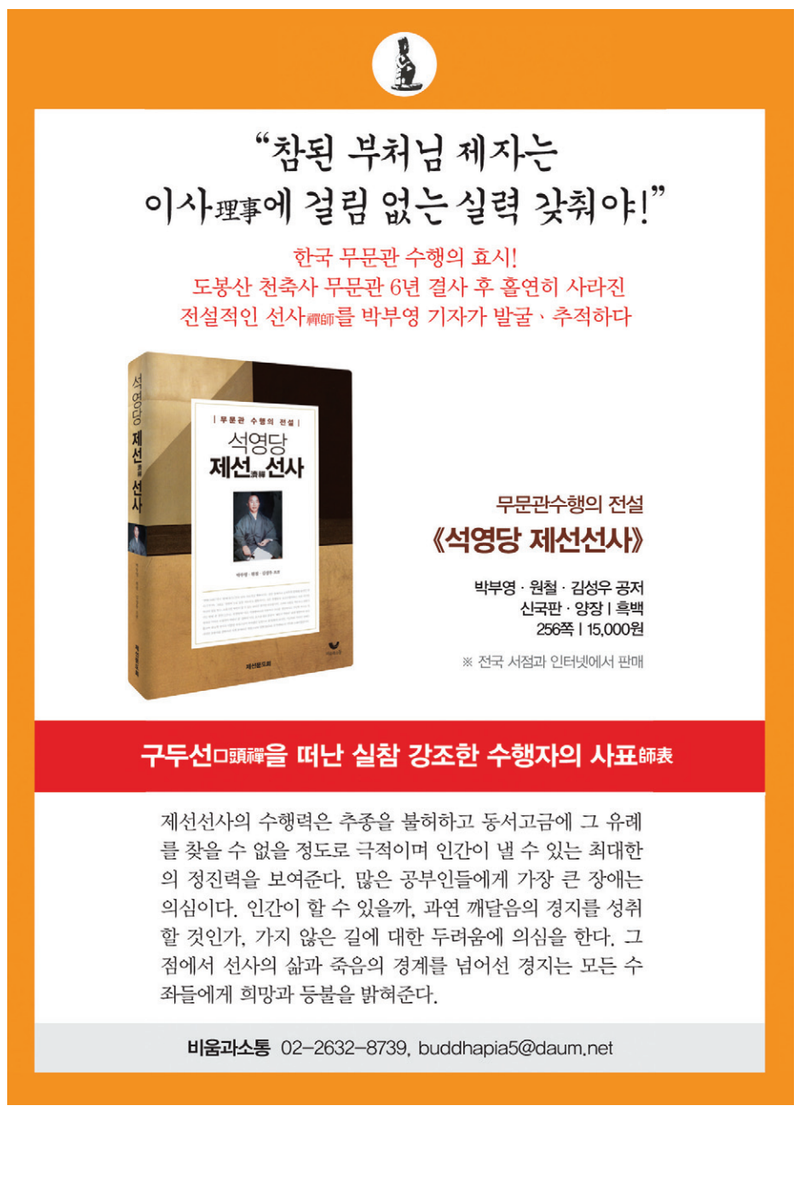
반나절을 잡초 생각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 짧은 순간에 이뤄진 '내 것'과 '아닌 것'의 분별심을. 공부는 책 속에 있지 않았다. 또 말(言) 속에 있지도 않았다. 공부는 내 앞으로 다가온 모든 것들이 공부였다.

길을 가다가

트럭에 실린 어항을 보게 되었다. 어항 속에는 작은 새끼 오징어와 전어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다. 바다에 살던 이들은 바깥세상을 보고 어떤 마음일까.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유리벽에 부딪히며 어항 속을 맴돌고 있다. 어항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이 나의 식탁 위에 오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알아보지 못하고 짓는 업이 너무도 많음이며, 그것이 '미혹'일 것이다. 죽음을 반기는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곳을 지나오면서 광명진언과 나무아미타불을 외웠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어떤 게 닥치더라도 대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하여튼 여러분이 천당에 가고 안 가고, 또 도리천으로 행하는 일이 되고 안되고, 이거는 전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갖지 마세요. 어떤 게 닥치더라도 대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굴 믿겠어요? 대신 살아 주는 사람이 있나, 대신 아파 주고 죽어 주나, 대신 먹어 주나, 배불러 주나 뭐, 잠을 자 주나, 똥을 눠 주나. 아니, 하나도 대신 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지 누굴 믿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생각 사이에, 한 찰나 사이에,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도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도는 횟수를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컵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이런 거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찾으면 원심이 되는 겁니다. (컵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이런 거 하나에 코드가 다, 촘촘히 끼워져 있어요. 그건 이제 법으로 나가는, 천차만별로 나가는 길이죠. 그런데 자기의 원심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고, 또 죽을 때는 지장이 필요하고, 죽는 걸 살릴 때는 칠성이 필요하고, 산에는 산신이 필요하고, 물에는 해신이 필요하듯이, 각각 소임을 맡아서 하는 종류가 여기 쫙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찾으면 다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죠. 줄창 아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줄창 성한 것만도 아니고, 잘되는 것만도 아니고 잘못되는 것도 있고, 가지가지로 모든 게 (컵받침을 들고 가리키시며) 여기에 달려 있는데 상황에 맞게 코드를 끼우면 여기에서 자유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나와서 용도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프면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못살면 '못살게 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살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관하는 것도 그 코드를 끼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거를 다, 용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거기에다가 관해서 대치를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쫘악,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듯 그냥 쫙 나가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원자로 집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허공에도 이 생명들이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지 생명이 없다면 무슨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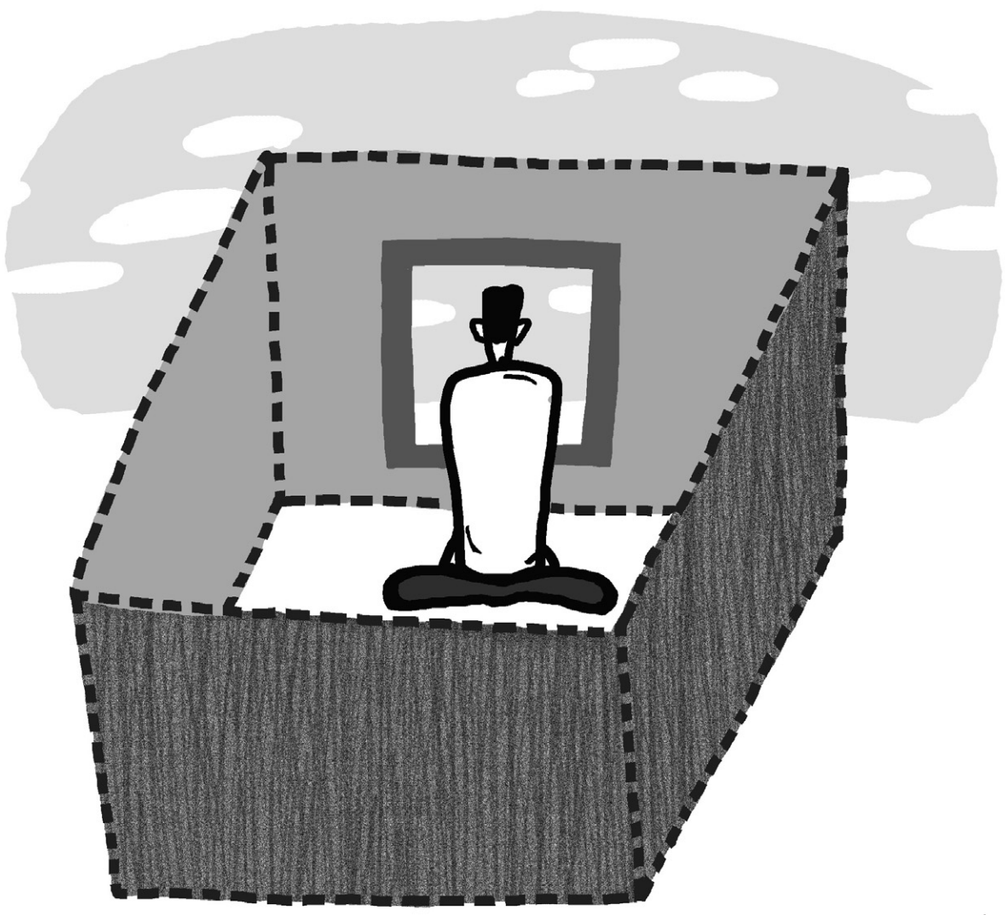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장보살이 그랬다면서요? '다 승천하게 만들고 내가 나중 가야겠다.' 하고 문고리를 잡고선 아무리 끝날 때를 기다려도 끝이 나지 않더래요. 좀 간 사람은 더 가고, 갓 젖 떨어진 사람은 또 다가오고 이러니까 뭐 끝날 사이가 없죠. 그러는 반면에 지장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사는 것이 끝없는 진리로구나. 나는 몸이 있든 없든 소임이 이거니까, 지위가 이거니까 그대로 거기까지 이끌어 주기 위해서 영원히….' 그것은 영원히 들어가고 나가고가 없죠. 자동적으로 들고 나는 데에 손색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이가 얼토당토 않게 말을 하는구나. 저이가 알고 그러는 건가, 모르고 그러는 건가.' 하고. 허허허…. 때로는 그럴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요, 그렇기도 해요. 나는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 봐도 믿질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리고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책을 보고 경을 보고 배운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난 하도 무지랭이라 알 수가 없죠. 경을 본 것도 아니고 읽은 것도 아니고 통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사람 사는 이치의 진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지금 변천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가 뭐가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비구니 보고 다섯 살 먹은 사미한테 절을 하라고 시킨 것은 그땐 아만이 많은 여자들이 비구니가 됐으니까 그렇게 방편을 썼지만 그 후에 '공부하는 데는 여자 남자가 따로 없느니라. 시대가 변천하면 그것을 다시 고쳐도 좋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부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 거 같습니까? 하다못해 물고기 하나라도 불성이 다 있고, 불성이 있는 거는 다 똑같지만 자기의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다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뿐이죠.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죠. 아들 사 형제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대요. "내가 죽걸랑은 관에 넣어서 물에다 갖다가 넣으면 물이 갈라지면서 받아들인다. 그러니 그렇게 해 다오." 했단 말입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이 공부를 능숙히 다 하신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천자. 아니, 그럼 이렇게 그냥 말해 버리죠. 죽은 세상의 천자요. 허허허…. "그래야 나는 내 길을 찾아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다오." 그랬는데 아들 체면에 "아버지를 물속에다 넣었다고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유언한 말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 아들이 다 안 듣고 모두 밤을 새우다가 곯아떨어져서 자니까 막내아들이 몰래 지게를 갖다 대곤 그냥 관을 얹어 가지고 가서 강에다 넣었어요. 강에다 넣으니까 물이 쫙 벌어지면서 그냥 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고는 막내는 얼른 그냥 헐레벌떡거리고 들어와서 자는 척 하고 있는데 아, 뭐 아버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 세 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짚으로다가 만들어서 옷을 입혀 가지고 관에다 넣고 돌을 넣고 적당히 해서 초상을 다 치뤘단 말이야. 치뤘는데 큰아들이 한 달 있으니까 죽고, 또 한 달 있으니까 둘째가 죽고, 또 한 달 있으니까 셋째가 죽고 아, 그 넷째만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수들이 아이구, 이거 큰일났다고, 우리 막내까지 다 이거, 한 달 있으면 또 죽을 거 아니냐고 해서 족보를 짊어지워 가지고는 바깥으로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며느리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막내아들이 족보를 짊어지고 이제 먼 길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말을 다 하려면 기니까 생략하고 합시다. 어떤 길을 가다 보니까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묘지로 보이질 않고 집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저기 좀 가 보자."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더랍니다. 따라 가니까 가는 길목에, 소 세 마리가 쭉 매달려서 음매 음매 하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래서 "저 소가 어쩌면 저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하니까 "저건 네 큰형이니라. 저건 네 작은형이니라." 그래, 삼 형제가 다 거기 소로 돼서 와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소 모습을 가지고 한평생 좀 살아 봐야 알 거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일체제불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듣질 않았다, 법을 어겼단 얘기죠. 그러니까 한 철은 소 모습으로 살려야 되겠다 하니까, 즉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저승 천자라고 할 수 있죠. 저승 천자라는 게 말이 안 나와 가지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상대의 잘못을 덥석 껴안아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해요

☞ 29면에서 계속

아까 그랬죠. 하하하…. 그래서 그 아들이 "이래도 인연이 된 자식이고 저래도 자식인데 어째서 아버님은 그러십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 형님이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가 제대로 오시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오시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될 거는 꼭 되니까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인도환생해서 다시 나가서 살게 해 주시라고 하니, 그때서야 고개를 젓고는 웃으면서 말을 듣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남을 섭섭지 않게 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뭐, 다른 세계로 또 태어나서 대통령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부통령 노릇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는 절대 못해!" 이러는 게 아니고 연방연방 바뀌지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뭔가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는 것이 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하게 산다고, 또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여하게 산다고, 그 자연적으로 들이고 내는 게 그냥 걸림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생각 사이에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뭐 다 상세계에…, 아이, 웃고 있네요, 모두. 하하하.

(질문자를 향하여) 어쩐 일이에요?

질문자1(남): 큰스님, 저희 두 부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예. 알겠군요, 부인을 보니까.

질문자1(남): 예. 저희 부부는 현재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나이가 지금 오십 중반에 들어 있고 큰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실천을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업보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인과에서 오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큰스님께 당돌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두 사람 밑에 아이들이 넷이나 있고 저희들 나이가 지금 오십다섯이 모두 넘었는데 최근에 와서 집사람이 늘 저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대문 밖을 나가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이 다 같이 직장을 나가도 저 사람은 직장에 근무하는 도중에도 온통 내 생각만 합니다, 남편의 생각….

큰스님: 행복하시군요. 허허허….

질문자1(남): 저 사람이 현재 어떤 여자하고 노닥거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 직장에다 전화를 하루에 골백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네가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왜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에 전화가 저토록 오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도 해결이 안돼서 지금은 아예 저희 학교에 와서 정문 앞에서 딱 기다립니다.

큰스님: 허허허….

질문자1(남): '이 사람이 어느 여자하고 놀아나는가를 내가 꼬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나는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 하나님 앞에도 맹세를 하지만 내가 죄가 되지 않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믿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자기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내가 왜 당신을 이렇게 못 믿고 자꾸 따라다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근 2년 정도 끌고 오는 증세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조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이 지독하게 미워집니다. 이제 와서는 부부라도 차라리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극도의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스님께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는 것이
> 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하게 산다고
> 또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여하게 산다고
> 그 자연적으로 들이고 내는 게 걸림이 없다고
> 이렇게 하시면서
> 한생각 사이에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

큰스님: 아주 간단해요. 허허허…. 지금 그런데서 행복하다 못해 지겹죠? 사랑은 주는 게 사랑이지 끌어 잡아당기는 게 사랑이 아니야. 모든 거를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모든 거를 자기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없었다면 남편도 없고 다 없어. 그런데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 잘하든 못하든 자기 탓으로 돌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묶어 놔 보세요. 더 끊고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냥 확 풀어 놓으면 아주 자동적으로,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상상하고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그냥 다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똑같이 그러란 말이에요.

똑같이, 부인이 잘못하는 거는 남편이 '이것도 다 내 탓이야. 주인공, 너만이 저 사람 그렇지 않게 해.' 하고 자유를 주고, 또 댁은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서 자유를 줘. 주인공은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를 가서 뭘 행해도 그냥 주인공에서 알아지고 주인공에서 자동적으로 다루어 줘. 다스려 준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자기가 말로 행동으로 온통 붙잡으려고 하니 붙잡아지나, 그게?

질문자2(여): 자꾸 미운 짓만 가려 가면서 해요.

큰스님: 이거 봐! 우연히는 없어. 이 세상에 금은 금방에 모이고 넝마는 넝마전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전에 모여.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 거야. 응? 끼리끼리 모였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고, 누구의 죄는 더하고 덜하고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하, 이것도 내 탓이고 저것도 내 탓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걸림이 있고 무엇이 상대가 있으랴.' 하곤 그냥 다 거기다 놓으라고 지금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거기다 놓고 미워도…, 그 밉다는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밉다고, 아주 보기 싫다고, 또 그냥 아주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하면 당신이 외려 마구니가 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미운 것도 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밉지 않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뒤집어서 돌려서 입력을 해야 그 입력 들어간 대로 나오지.

질문자2(여): 큰스님! 제가요, 이분과 결혼한 지 26년이 됐는데 저한테 봉급을 안 줬거든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팼는지 정신이 이상해지고, 제가 아직껏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학교 교장한테 가서 얘길 하거든요, 제가요. 그러면서 스님 법문을 밤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5시까지 카세트 듣고 비디오 보고, 이거 다 옳고….

큰스님: 이거 봐. 그러면은,

질문자2(여): 예.

큰스님: 그러면은 발길로 그냥 쾅 차서 버려. 허허허….

질문자2(여): 미워 죽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안 보면 또 안 돼요.

큰스님: 아니,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날 미워하시겠지만 한마디 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남을 곯리다 보면 당한 사람이 또 본인을 곯려요. 그러니까 제발 한 식구가 화목하게, 아버지 노릇 잘하고 어머니 노릇 잘하고, 남편 노릇 잘하고 부인 노릇 잘하세요. 한 집안에서 부부지간에 이러면 자식들이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던 게 자꾸 입력이 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런 짓이 나오는 걸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못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똑같아요. 응, 똑같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이렇게…, 왜 남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덥석 껴안아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제 이 시간부터 서로 미워하지 마시구요. 미워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세세생생을 또 그걸 둘러요. 그 인연이요, 영 안 떠나요.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겠다, 내가 그랬으니까 네가 그런다 이러고, 요다음에 또 만나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사회자: 질문이 없습니다.

큰스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이치를 얘기했으니까 이치를 아셔서 그대로만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다음에 돌아가셔도 6대, 7대, 8대, 9대 후손까지도 다 보살필 수 있고 역대 조상님을 다 보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구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 보면 자연적으로 터득을 하시게 돼요. 터득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인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계가 항상 빠지고 돌아가거든요. 정신계가 빠지고 돌아가니까 화두를 잡아도 '이게 뭣고? 이 몸뚱이가 뭣고?' 하고 몸뚱이 화두를 잡는단 말이야. 몸뚱이가 나로 인해서, 바로 내 자신으로 인해서 형성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 시대를 그저 걸림이 없이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뭣고?' 한다면 이건 몇천 년 전에 '이게 뭣고?' 한 거와 지금 '이게 뭣고?' 한 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 진전이 하나도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줄 잡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야만야한 데를 올라가죠. 아무리 천야만야해도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재차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줄이 우리의 자성불, 바로 그 줄이에요. (합장하심) 이제 생각들 잘 하시겠죠? 누구나가 좋은 데로 가게요.

대중: 예.

큰스님: 그리고 '천도는 왜 자꾸 하라고 그러나?' 하겠지만 천도는 차원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천도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빌려다가 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밥 굶고 그거 갖다가 하라고 안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 요다음에 생기걸랑은 하자.' 하고 생각하면 바로 그게 거기까지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빌리거나 이래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하고 정히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못하는 대신에 '돈 생기면 해 드려야지.' 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회자: 다음은 법형제를 대표하여 본원 회장님께서 합동 천도재를 위한 발원문을 올리겠습니다.

신도회장 발원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만시지탄(晩時之嘆)의 감회를 되새기며 오늘 우리 법형제들이 한마음 주인공 자리로 하나가 되어 지극 정성으로 대행 큰스님을 모시고 영가님들을 위한 천도법회와 천도재를 봉행케 되었으니 영가님들께서는 부디 감응하시고 극락왕생하소서. 만나면 헤어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야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법형제들은 전생의 다겁생의 인연으로 대행 큰스님 문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도반으로 법형제의 연을 맺고, 돈독한 신심과 각별한 우의는 혈육의 형제와 다를 것이 없건만, 우리 곁을 떠나 영원의 세계로 가셨으니 유족들의 슬픔이야 헤아릴 길 없겠으나 우리 법형제 형과 아우들의 마음 한구석 또한 허전하기 그지없나이다. 영가님들께서는 이 생에서 못다 한 일들 다 잊으시고 끊임없는 집착을 훌훌히 털어 버리고 대자대비하신 제불보살의 한마음 주인공 원력으로 아미타부처님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시어 세세생생 법락을 누리소서. 영가들이시여, 남은 유족들과 법형제 형 아우들 모두 건강하게 원하는 일 다 잘 이루어지고 돈독한 신심으로 대행 큰스님의 가르치심, 위없는 깨침의 언덕에 이르도록 음덕을 베풀어 주소서. 다시 한 번 서방정토 아미타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합장 축수하오며, 법형제 영가님들께서 극락왕생하시고 대자유인으로서 소원을 다 이루시도록 발원하노니 부디 감응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사회자: 사부대중께서는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일체제불의 마음'이 있겠습니다.

(법회 후 합동천도재 봉행)

※위 법문은 1998년 1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어글리 코리안' 오명 언제까지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동남아시아에서 성매매 관광의 1위가 한국인이라는 실태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한국형사정책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단지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성매매에서도 한국 남성이 단연 독보적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해당 국가의 단체활동가들은 동남아 여성들 특히 아동들이 생계를 위해 한국인을 위한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글리 코리안.'

동남아시아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추악한 한국인의 이미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한국 남성의 성관광, 아동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비하, 비인간적인 태도가 문제된 바 있다. 남태평양 키리바시라는 섬나라에서는 한국인 선원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여 성매매청소년을 가리켜 '꼬레꼬레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베트남에서는 성매매 혐의로 한국 여행객이 추방된 일도 있었다.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한국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매매 남성들이 음란물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적이거나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거절하면 약속한 돈을 안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들 성매매 남성들은 골프 투어 또는 휴가를 위해 방문한 여행객들만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 일시 방문한 사업가들, 그리고 어학연수를 위해 체류하고 있는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이다. 왜 성매매를 하는가?

"성매매를 나만 안할 수는 없어요"

"이성적으로 성매매가 나쁜 건 원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가게 되는 것이죠."

"과연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건 필요악입니다."

성매매가 범죄로 규정된 국내에서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초범인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교육'이라는 재범방지 교육을 받게 되는 데 교육장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다.

이들은 '밖에 나가면 지금도 버젓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속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다 잡아야지, 왜 선택적으로 단속을 해서 억울한 사람 만드느냐'라며 항의를 한다. 성매매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성매수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남성 두 명 중 한 명은 최소한 1회이상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변에서 성매매 해보자라고 제안할 때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혼자 깨끗한 척 한다'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혹은 '남자답지 못한 태도' 등 적대감과 따돌림,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예상되어 어쩔 수없다고 한다.

성구매는 남성들 간의 집단성과 결속, 연대를 확인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지여행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알고 있음에도 관광산업을 국가의 주된 수입원으로 여기는 국가들의 방치, 그리고 아동 성매매 관광객들에 의해 쓰여진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 등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성매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국가들에서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은 값싸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 관광 산업이 번성한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빈곤하고 교육 기회나 고용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업을 마련해 주겠다는 알선업자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인신매매되고 있다.

국내에서 2007년부터 3년간 성구매 남성의 기소율은 17.3%밖에 되지 않았으며 최근 조사에서 77.7%가 '해외 성매매 관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국내에서의 처벌도 미약하고 해외에서의 성매매 역시 국내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매매 관광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아동대상의 성매매까지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남성의 성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 폭력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 행위를 사는 거래가 아니다. 동의가 있건 없건 누군가의 대상으로, 종속된 자로 취급되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폭력이고 무력화되는 억압을 경험하는 일이다. 성판매 경험을 한 여성이나 아동이 탈성매매이후 오랜 치유과정이 필요한 트라우마를 겪는 이유는 바로 그 폭력성때문이다.

남성의 성적 향유권 뒤에 숨겨진 가난해서,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되는 여성과 아동이 없기를, 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호받기를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스페셜 올림픽과 '주리반타카'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또 하나의 올림픽이 열렸다. 국내 19만명, 세계 2억 2천만 명의 지적장애인(children and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 스페셜 올림픽이 바로 그것이다.

스페셜올림픽 창설자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누구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사랑과 자부심으로 세상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처럼 이번 2013년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의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또한 이번 세계대회는 120여 개국 3,300여명의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7개의 올림픽 스포츠 종목에 참여해 기량을 펼치고, 지역, 국경, 정치적 이념, 연령, 인종 그리고 종교의 장벽을 초월하여 함께 어울리는 인류 축제의 장이었다. 이곳에서 지적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의 세레모니가 펼쳐졌다.

월정사 또한 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헝가리선수단 3박4일 호스트타운(템플스테이) 개최,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적 개최 및 나눔과 화합을 위한 음악회' 개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경기장 방문 및 선수단 응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스페셜올림픽에 국민들은 무관심하였고, 불교계의 참여 또한 부족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지적장애인들이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키워나가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교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하자면 불교계가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당장 장애인들에게 사찰 문턱은 높다. 제대로 된 장애인 시설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해 장애인 전법단을 출범하고 장애인전법도량 4곳을 지정한 것이 다행인 상황이다.

하지만 불교에는 장애인이 출가해 정각을 이룬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한 사람으로 육안을 못 쓰는 아나율이 있다. 부처님 설법 도중 졸아 책망을 듣고, 서원(誓願)을 세워 조금도 자지 않았는데, 그 결과 안질(眼疾)을 얻어, 마침내는 두 눈을 못 보게 됐다. 육안을 못쓰는 대신, 천안(天眼)이 열려 '천안제일'이라고 칭송했다. 부처님도 그의 서원을 찬탄하며 가사를 손수 기워주기도 했다.

지적 장애인의 예를 꼽자면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주리반타카를 들 수 있겠다. 그 역시 일념의 정진해 결국 정각을 이뤄 아라한이 됐다. 몸과 정신의 장애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불교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장애는 너와 나,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분별심이다.

스페셜올림픽에는 'Be a Fan'이라는 캠페인이 있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페셜올림픽의 목적을 널리 알리려는 통합 캠페인이다. 불교계와 우리 국민들은 스페셜올림픽 기간만이 아닌 매일 매일 'Be a Fan' 캠페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헝가리선수단의 템플스테이를 보면서 우리 문화의 체험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과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社說

불상 유출 일본 반환 신중하자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는 1월 31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불상의 일본 반환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특히 금동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려시대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성보여서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부석사 신도회도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 일본에 의해 부당하게 강탈당하고 그렇게 부당히 간 유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해당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불상의 과거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절대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외교는 양보도 필요하지만,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양보할 경우 국가 정체성에 타격이 있다"며 강한 어조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 6~8일경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 2점을 도난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일본에 돌려준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반환 방침을 철회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은 한일 양국의 공동조사를 통해 불상의 전래과정을 밝혀내는게 급선무다.

중앙신도회 新舊갈등, 소통만이 해답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내부 갈등으로 새해 벽두부터 소란스럽다. 지난해 이기흥 회장 체제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첫해에 불거져 나온 잡음들은 흔히 일어나는 '신구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사)연우가 운영하는 연우치과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진료를 중단했다. 현재 연우치과는 폐쇄된 상태로 '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와의 관계 문제로 운영을 중단했다'는 공지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병원비를 내고도 치료를 받지 못한 불자 환자들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

중앙신도회 산하 법인인 불교인재원은 법인 통합 건으로 시끄럽다. 실제 (사)날마다 좋은날과 통합 문제로 지난해 11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벽을 부수고 하는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중앙신도회를 고소하기도 한 불교인재원은 불투명한 2013년 사업으로 10여 차례 기획된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순례 행사를 4차례로 축소할 계획이다.

불자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교수자문단도 매끄럽지 못하다. 불자들의 모임인 교수불자연합회와 사업과 활동영역이 영역이 중첩됨에도 전혀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불자연합회가 밝힌대로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새 집행부가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신구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냐는 것이다. 이전 체제의 잘못이 있었다 해도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다면 그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중앙신도회 새 집행부는 이제 시작했다. 재가불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반발을 줄이고 문제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새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

'소통'이라는 이 시대의 명제를 꼽씹어 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신제품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 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들 때 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 능 효 과 ⊙
▶ 잇몸질환 예방 ▶ 구취 제거
▶ 치주질환 예방 ▶ 시린 이 개선
▶ 충치예방 ▶ 미백효과
▶ 치태제거
200g × 2개 가격 2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출강 및 통신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본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SOCIALWELFARE CORPORATION W.F.B W.F

전국지부 및 회원 모집 안내



이 사 장 윤기순

설립취지서

·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 법인은 고령화사회 마스터플랜을 통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안전생활 생산적 노년 편리한 환경에서 능동적인 고령 친화 사회구현을 위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초한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실체적으로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하고 환희심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을 해소하고자 한다.

· 특히 시방법계 제방 불교인들이 일불제자로서 조화와 대통합을 통해 세계일화로 범종단의 화합을 성취하여 원력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신행을 창조하 는 정토세계를 구현 예토세계의 고통중생에게 무량공덕과 자비봉사의 대원력과 행원을 사회속에 회향시켜 진정한 불교적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치를 제공하는 불교 복지문화 마케팅 패러다임을 구축 우리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을 다함께 보태 노인 적합형 사회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이 법인은 예비 노인들의 노후대비 정신함양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고령화 사회 마스터플랜의 효율적인 단계별 성과관리 방식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관리 시스템을 강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 사회복지의 서비스 향상과 노인의 고소득 고용 지원 등을 통해 노인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며 노인들이 의식주에서 충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 노인무료급식 및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의 날 효행잔치 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 긴급구호, 난방비, 김장김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실현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 불교종단은 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또한 불교종단은 복지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무소득,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불교 종단들도 복지문화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부합하여 포교 및 전법활동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 확산과 복지문화에 적극 동참하면 사회인과 소통하고 불교의 사회국제 성과를 높일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 나눔에도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이 사 장 윤기순 회 장 각운 무산 총 재 경담 각성 대외협력위원장 성대 무공

모 집 부 문

구 분	내 용	비 고
종 단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종단, 단체는 회원지부 종단으로 등록가능	등 록 비 무 료
사 암	각 사암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사찰은 회원사찰로 입회하여 사회복지관련 정보 제공	사찰가입비 무 료
회 원	일반불자로서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분에게 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봉사체험시설안내	회원가입비 무 료



본 복지재단은 미얀마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복지혜택문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재단은 승려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종교적 사회적 책임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나눔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317호. 338호) 전 화 : 02)2198-5022~4 / 팩 스 : 02)2198-5025 / H.P 010-4167-3666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상 ·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워봅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가세요-